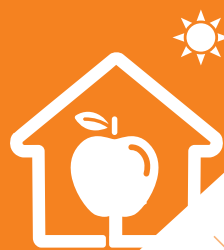


2019 가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5G 시대, 농업·농촌의 변화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1-2019-03

농업농촌경제동향 2019 가을호 | 제22권 제3호 (통권85호)

등 록

인 쇄 2019. 11

발 행 2019. 11

발행인 김홍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농업·농촌경제동향

2019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경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김문희 kmh0618@krei.re.kr, 김충현 goldbl@krei.re.kr, 서홍석 hongseokseo@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1
6. 세계경제	14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5
2. 농촌 물가	16
3. 농림어업 취업자	19
4. 농축산물 수출입	21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7
2. 엽근채소	32
3. 양념채소	38
4. 과일	46
5. 과채	53
6. 축산	62

IV.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조사 개요	69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70

특별주제

5G 시대, 농업·농촌의 변화	81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99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119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19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하였으며, 정부 소비지출의 높은 증가세 지속과 수출 증가폭 확대가 영향을 미침.
- 2019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73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54만 명으로 나타남.
- 2019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7% 증가함.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매출액 증가와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19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와 같음(104.9).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 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5.4% 하락하고 1.9%, 0.9% 상승함.
- 2019년 8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0.9%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9%, 0.4% 증가하였으며, 2019년 9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주요국 경제지표의 부진 및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폭 하락함.
- 2019년 3/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원/위안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2019년 2/4분기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경우 2.0%, 중국 6.2%, 일본 0.3%, 유로 0.2%를 기록함.

II. 농촌경제 동향

- 2019년 3/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1%, 전분기 대비 1.4% 성장함.
- 2019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7%, 전분기 대비 6.1% 하락함.
 - 부류별로 특용작물 및 부산물을 제외한 곡물류, 청과류, 축산물 등이 하락함.
- 2019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 전분기 대비 0.1%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하였고,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0%, 0.9% 상승함.
- 2019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전분기 대비 6.0%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 악화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Delta 5.7\%$)으로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상승(1.6%)한 것에 기인한 것임.
- 2019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전분기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전분기 대비 4.2% 증가함.
- 2019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7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함.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6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함.

III. 특별주제

1. 5G 시대, 농업·농촌의 변화

- 5세대 무선 이동통신 기술(5G, 5 Generation)은 초고속성,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을 바탕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시키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임. 5G 기술은 단순 통신사업 뿐 아니라 실감형 미디어, 자율주행차, 의료서비스, 도시와 마을과 같은 지역 공간 등 다른 부문에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며, 투자 규모 및 내수시장이 작음. 그러나 5G 시장이 초기 단계이고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인프라·단말기 제조, ICT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개발 및 투자로 기술 격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농업 분야에서 주요국들은 5G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와 트랙터 원격 진단 서비스를 개발 및 시범 운영 중임. 5G 기반 드론의 경우 이전보다 대용량 자료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 작물 모니터링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축산 분야에서는 5G 기술을 활용하여 소·돼지의 모니터링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5G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방지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농촌 분야에는 5G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CCTV, 원격진료,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안전, 의료,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 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5G 기술의 농업·농촌 분야 활용에 대한 농업인 관심도를 조사해 본 결과, 농업인들은 첨단 농업 기술 중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및 비료살포, 작물 모니터링과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 시스템’,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에 관심이 높음. 다만 연령별·영농형태별로 관심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농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농업·농촌 분야에서 5G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을 비롯한 주변 기술이 동반 발전되어야 하므로 관련 산업계와 밀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자금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규제 완화도 필요함.

2.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표본 농가를 4개 유형(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중대농·소농 집단 농업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농가소득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장년 집단은 고령 집단보다 농외소득을 많이 얻고 있고, 고령 집단은 이전소득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음.
- 농가 유형별로 소득 원천과 격차 변화 양태가 다르게 나타남.
- 청장년 소농은 영농 활동보다 농외 활동이 주요 소득원임. 분석 기간 동안 집단 내 농외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음.
- 청장년 중대농은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농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평균 소득이 가장 많지만 소득 불안정성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 고령 소농은 농업·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모두 제한적이었으며, 고령 대농은 영농 활동에서 주로 소득을 얻지만, 집단 내 농업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음.
- 2013~2017년 ‘상대적 빈곤률’ 비중은 11.2~13.8%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농 집단에서 비중이 더 높았음.
- 2013~2017년 도·농 소득 격차는 점차 좁혀져 2017년에는 64.1%로 나타남. 2013~2016년 농가 처분가능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65.1%였음.
- 농가가 점차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target)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적절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청장년 소농 집단은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원인(예를 들어 농지 확보나 영농 기술 습득 제약)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청장년 중대농 집단에게는 규모 확대 및 소득불안정 완화 관련 정책이 보다 중요함.
- 고령 소농 집단은 농가 수가 가장 많으면서 소득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취약함. 농업 정책에 더해 복지 또는 지역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 중대농 집단은 일정 기간 영농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경영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되, 중장기적으로는 청장년 집단이 농지를 양도·임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 농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실태조사가 시작됨.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가구형태와 사회적 요인을 조사한 기본사항, 경제·사회 활동, 교육활동, 복지현황, 정책수요 및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함.
- 여성농업인은 농업활동, 농업경영관련 활동과 농업생산 외 활동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의향이 높음.
-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은 남성에 비해 적지만 여성의 농업노동시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에 비해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동시에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적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건강/문화/복지 여성농업인은 '취미·여가·교양'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동시에 가장 유익하며 향후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이었음.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여성농업인의 건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음.
- 2013년과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의 차이로 인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가 있음.
 - 2013년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연령이 올라감. 5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증가하여 농촌 고령여성농업인 증가를 보여줌.
 -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농사일이 힘들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 30대, 40대 여성농업인에서는 아이들 교육여건이 취약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교육여건은 2013년에 비해 2018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은 연령별로 집단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여성농업인의 92.3%가 농촌 거주 의향이 있었지만, 30대 이하는 63.9%만 거주 의향이 있음. 다문화 여성은 50.8%만이 농촌 거주 의향이 있었음.
 -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과 「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 등 순이며, 「과중한 노동 경감」이라는 답변은

50~60대에서, '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라는 답변은 70대 이상에서 '보육·교육시설 확충'이라는 답변은 보육을 주로 담당하는 30대 이하에서 높게 나옴.

- 다양하게 실시되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와 참여도는 정책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인지도에 비해 낮은 참여도를 보였음. 하지만 인지도 역시 낮아서 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이 필요해보임.
- 실태조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는 농촌과 농촌에 있는 여성의 생활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의 변화는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농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임.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드러난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에는 가사와 농업노동의 과중함, 전문능력의 필요성, 사회적 지위의 미약함 등에 대한 후속 연구와 정책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실태조사는 조사자체로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음. 하지만 5년마다 이루어지는 통계조사는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19년 3/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으며, 건설투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정부 소비지출의 높은 증가세 지속 및 수출 증가폭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1% 증가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구분	2018				2019 ^p		
	1/4	2/4	3/4	4/4	1/4	2/4	3/4
G D P 성장률	1.0	0.6	0.5	0.9	-0.4	1.1	0.4(2.0)
민간소비	0.7	0.5	0.4	0.8	0.1	0.7	0.1(1.7)
정부소비	1.9	0.6	1.6	2.8	0.4	2.2	1.2(6.8)
건설투자	0.9	-2.5	-6.0	1.8	-0.8	1.4	-5.2(-3.0)
설비투자	4.3	-8.4	-4.0	3.2	-9.1	3.2	0.5(-2.7)
총 수 출	3.5	0.7	4.0	-1.4	-3.2	2.0	4.1(1.3)
총 수 입	4.3	-2.3	-1.1	1.6	-3.4	2.9	0.9(2.0)

주 1. 2018^p, 2019^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문희 연구원(kmh0618@krei.re.kr), 서홍석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19.10.24.)」,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최근경제동향(2019.10.18.)」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정부 소비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수출의 증가폭도 확대됨.
 - 2019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해외여행 등 거주자 국외 소비가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정부소비의 경우 건강보험금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2% 증가함.
 - 2019년 3/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줄면서 전기 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줄었으나 운송장비가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0.5% 증가함.
 -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운송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0.9%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제조업의 증가폭이 확대됨.
 -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이 늘어 전기 대비 1.4% 증가함.
 - 제조업은 컴퓨터 및 전자·광학기기 등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2.1% 성장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4%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8 ^p				2019 ^p		
	1/4	2/4	3/4	4/4	1/4	2/4	3/4
농림어업	3.2	-2.6	-3.5	2.8	4.7	-3.6	1.4(5.0)
제조업	0.8	1.6	1.6	1.6	-3.3	1.1	2.1(1.5)
서비스업	1.3	0.4	0.5	0.5	0.8	0.8	0.4(2.5)
(도소매 및 음식숙박)	-0.7	0.7	1.4	1.2	-2.3	0.8	1.5(1.1)
(운수업)	-3.1	4.1	0.4	1.0	-3.4	1.9	0.9(0.3)
(금융 및 보험업)	3.4	1.7	0.1	-0.6	2.5	1.3	1.3(4.6)
(정보통신)	3.1	-1.6	-1.0	-0.1	6.9	-1.5	-2.6(2.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0.7	1.8	4.5	3.1	-0.9	2.1	2.5(7.0)

주 1. 2017^p, 2018^p, 2019^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19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3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함.
- 2019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738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함.
 -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54만 1천 명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가 11만 3천 명, 임시근로자가 1만 명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9천 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 6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 3천 명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17	2018					2019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7,748	27,895	27,464	28,125	28,080	27,912	27,702	28,432	28,328	0.9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2.3	63.7	63.5	63.0	62.4	63.9	63.6	0.2
취업자	26,725	26,822	26,283	27,019	27,015	26,971	26,461	27,256	27,382	1.4
• 농림어업	1,279	1,340	1,056	1,457	1,481	1,367	1,158	1,475	1,538	3.8
• 광공업	4,589	4,529	4,597	4,509	4,496	4,514	4,447	4,438	4,417	-1.8
(제조업)	4,566	4,510	4,575	4,487	4,479	4,499	4,432	4,424	4,403	-1.7
• 건설업	1,988	2,034	1,977	2,031	2,035	2,094	1,970	2,030	2,034	0.0
• 도소매·음식숙박업	6,083	5,966	6,000	5,979	5,955	5,928	5,943	5,996	5,982	0.5
실업자	1,023	1,073	1,181	1,105	1,065	942	1,241	1,176	946	-11.2
실업률(계절조정)	3.7	3.9	3.7	3.8	4.0	3.9	3.9	4.0	3.5	-12.5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19년 9월 고용동향(2019.10.16.)」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9.10.18.)」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19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7% 증가함.
- 2019년 8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8.3%), 의복 등 준내구재(1.0%),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0%)가 모두 증가하여 전월 대비 3.9% 증가함.
- 백화점 및 할인점의 매출액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매출액 증가,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17	2018p					2019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p	8월p
민 간 소 비	2.8	2.8	0.7	0.5	0.4	0.8	0.1	0.7	-	-
소 매 판 매	1.9	4.3	2.1	0.6	-0.2	-0.1	1.3	1.0	-0.9	3.9
(내 구 재)1	5.3	5.6	4.7	0.2	-2.6	0.3	2	-0.4	-2.1	8.3
(준내구재)2	-1.1	5.9	0.7	3.0	1.7	0.6	-2.4	3.6	-1.5	1.0
(비내구재)3	1.8	2.9	1.5	-0.2	0.4	-0.5	2.5	0.4	0.1	3.0

-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8년, 2019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19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함.
 - 이전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2%, 7.0%, 4.5% 증가하였음. 반면 비경상소득,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6%, 1.8%로 크게 감소하였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9.10.18.)」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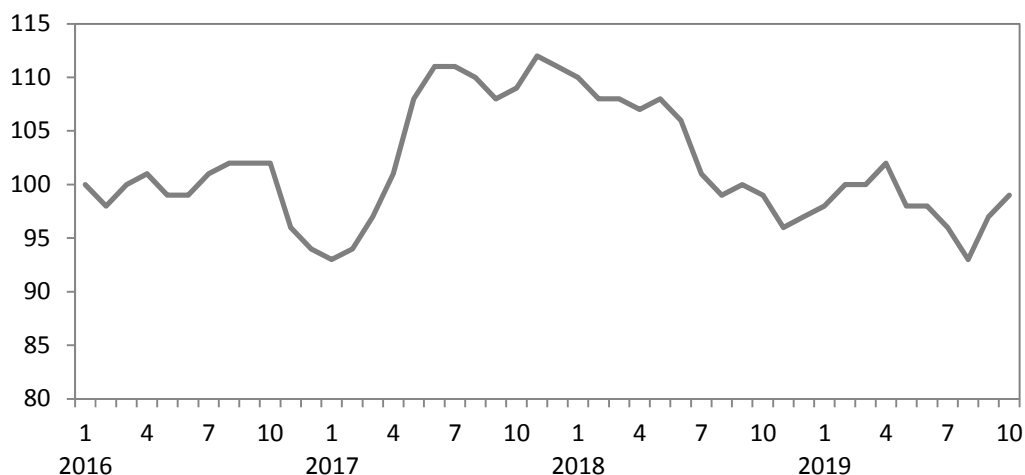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7				2018				2019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소 득	0.8	0.9	2.1	3.1	3.7	4.2	4.6	3.6	1.3	3.8
경상소득	0.8	1.1	2.5	3.4	7.5	6.3	5.7	4.8	1.7	4.2
(근로소득)	0.0	0.5	1.6	0.9	6.1	5.3	4.5	6.2	0.5	4.5
(사업소득)	0.9	4.1	6.2	8.5	5.7	3.8	1.1	-3.4	-1.4	-1.8
(재산소득)	15.2	12.9	34.4	9.5	3.4	34.4	9.3	4.9	-26.0	7.0
(이전소득)	5.3	-1.6	1.0	10.1	19.2	16.6	22.8	11.9	14.2	13.2
비경상소득	1.7	-4.0	-18.0	-11.7	-79.2	-68.6	-49.6	-55.3	-43.5	-44.6

자료: 통계청

- 2019년 10월 소비심리지수⁵⁾는 전월(97) 대비 소폭 증가한 99으로 전년 동월(99)과 같음.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19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4.9로 전년 동기와 같음.
 - 2019년 9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기 대비 8.2% 하락하였으며, 전기·수도·가스, 서비스가 각각 1.5%, 0.5%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총 지 수	104.5 (1.5)	103.9 (1.1)	104.3 (1.5)	104.8 (1.6)	104.8 (1.8)	104.5 (0.6)	104.9 (0.7)	104.9 (0.0)
상 품	102.7 (1.3)	102.1 (0.5)	102.2 (1.2)	103.1 (1.6)	103.2 (2.1)	101.7 (-0.4)	102.5 (0.3)	102.1 (-1.0)
농축수산물	113.6 (3.7)	112.2 (0.7)	110.0 (2.0)	117.1 (4.9)	115.0 (7.1)	112.5 (0.2)	111.3 (1.2)	110.7 (-5.4)
공업 제품	102.2 (1.3)	101.7 (0.7)	102.3 (1.5)	102.5 (1.8)	102.5 (1.1)	101.0 (-0.7)	102.3 (0.0)	102.3 (-0.2)
전기·수도·가스	86.9 (-2.9)	87.5 (-1.9)	87.5 (-3.0)	84.0 (-7.0)	88.7 (0.3)	88.6 (1.3)	88.6 (1.3)	85.6 (1.9)
서 비 스	105.9 (1.6)	105.4 (1.5)	106.0 (1.7)	106.2 (1.5)	106.2 (1.6)	106.7 (1.3)	106.9 (0.9)	107.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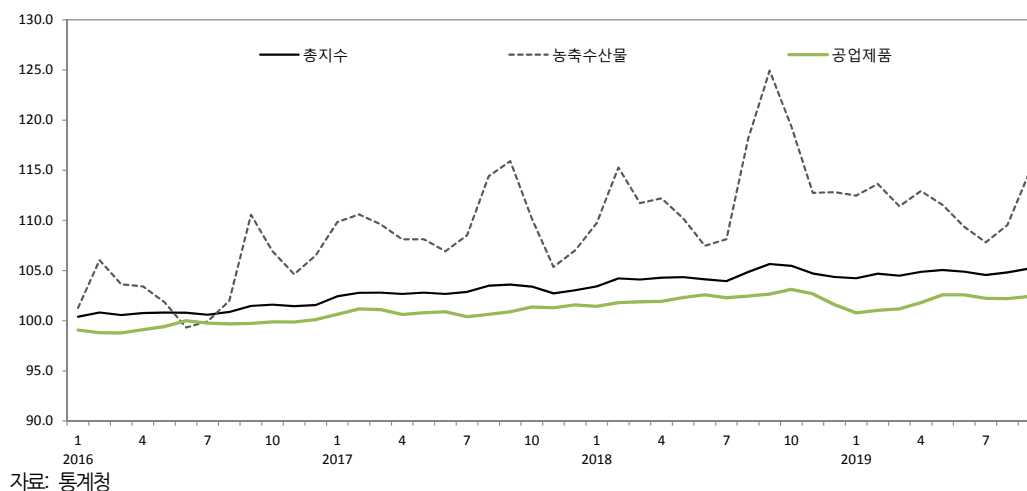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9년 3/4분기 상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의 경우 0.9% 상승함.
 - 농축수산물은 작년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것에 비해, 올해 작황 호조로 농산물 가격 안정이 이어져 하락폭이 확대됨.
 - 석유류는 전년대비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6) 물가 부문은 통계청 「2019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2019.10.01.)」, 한국은행 「2019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2019.10.22.)」, 「2019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2019.10.16.)」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19년 9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연료, 교통, 보건, 통신, 주류·담배는 상승하였으며 의류·신발, 기타 상품·서비스는 변동이 없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 음식·숙박, 교육은 하락하였음.
 - 전년 동월 대비로 주택·수도·전기·연료, 음식·숙박 등 6개 부문은 상승하였고 교육, 오락·문화, 통신 등은 하락하였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 2019년 3/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0.7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하였으며, 전분기 대비 0.5% 하락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7% 하락하였고, 농산물 품목별로는 곡물이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하였고 채소, 과일, 기타농산물이 각각 16.2%, 10.8%, 1.0%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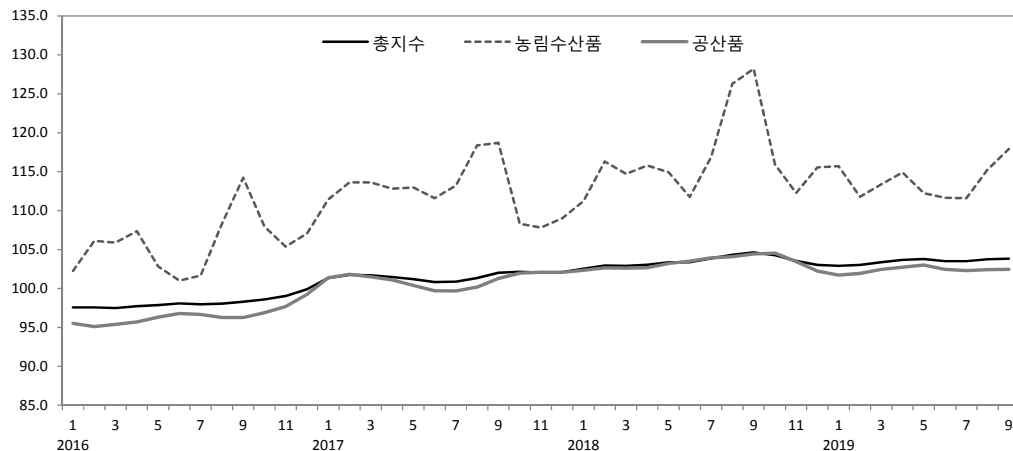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8					2019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13.6	112.2	110.0	117.1	115.0	112.5	111.3	110.7	-5.4	-0.5
농산물	117.3	116.0	111.2	122.0	120.0	117.6	113.0	111.4	-8.7	-1.4
곡물	108.1	100.9	105.8	108.2	117.6	119.6	119.0	118.0	9.1	-0.8
채소	121.8	122.9	111.1	134.2	118.8	110.3	101.9	112.5	-16.2	10.4
과실	115.8	115.0	111.4	116.5	120.2	120.7	117.3	103.9	-10.8	-11.5
기타농산물	125.7	126.1	122.9	124.7	129.0	130.0	127.2	123.4	-1.0	-3.0
축산물	107.3	105.6	105.8	110.8	107.1	103.9	107.6	108.6	-2.0	0.9
수산물	113.3	112.6	114.3	112.7	113.6	112.4	113.0	112.7	0.0	-0.3

자료: 통계청

- 2019년 3/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3.7로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함.
 - 2019년 9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축산물 등이 올라 전월 대비 2.3% 상승함.
 - 공산품은 제1차금속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오르고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려 전월 대비 보합임.
 -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과 서비스는 전월 대비 1.1%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9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01.1로 전분기 대비 0.4%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함.
- 2019년 9월 수출물가지수는 101.0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8%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10.6% 하락함.
- 2019년 3/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17.9로 전분기 대비 0.3% 상승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함. 9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17.3로 전월 대비 1.7% 하락함.
- 2019년 3/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01.0으로 전분기 대비 0.4%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하였으며, 9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01.0로 전월 대비 0.8%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103.4 (0.8)	101.4 (-1.8)	102.4 (0.8)	106.2 (3.2)	103.6 (0.8)	99.6 (-1.8)	101.5 (-0.9)	101.1 (-4.8)	101.8 (-4.0)	101.0 (-5.0)
농림수산물	114.8 (-4.0)	113.1 (-1.2)	112.3 (-6.1)	115.8 (-7.2)	117.8 (-1.3)	118.6 (4.9)	117.6 (4.7)	117.9 (1.8)	119.4 (2.1)	117.3 (-0.5)
농 산 물	100.1 (1.8)	89.7 (-6.4)	93.2 (-9.3)	105.0 (1.4)	112.5 (23.4)	117.1 (30.6)	116.7 (25.2)	118.5 (12.8)	120.9 (10.2)	117.0 (8.0)
공 산 품	103.4 (0.8)	101.3 (-1.8)	102.4 (0.9)	106.2 (3.2)	103.6 (0.8)	99.5 (-1.8)	101.4 (-1.0)	101.0 (-4.8)	101.8 (-4.1)	101.0 (-5.0)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9년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10.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하락하였고, 전분기 대비 0.7% 하락함.
- 2019년 9월 수입물가지수는 110.6으로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7.9% 하락함.
 - 2019년 9월 기준 원재료의 경우 광산품이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1.3%, 0.5% 하락함. 또한, 중간재의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올랐으나,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함.
- 2019년 9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05.0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7.5%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8					2019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총 지 수	108.4 (6.3)	103.9 (0.3)	108.1 (7.7)	111.9 (10.6)	109.9 (6.6)	107.3 (3.3)	111.4 (3.1)	110.6 (-1.2)	111.0 (-0.2)	110.6 (-2.2)
농림수산물	98.3 (-1.6)	96.6 (-7.2)	98.8 (-0.7)	99.03 (0.3)	98.64 (1.6)	97.4 (0.8)	102.6 (3.8)	103.8 (4.8)	104.5 (5.3)	105.0 (7.5)
농 산 물	97.5 (-0.1)	95.3 (-6.7)	98.7 (2.7)	98.2 (1.1)	97.78 (3.1)	95.38 (0.1)	100.0 (1.3)	100.4 (2.2)	100.9 (2.6)	100.1 (3.0)
축 산 물	96.0 (-2.9)	95.3 (-6.5)	94.9 (-4.8)	96.96 (-0.5)	96.9 (0.5)	98.09 (2.9)	107.4 (13.2)	105.5 (8.8)	106.4 (10.3)	105.1 (8.9)
공 산 품	103.4 (2.4)	100.7 (-1.7)	102.6 (3.4)	105.85 (5.1)	104.4 (3.0)	102.3 (1.6)	105.7 (3.0)	105.8 (-0.1)	106.5 (0.7)	105.6 (-0.4)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19년 8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9% 증가)함.
- 2019년 8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9%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19년 8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8						201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M1 ¹⁾	4.8	4.0	4.3	1.7	2.7	1.9	2.1	1.9	2.6	3.0	3.2	3.3	3.8	4.7
M2 ²⁾	6.7	6.7	6.4	6.8	6.8	6.8	6.5	6.2	6.8	6.6	6.6	6.7	6.6	6.8
Lf ³⁾	7.1	7.1	7.2	7.4	7.5	7.6	7.4	7.1	7.6	7.7	7.9	8.0	8.0	8.2
본원통화 ⁴⁾	8.8	8.8	10.3	7.1	8.2	9.2	8.7	8.4	8.8	8.8	9.9	9.2	7.7	9.4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9년 9월 국고채(3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와 향후 채권공급 확대 우려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나 9월 중순 이후 주요국 경제지표의 부진 및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폭 하락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9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2019.10.15.)」과 「2019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2019.10.11.)」, 「2019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19.10.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단기시장금리는 장기금리 상승 및 MMF 수신 감소 등으로 상승함.
-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 기대와 주요국 경기부양조치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나 9월 하순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18			2019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국고채(3년)	2.01	1.94	1.83	1.81	1.80	1.79	1.74	1.68	1.50	1.38	1.16	1.29
회사채1	2.45	2.40	2.30	2.26	2.25	2.24	2.21	2.15	2.00	1.89	1.69	1.79
CD유통수익률(91일)	1.68	1.71	1.91	1.87	1.87	1.90	1.86	1.84	1.80	1.68	1.49	1.54
콜금리2	1.52	1.51	1.77	1.75	1.76	1.76	1.75	1.75	1.76	1.63	1.51	1.52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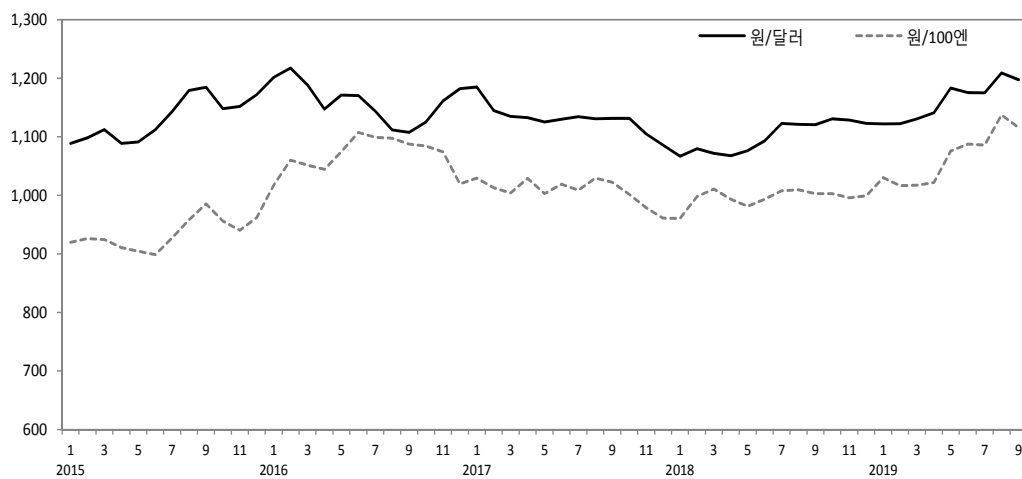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분기 대비 27원 상승한 1,193원임.
 - 2019년 9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 기대 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소폭 하락함.
- 2019년 3/4분기 원/위안 환율은 170원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원/100엔 환율은 상승하여 1,112원을 기록함.
- 2019년 9월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월 대비 축소되었으며, 기간중 표준편차는 전월 대비 확대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원/달러	1,131	1,100	1,072	1,079	1,122	1,128	1,125	1,166	1,193	1,209	1,198
원/100엔	1,009	996	989	989	1,007	999	1,022	1,060	1,112	1,137	1,116
원/유로	1,276	1,299	1,317	1,287	1,304	1,286	1,278	1,310	1,328	1,346	1,319
원/위안	167	166	169	169	165	163	167	171	170	171	168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⁸⁾

- 미국 경제는 양호한 고용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ISM 제조업 지수 등 일부 지표의 부진한 추세에 따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둔화가 우려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2.4	2.9	2.5	3.5	2.9	1.1	3.1	2.0	-	-
	산업생산(전기비)	2.3	3.9	0.6	1.1	1.3	1.0	-0.5	-0.5	-0.1	0.7
	소매판매(전기비)	4.2	4.9	0.9	1.3	0.8	0.3	0.3	1.9	0.7	0.6
	실업률(계절조정)	4.4	3.9	4.1	3.9	3.8	3.8	3.9	3.6	3.7	3.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1	2.4	2.2	2.7	2.6	2.2	1.6	1.8	1.8	1.7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8	6.6	6.8	6.7	6.5	6.4	6.4	6.2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6	6.2	6.8	6.6	6.0	5.7	6.5	5.6	4.8	4.4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2	9.0	9.8	9.0	9.0	8.3	8.3	8.5	7.6	7.5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6	2.1	2.2	1.8	2.3	2.2	1.8	2.6	2.8	2.8
일본	실질GDP(전기비)	1.9	0.8	-0.1	0.5	-0.5	0.4	0.5	0.3	-	-
	산업생산(전기비)	3.1	1.1	-0.9	0.8	-0.7	1.3	-2.5	0.7	1.3	-1.2
	소매판매(전기비)	1.9	1.9	-0.4	0.5	0.9	0.7	-1.3	0.4	-2.3	4.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5	1.0	1.3	0.7	1.1	0.8	0.3	0.8	0.5	0.3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2.5	1.9	0.3	0.4	0.2	0.3	0.4	0.2	-	-
	산업생산(전기비)	3.0	1.0	-0.9	0.1	0.1	-1.2	0.5	-0.6	-0.4	0.4
	소매판매(전기비)	2.5	1.6	0.2	0.9	0.0	0.6	0.9	0.5	-0.5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5	1.8	1.3	1.7	2.1	1.9	1.4	1.4	1.0	1.0

자료: 기획재정부

- 중국 경제는 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자 물가 역시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성장세 약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일본 경제는 8월 중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산업생산도 감소하였으나, 실업률은 2.2%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매판매 역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유로존 경제는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그 추세가 미약한 가운데 제조업 PMI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9.10.18.)」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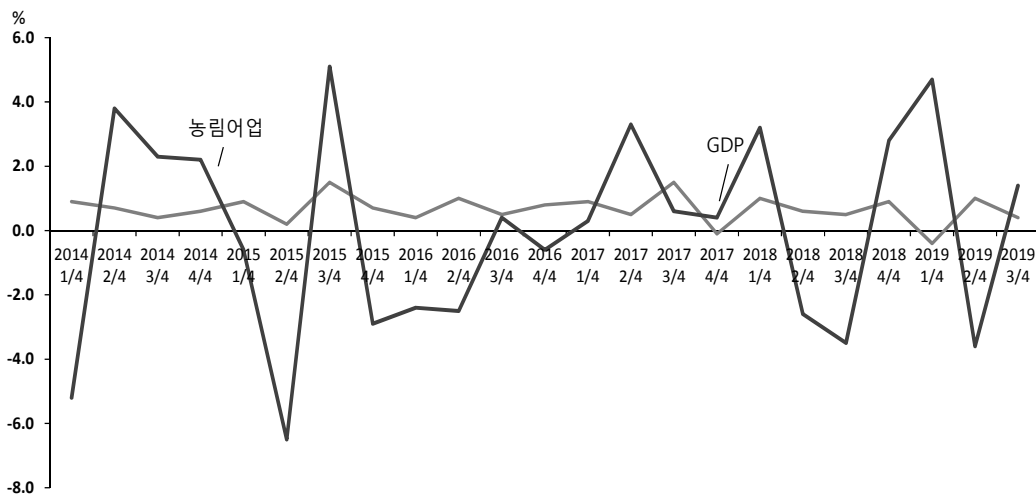
II. 농촌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19년 3/4분기 8조 2,87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함.
 -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61조 6,13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0.4% 성장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1)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8년과 2019년 3/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 서홍석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9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1.5로 전년 동기 대비 5.7%, 전분기 대비 6.1%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특용작물 및 부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두 부류를 제외한 나머지 곡물류, 청과류, 축산물은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2.4로 전년 동기 대비 0.4%, 전분기 대비 12.7% 하락함.
 - 서류는 고구마, 감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4%, 43.8%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함.
 - 두류/잡곡은 콩 가격 상승(11.8%)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가격 하락(Δ 11.2%)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하락함.
 - 미곡, 맥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0.5% 상승함.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5.0로 전년 동기 대비 17.4% 하락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11.6% 상승함.
 - 엽채류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등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3% 하락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52.3% 상승함.
 - 조미채소류는 양파, 파, 풋고추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4%, 23.7%, 6.9% 하락하였으나 건고추, 미늘, 생강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2.4%, 98.2% 상승하여 1.9% 상승함.
 - 과채류는 딸기를 제외한 오이, 호박, 가지, 수박 등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여 20.4% 하락함.
- 과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8로 전년 동기 대비 3.5%, 전분기 대비 23.5% 하락함.
 - 배, 감귤, 단감, 매실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5%, 47.7%, 17.0%, 24.5%

상승하였으나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는 각각 6.8%, 22.4%, 9.0%, 30.9% 하락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7.4로 전년 동기 대비 3.8%, 전분기 대비 0.6% 하락함.
 - 한우 수소와 송아지, 젖소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한우 암소, 돼지, 육계, 오리 등은 하락함.
- 기타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전분기 대비 8.2%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17	2018			2019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7.6	108.5	104.7	107.6	108.1	101.5	-5.7	-6.1
곡물	280.1	94.5	118.2	124.2	112.8	128.8	112.4	-0.4	-12.7
-미국	234.3	86.5	112.2	109.0	114.1	122.6	121.3	6.3	-1.1
-맥류	5.5	95.0	93.4	96.1	85.3	100.0	85.7	0.5	-14.3
-두류/잡곡	23.9	129.7	138.0	151.2	117.8	183.3	107.0	-9.2	-41.6
-서류	16.4	105.3	148.3	219.8	107.8	109.4	61.3	-43.1	-44.0
청과물	406.5	121.8	118.2	107.9	116.8	110.0	102.8	-12.0	-6.5
-채소	268.9	107.6	110.9	92.8	115.0	85.1	95.0	-17.4	11.6
-과수	137.6	145.4	130.3	133.1	120.0	151.4	115.8	-3.5	-23.5
축산물	252.6	105.8	97.1	95.1	101.2	98.0	97.4	-3.8	-0.6
-가축	185.1	101.2	101.6	101.5	106.2	102.4	100.8	-5.1	-1.6
-기타	67.5	113.7	89.4	84.0	92.5	90.3	91.4	-1.2	1.2
기타농산물	60.8	96.7	101.9	93.0	93.7	99.8	91.6	-2.2	-8.2
-특용작물	42.4	92.9	94.3	86.9	96.9	89.2	98.3	1.4	10.2
-화훼	15.3	101.8	115.3	103.4	88.9	117.0	79.6	-10.5	-32.0
-부산물	3.0	109.2	93.1	88.4	88.4	102.4	102.4	15.8	0.0

자료: 통계청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9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4.3로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0.1%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96.4로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하고, 전분기와는 동일한 수준임.
 - 이는 비료비를 제외한 영농자재비, 종자종묘, 농약비, 사료비가 각각 3.7%, 4.5%, 1.6%, 5.4% 상승하였기 때문임.
- 노무비지수는 120.6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경비는 4.0%, 자산구입비는 0.9% 상승함.
 - 기계구입비는 104.9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와는 비슷한 수준임.
 - 가축구입비는 126.5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0.2% 하락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7	2018			2019		등락률(%)	
		연간	연간	2/4	3/4	2/4	3/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0.9	102.5	102.2	102.7	104.4	104.3	1.6	-0.1
가계용품	484.8	103.3	104.6	104.4	105.0	105.0	104.9	-0.1	-0.1
재료비	250.6	93.2	92.7	92.6	92.6	96.4	96.4	4.1	0.0
-종자종묘	27.5	100.6	107.7	107.7	107.7	112.6	112.6	4.5	0.0
-비료비	39.0	75.2	72.6	72.6	72.6	72.6	72.6	0.0	0.0
-농약비	29.3	96.9	95.3	95.3	95.3	96.8	96.8	1.6	0.0
-사료비	136.0	95.4	94.4	94.4	94.4	99.5	99.5	5.4	0.0
-영농자재비	18.7	98.3	95.9	95.0	95.0	98.5	98.5	3.7	0.0
노무비	45.0	108.8	114.8	114.6	116.0	119.5	120.6	4.0	0.9
경비	129.0	98.0	102.7	100.9	102.4	106.4	106.5	4.0	0.1
-영농광열비	32.6	94.1	108.4	105.2	110.6	110.3	109.4	-1.1	-0.8
-임차료	40.5	97.5	101.3	98.9	99.3	109.2	109.6	10.4	0.4
-농작업위탁비	42.5	102.0	101.7	100.9	100.9	103.9	103.9	3.0	0.0
-판매자재비	13.3	96.5	96.5	96.5	96.5	96.5	98.2	1.8	1.8
자산구입비	90.6	109.4	111.6	112.9	111.5	112.5	112.5	0.9	0.0
-기계구입	58.9	101.3	104.2	104.5	104.2	104.9	104.9	0.7	0.0
-가축구입비	31.7	124.4	125.2	128.6	125.2	126.7	126.5	1.0	-0.2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9년 3/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한 101.6임.
- 2019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7.3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전분기 대비 6.0% 악화됨.
 -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7% 하락하고, 농업투입재가격지수가 3.0%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은 전년 동기 대비 8.4% 악화됨.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18		2019		등락률(%)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04.7	107.6	108.1	101.5	-5.7	-6.1
농가구입가격(B)	102.2	102.7	104.4	104.3	1.6	-0.1
농업투입재가격	98.0	98.6	101.5	101.6	3.0	0.1
농가교역조건(A/B×100)	102.4	104.8	103.5	97.3	-7.1	-6.0

주: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3. 농림어업 취업자

- 2019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3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전분기 대비 4.3% 증가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39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전분기 대비 4.2% 증가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전체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89만 명, 여성 수는 5.0% 증가한 64만 8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전분기 대비 3.5% 증가한 181만 3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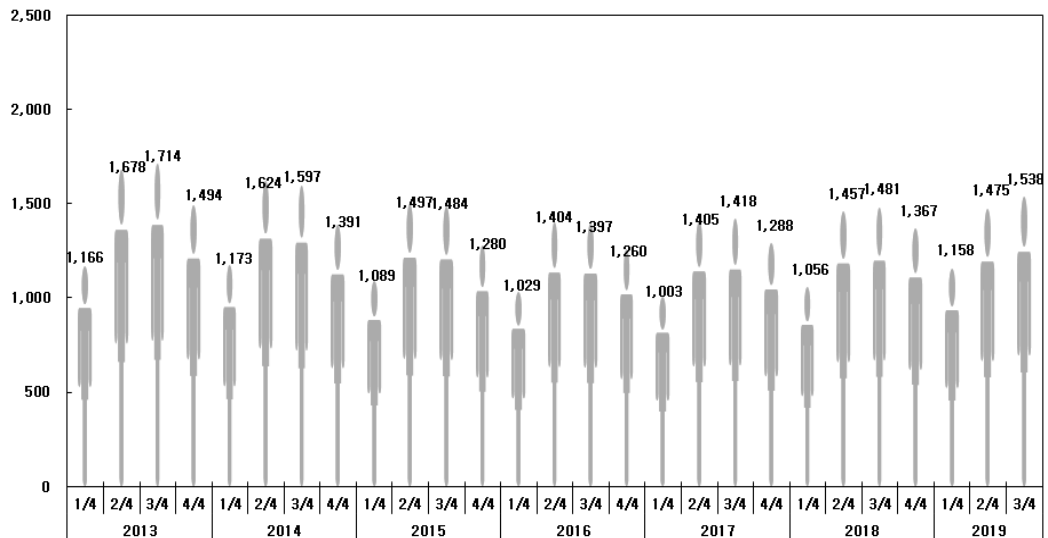
구 분		2018		2019		증감률(%)	
		2/4	3/4	2/4	3/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7,019	27,015	27,256	27,382	1.4	0.5
	(계절조정)	26,793	26,771	27,030	27,135	1.4	0.4
	농림어업	1,457	1,481	1,475	1,538	3.8	4.3
	(계절조정)	1,320	1,339	1,336	1,392	4.0	4.2
	- 남성	840	864	859	890	3.0	3.6
	- 여성	617	617	616	648	5.0	5.2
	농가	1,728	1,774	1,752	1,813	2.2	3.5
	- 농가남성	964	983	985	1,010	2.7	2.5
	- 농가여성	764	791	768	802	1.4	4.4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9년 1/4분기 115만 8천 명, 2/4분기 147만 5천 명, 3/4 분기 153만 8천명으로 증가세를 보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천 명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19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0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함.
 - 곡류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하였으나 과실류와 채소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 126.2% 증가하여 전체 농산물은 12.7%, 축산물은 44.7% 증가함.
 - 축산물의 경우, 포유육류는 수출이 미미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96.2% 증가하였으며, 가금육류는 전년 동기 대비 71.1% 증가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39.7%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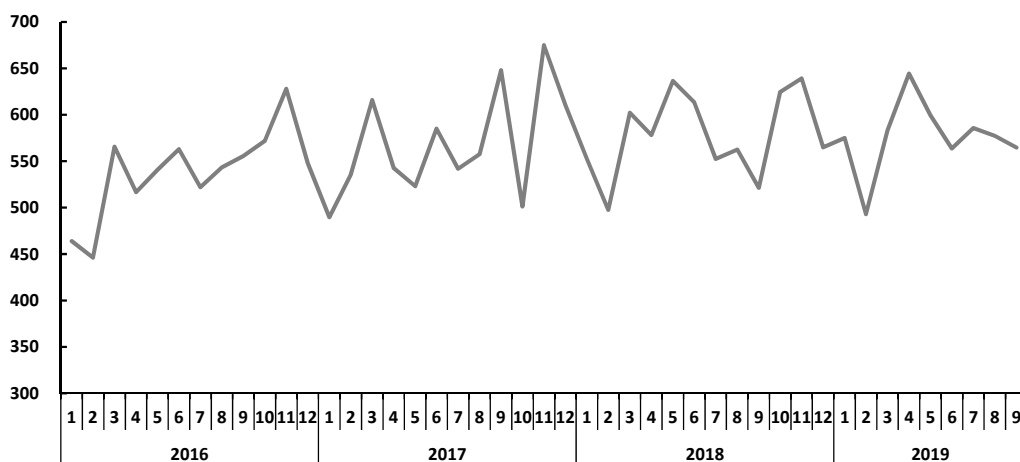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8				2019				전년 동기 대비	
	2/4		3/4		2/4		3/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88	1,829	1,052	1,636	1,064	1,808	1,050	1,728	-0.2	5.6
농산물	836	1,587	748	1,391	865	1,583	843	1,505	12.7	8.2
-곡류	61	27	13	7	62	28	12	8	-10.8	9.8
-과실류	27	52	27	69	23	55	30	91	10.4	32.5
-채소류	34	92	29	80	64	111	65	102	126.2	27.6
축산물	32	116	28	104	40	124	41	117	44.7	11.9
-포유육류	0	3	0	2	0	2	1	3	96.2	41.6
-가금육류	10	13	8	10	12	16	13	16	71.1	60.6
-낙농품	10	43	9	38	10	43	10	40	8.0	5.3
임산물	220	125	276	141	159	101	166	106	-39.7	-24.6
수 산 물	153	634	140	564	183	672	151	580	8.2	2.7
전 체	1,241	2,462	1,192	2,201	1,247	2,479	1,201	2,307	0.8	4.8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3/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7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곡물, 과일류, 채소류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가금육류, 포유육류, 낙농품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6%, 41.6%, 5.3% 증가함.
- 2019년 9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5억 6,46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2.2%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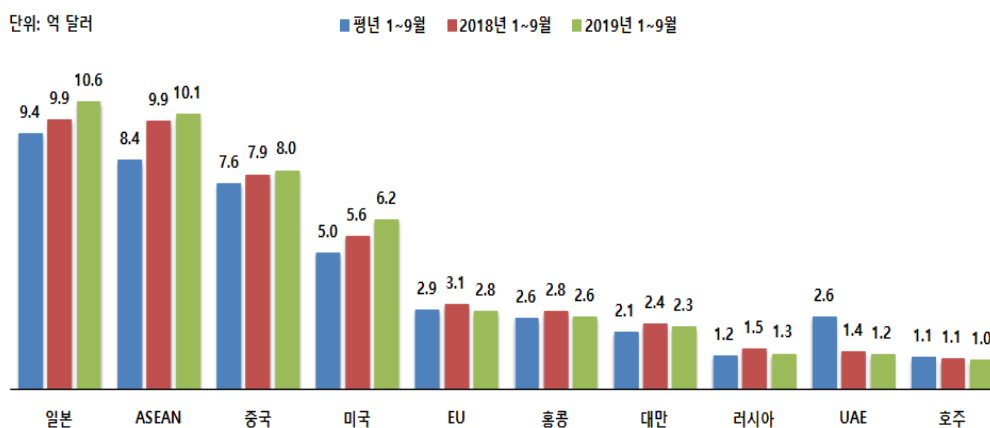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9년 1/4~3/4분기까지의 전체 농축산물 누적수출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한 51억 9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3.0% 증가한 30억 달러임.
 - 주요 수출대상국 중 일본, 중국, 미국 누적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그중 對일본 누적수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함.

- 2019년 4/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92.1로 전분기(96.8) 수준 전망되며, 수입규제·통상마찰(69.2), 국제수급(83.0), 수출국 경기(89.1) 등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계약(102.2), 수출 상담(105.8) 등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²⁾
 - 주요 수출 애로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상승(14.5%), 바이어의 가격인하요구(13.7%),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2.7%) 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19년 3분기」.

4.2. 수입 동향

- 2019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283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5.5%, 축산물은 4.4% 증가하였으나 임산물은 14.9% 감소함.

2) 한국무역협회, '2019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9.09.25).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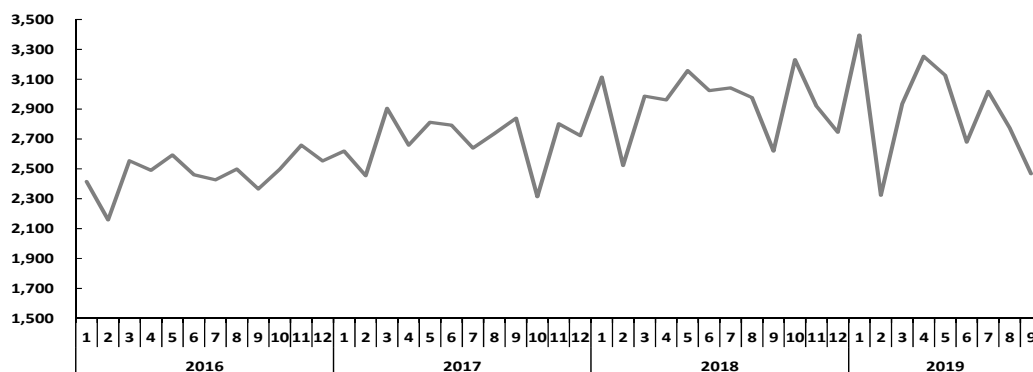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8				2019				전년 동기 대비	
	2/4		3/4		2/4		3/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987	9,143	13,069	8,638	14,063	9,060	12,832	8,260	-1.8	-4.4
농 산 물	8,812	5,207	7,993	4,735	9,224	5,389	8,430	4,658	5.5	-1.6
-곡류	3,815	906	3,397	845	3,990	1,042	3,701	855	9.0	1.2
-과실류	395	720	260	446	392	696	267	397	2.6	-10.9
-채소류	296	236	297	253	295	232	289	233	-2.9	-8.1
축 산 물	462	1,898	432	1,955	461	1,920	451	2,067	4.4	5.8
-포유육류	280	1,250	269	1,253	275	1,231	263	1,278	-2.1	2.0
-가금육류	43	97	39	94	45	112	46	122	16.6	29.9
-낙농품	77	253	77	250	83	271	88	289	14.5	15.7
임 산 물	4,714	2,038	4,644	1,949	4,378	1,750	3,951	1,535	-14.9	-21.2
수 산 물	1,317	1,512	1,406	1,369	1,413	1,406	1,244	1,387	-11.5	1.3
전 체	15,304	10,655	14,476	10,008	15,476	10,466	14,076	9,648	-2.8	-3.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8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함.
 - 농산물과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21.2% 감소하였으나 축산물은 5.8% 증가함.
 - 농산물 중 곡류는 보리, 옥수수, 서류 등의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과실류는 녹두, 팥, 대두 등 두류와 감자, 옥수수, 보리, 밀 등의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과실류는 복숭아, 살구, 자두, 버찌, 키위, 망고 등 수입액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함. 채소류는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함.
- 2019년 9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4억 6,792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8%, 전월 대비 11.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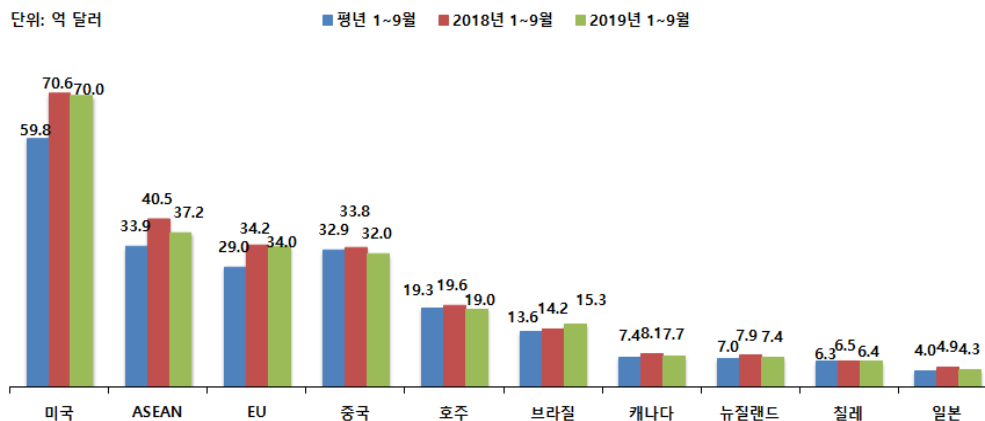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1/4~3/4분기까지의 전체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1.6% 감소한 259억 8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누적수입액은 3.3% 감소한 220억 7천만 달러임.
- 미국, EU, ASEAN, 중국 등 주요 수입국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하였으며, 그중 ASEAN산 누적 수입액이 가장 크게 감소함.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19년 3분기」.

4.3. 순수입 동향

- 2019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17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758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41만 톤임.
- 2019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한 65억 3천만 달러임.
 - 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임산물은 각각 5.7%, 2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8년 3/4분기		2019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017	7,002	11,782	6,533	-2.0	-6.7
농 산 물	7,245	3,344	7,587	3,153	4.7	-5.7
축 산 물	404	1,850	410	1,951	1.6	5.4
임 산 물	4,368	1,808	3,785	1,429	-13.4	-21.0
수 산 물	1,267	805	1,093	808	-13.7	0.3
전 체	13,284	7,807	12,875	7,340	-3.1	-6.0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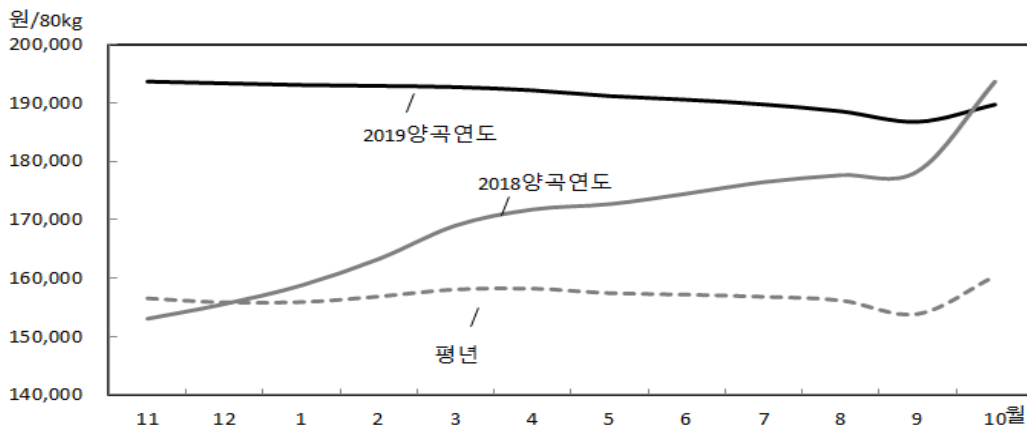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4~2018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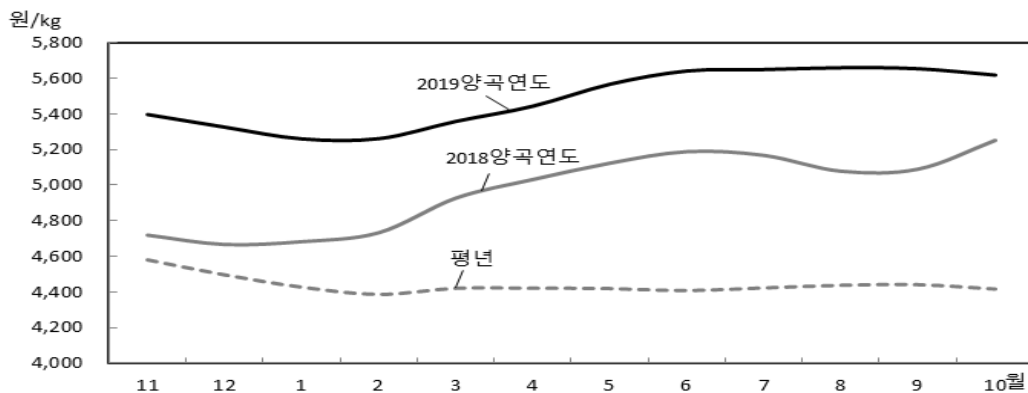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수확기 이후 약보합세가 지속된 쌀 가격은 신곡 출하가 다가오고, 이에 재고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이 저가 출하를 늘림에 따라 7월부터 하락폭 확대
 - 3/4분기 기간 중 산지유통업체의 전월 대비 평균 재고 소진량은 직전 분기 (2/4 분기) 대비 16.1% 증가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성진 부연구위원(seongjin20@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gin@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강두현(kdh05@krei.re.kr), 안정욱(ahn0351@krei.re.kr), 김수연(sykim072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9월 산지 평균 쌀 가격은 18만 6,793원/80kg으로 수확기 대비 3.5%, 전월 대비 0.9% 하락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작황 저조로 5만 톤 수준의 초과 수요가 예상됨에도 10월 쌀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2.0% 낮았음. 이는 2018년산 쌀값의 역계절진폭(-2.7%) 발생과 구곡 재고에 대한 부담으로 2019년산 신곡 벼 가격이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
 - 다만, 정부의 태풍 피해곡 매입 등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4분기 산지 쌀 가격은 11월부터 강보합세 예상

1.2. 콩

국산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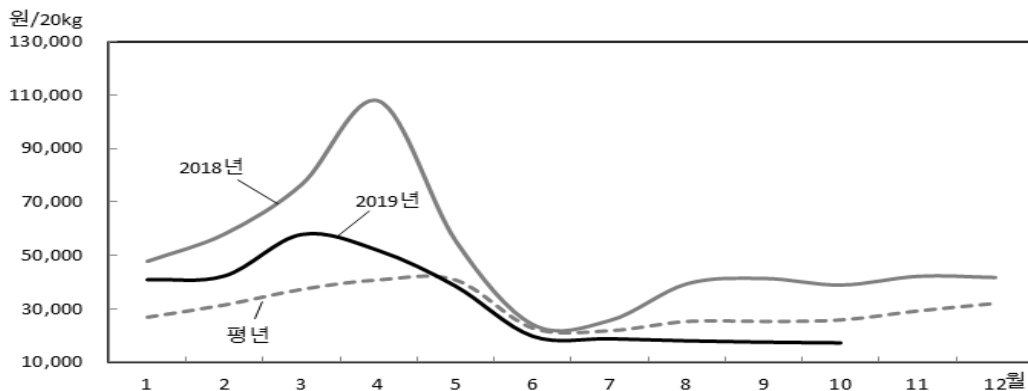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4~2018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2019년 3/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5,657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전 분기 대비 1.9% 상승

- 3/4분기 콩 가격은 2018년 수확기 가격이 작황 우려 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고, 시장공급량 조절 역할을 하는 정부 재고 부족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강세 지속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가격은 2019년산 생산량 증가 예상에 따른 수요 관망세와 구곡 재고 부담으로 인한 출하 증가로 전월 대비 0.6% 하락
 - 4/4분기 국산 콩 가격(백태 상품)은 태풍 등 기상 영향으로 작황이 작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재배면적이 증가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 분기 대비 약보합세 전망
 - 2019년산 콩 재배면적은 작년 수확기 가격 강세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58,537ha이며, 단수는 태풍 및 비대기 일조량 부족 영향으로 고온 및 가뭄으로 작황이 저조했던 전년과 비슷한 179kg/10a 수준 전망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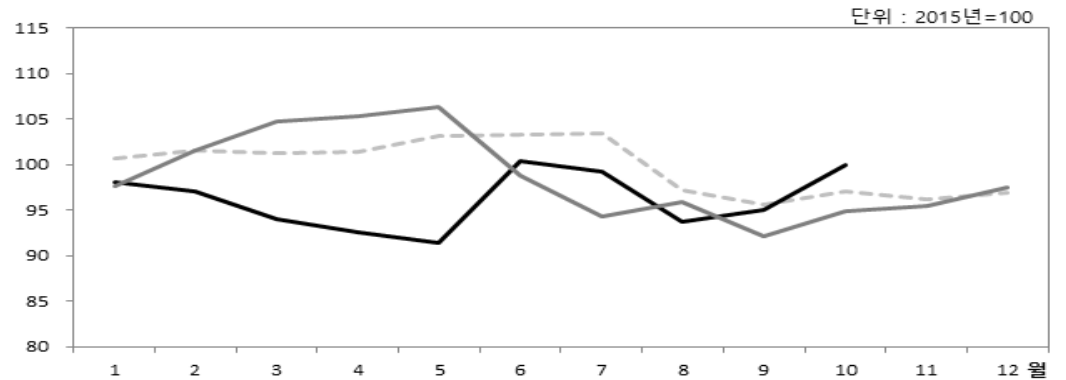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4~2018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수미(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17,938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5%, 평년 동기 대비 25.6% 하락
 - 3/4분기 감자(수미 상품) 가격은 가격 약세에 따른 저장 수요 및 기상 영향에 따른 출하량 증감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노지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약세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4/4분기 감자 도매가격(수미 상품)은 노지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생산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
 - 생산량 증가에도 출하가 조절되었던 고랭지감자와 저장 봄감자 출하로 전년 대비 가격 약세 지속이 예상되나, 가을감자 생산량 감소로 전 분기대비로는 상승 전망
 - 가을감자 생산량은 가을감자 주산지인 제주지역이 태풍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작황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륙지역 또한 일조량 부족과 생육기 가뭄 등으로 작황이 저조할 것으로 보여 감소 전망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가격은 2014~2018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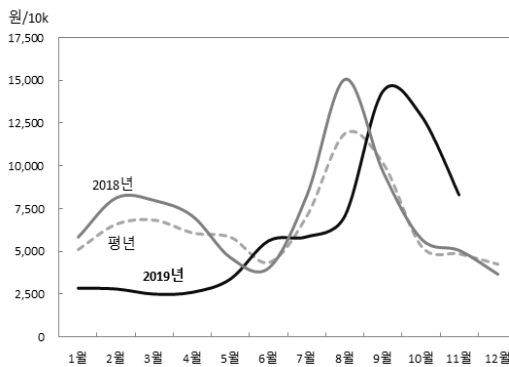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2019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1.3% 상승한 96.0임.
 - 수확기를 앞둔 미국 중서부지역의 콩과 옥수수 생산량 하락 우려와 주요 곡물 주산지에서의 이상기상 지속 등이 3/4분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미국 중서부지역의 기상악화로 수확기에 접어든 콩, 옥수수 수확 차질 및 그에 따른 생산량 감소 우려와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합의 영향 등으로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4.7% 상승한 100.5로 전망됨.
 - 11월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²⁾는 -1.57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단계가 전망됨. 그러나 전월보다는 소폭 상승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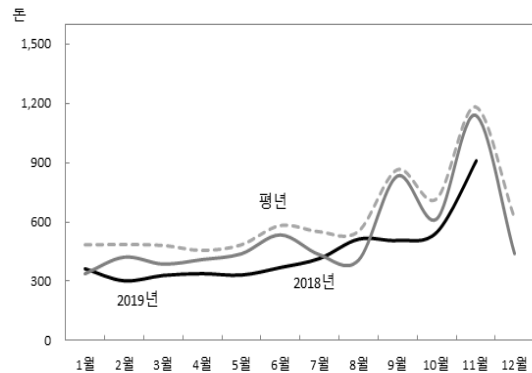
2. 엽근채소³⁾

2.1.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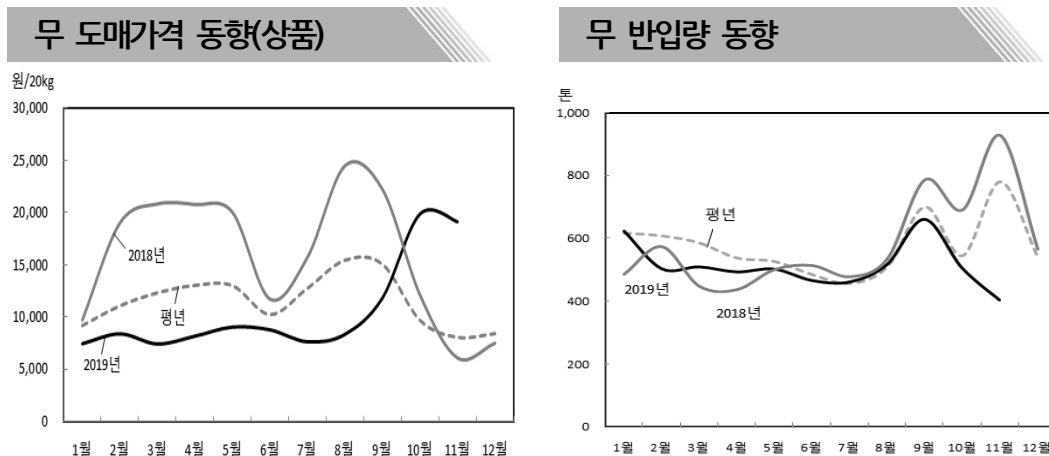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4~2018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동기보다 낮은 9,110원/10kg
 - 3/4분기 가격은 봄배추 저장물량 및 고랭지배추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았으나, 9월에는 작황 부진으로 상승세
 - * 9월 상순(추석 성수기) 전후 고랭지배추 주산지 잦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작황이 크게 부진해졌음.
 - * 2019년 가격: (7월) 5,840원/20kg, (8월) 7,050원, (9월) 14,440원
 - * 3/4분기 가격: (2019년) 9,110원/20kg, (2018년) 11,010원, (평년) 9,720원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1%씩 적은 110만 4천 톤 내외 전망

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한은수(hanes012@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박수은(pse548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8%, 17% 감소한 10,968ha
- * 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5%씩 감소한 10,065kg/10a
- 4/4분기 배추 출하량은 가을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35% 내외 감소 전망
- 4/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4,830원/20kg)과 평년(4,810원)보다 높을 전망
- 2019년산 겨울배추 생산전망
 - 2019년산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하락으로 작년보다 12%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3% 증가한 4,158ha로 추정되며, 단수는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4%, 5% 감소한 7,989kg/10a으로 예상
 - 따라서 금년산 겨울배추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4%, 2% 감소한 33만 2천 톤으로 전망

2.2.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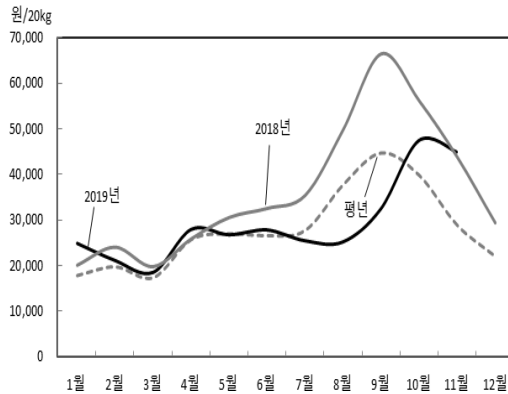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4~2018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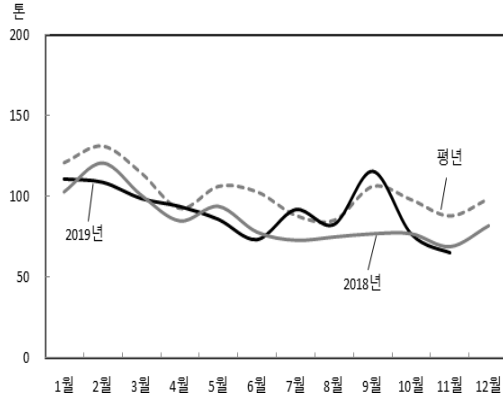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동기보다 낮은 9,250원/20kg
 - 3/4분기 가격은 봄무 저장 출하량이 많은 데다, 고랭지무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
 - * 2019년 가격: (7월) 7,630원/20kg, (8월) 8,340원, (9월) 11,800원
 - * 3/4분기 가격: (2019년) 9,250원/20kg, (2018년) 20,770원, (평년) 14,250원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가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씩 적은 38만 3천 톤 내외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2%, 7% 감소한 5,344ha
 - * 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7%, 12% 감소한 7,165kg/10a
 - 4/4분기 무 출하량은 가을 및 월동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21% 내외 감소 전망
 - 4/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8,600원/20kg)과 평년(8,730원)보다 높을 전망
- 2019년산 월동무 생산전망
 - 2019년산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1%, 14% 감소한 5,094ha로 추정되며, 단수는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6%, 9% 감소한 5,244kg/10a으로 예상
 - * 월동무는 파종기 3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폐작면적이 증가하였고, 제주도 내 휴경 보상 지원금 정책 추진으로 재배면적 감소
 - 따라서 금년 월동무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6%, 22% 감소한 26만 7천 톤으로 전망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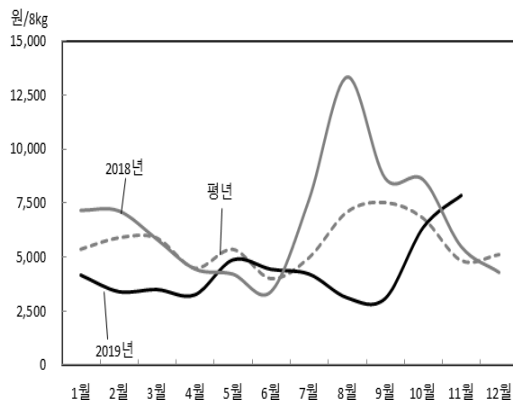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4~2018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동기보다 낮은 27,640원/20kg임.
 - 3/4분기 가격은 저장봄당근과 고랭지당근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
 - * 2019년 가격: (7월) 25,430원/20kg, (8월) 25,160원, (9월) 32,340원
 - * 3/4분기 가격: (2019년) 27,640원/20kg, (2018년) 50,490원, (평년) 36,620원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가을당근 생산량은 작년보다 1%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7% 감소한 6천 4백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15% 증가한 250ha
 - * 단수는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6%, 19% 감소한 2,544kg/10a
 - * 가을당근 작황은 10월 상순 태풍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영남지역에 뿌리 비대가 원할하지 못하였고, 부패와 무름병 등이 발생한 당근이 많아 부진한 것으로 조사
 - 4/4분기 당근 출하량은 고랭지 및 가을당근 출하량 증가하나, 겨울당근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10%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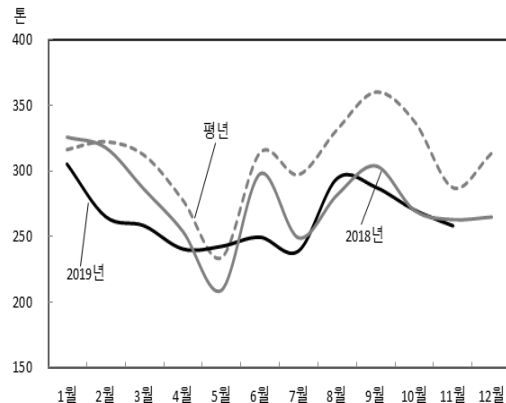
- 4/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작년(43,000원/20kg)과 평년(30,160원)보다 높을 전망
- 2019년산 겨울당근 생산전망
 - 2019년산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7%, 14% 감소한 1,234ha이며, 단수는 파종 및 생육기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7%, 18% 적은 2,950kg/10a으로 예상
 - 따라서 겨울당근 전체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3%, 30% 감소한 3만 6천 톤으로 전망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4~2018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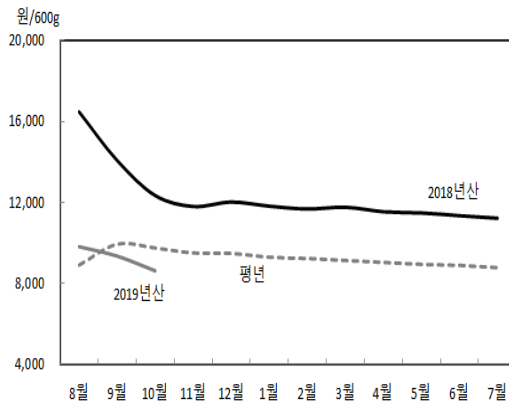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동기보다 낮은 3,470원/8kg임.
 - 3/4분기 가격은 고랭지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
 - * 2019년 가격: (7월) 4,220/8kg, (8월) 3,110원, (9월) 3,080원
 - * 3/4분기 가격: (2019년) 3,470원/8kg, (2018년) 9,890원, (평년) 6,530원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가을양배추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12% 감소한 2만 7천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2% 증가한 646ha
 - * 단수는 태풍 영향으로 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뿌리혹병, 불병 등이 많이 발생하여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5%, 13% 감소한 4,202kg/10a
 - 4/4분기 양배추 출하량은 가을 및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10%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4/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작년(6,120원/8kg)과 평년(5,580원)보다 높을 전망
- 2019년산 겨울양배추 생산전망
 - 2019년산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4% 증가한 3,141ha이며, 단수는 정식 및 생육기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1%, 10% 적은 4,961kg/10a으로 추정
 - 따라서 겨울양배추 전체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5%, 7% 감소한 15만 6천 톤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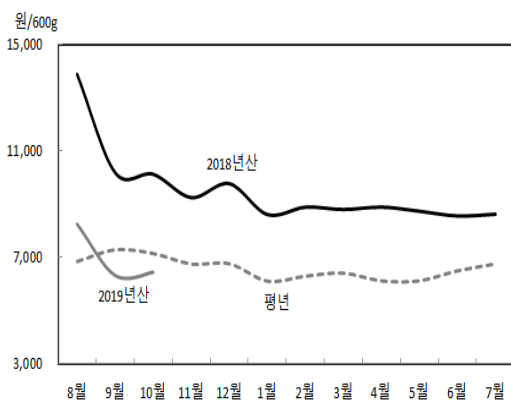
3. 양념채소⁴⁾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4년 8월~2019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주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9년 3/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3/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9% 낮은 1만 115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2% 낮은 7,730원

* 도매가격: (금년) 10,115원/600g, (전년) 14,153원, (평년) 8,707원

* 산지가격: (금년) 7,730원/600g, (전년) 11,392원, (평년) 6,608원

-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3/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1,378톤)보다 27% 많은 1,748톤
- 2019년산 건고추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하락

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원태 전문연구원(wtkim@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강자석(jskang@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양진석(mozz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19년산 건고추 생산 동향
 - 2019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2018년산보다 10% 증가한 3만 1,644ha(8. 30. 통계청)

2019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8.1	21.0	1.5	5.6	18.6	9.8	6.8	10.8	9.8

자료: 통계청.

- 2019년산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244~256kg으로 평년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전망
-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2018년산보다 8~13% 증가하나 평년보다 다소 적은 7만 7천 ~ 8만 1천 톤 내외로 전망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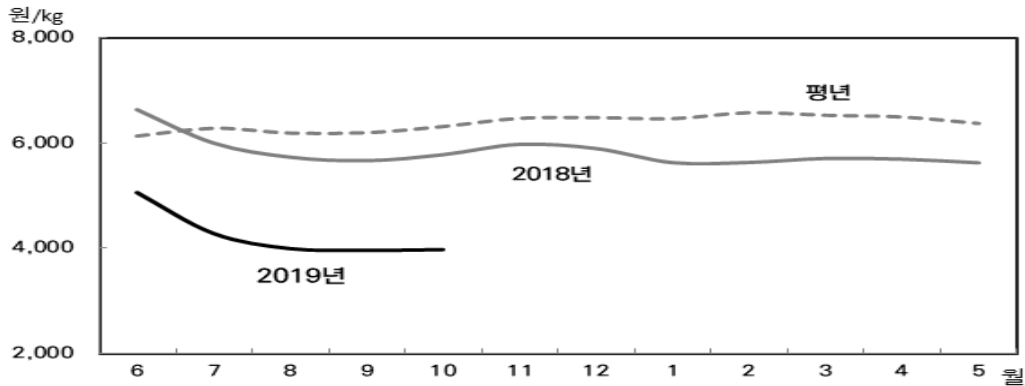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9	31,644	244~256	77,211~81,009
2018	28,824	248	71,509
평년	31,840	253	80,677
증감률	2.8~5.2	9.8	-1.6~3.2
	-6.9~-4.8	-0.6	-3.6~1.2
			8.0~13.3
			-4.3~0.4

주: 2019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11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7% 낮은 8,640원,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33% 낮은 6,240원
 - 2019년산 생산량 증가로 건고추 4/4분기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12,043원/600g)보다 낮을 전망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4년 6월~2019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간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19년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30%, 35% 하락

* 간마늘 도매가격: (금년) 4,077원/kg, (전년) 5,803원/kg, (평년) 6,232원/kg

* 월별 도매가격: (7월) 4,280원/kg, (8월) 3,992원/kg, (9월) 3,958원/kg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산 마늘 생산량과 입고량은 전년보다 각각 17%, 11% 증가 추정
- 2019년산 마늘 입고량 증가로 10월 간마늘 가격은 전년(5,780원)보다 31% 하락
- 11~12월 마늘 가격은 저장·가공비용 상승 및 김장철 수요에도 불구하고, 출고량이 많아 10월보다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 10월 말 기준, 감모량을 감안한 2019년산 마늘 재고량은 전년 동기보다 3% 많은 7만 9천 톤 내외 추정

2019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19	105,289	22,667	78,641
2018	94,574	16,999	76,396
평년	107,000	20,000	83,926
전년 대비	11.3	33.3	2.9
평년 대비	-1.6	13.3	-6.3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9년산 4.8%, 2018년산 4.1%, 평년 3.5%)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 및 TRQ는 미포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치

- 2020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평년 대비 증가
 -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감소하나, 평년보다 1% 증가 전망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10. 20.), 2020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2019년산 가격하락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 * 품종별로 한지형 마늘이 전년과 평년 대비 모두 감소, 난지형은 평년보다 증가
 - * 남도중 마늘 주산지인 제주는 9월 이후 연이은 태풍으로 파종 지연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전남은 양파에서 마늘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많으나 여전히 전년보다는 감소 전망
 - 농업관측본부 조사결과를 반영한 2020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4,930ha 내외 추정

2020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가·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11.4	-11.4	-10.4	0.6	-	-3.5
난지	-9.3	-16.5	-11.9	-10.8	-7.7	-11.4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2020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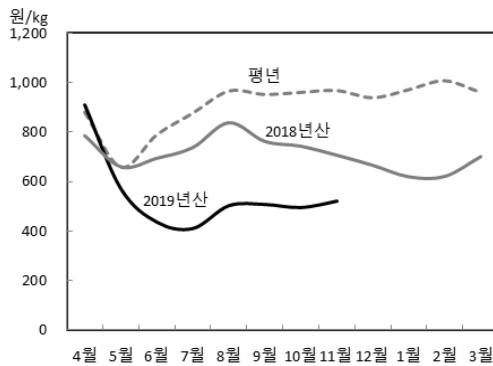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재배면적
2020	24,934
2019	27,689
평년	24,603
전년 대비	-9.9
평년 대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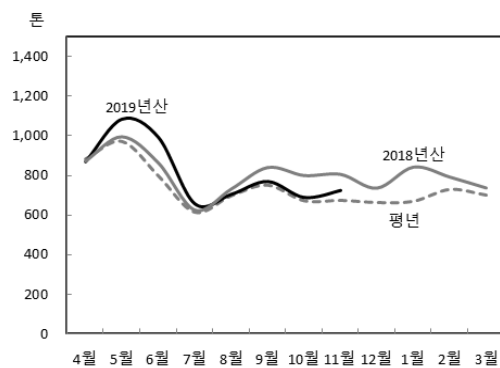
주: 2020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4년 4월~2019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양파 생산량 증가로 평년 대비 49% 낮은 상품 kg당 470원
- 7월 가격은 생산량이 증가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평년보다 53% 하락한 410원, 8월과 9월 평균 도매가격은 7월보다 소폭 상승하였지만, 평년 대비 각각 48%, 47% 하락한 500원, 510원

* 3/4분기 월별 일평균 출하량: (7월) 654톤, (8월) 703톤, (9월) 768톤

- 2019년 4/4분기 가격 동향 및 전망
 - 10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500원으로 전년(740원)과 평년(960원) 대비 각각 33%, 49% 하락
 - 11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저장양파 출하량 증가로 전년(710원)보다 낮으나 전월(500원)보다 상승한 500~550원으로 전망
 - 2019년산 양파 입고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6%, 15% 증가한 71만 2천 톤 내외로 추정
 - 10월 말 기준 출고량은 부패율이 높아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1%, 8% 증가한 15만 7천 톤 내외로 추정
 - 부패율을 감안한 10월 말 기준 재고량은 49만 1천 톤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 14% 많은 것으로 추정

2019년산 양파 추정 재고량(10월말 기준)

단위: 천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19	712	157	491
2018	672	142	477
평년	620	146	430
전년 대비	5.9	10.5	2.9
평년 대비	14.8	7.7	14.2

주: 2019년산 입고량은 정부 비축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며, 재고량은(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9년산 11.6%, 2018년산 10.1%, 평년 9.4%)을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2020년산 양파 재배면적 전망
 - 2020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11~1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평년 대비 6% 내외, 중만생종은 15%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20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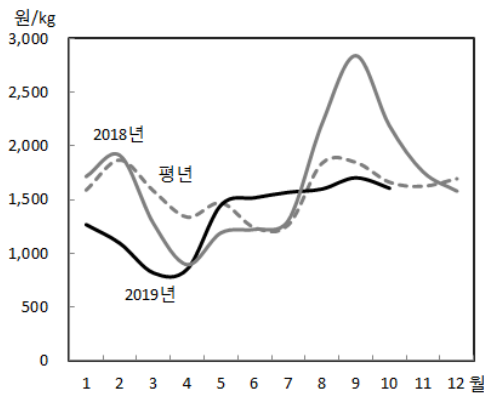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19	2,586~2,804	14,248~15,452	16,833~18,256
2018	2,855	18,923	21,777
평년	2,880	17,524	20,404
전년 대비	-9.4~-1.8	-24.7~-18.3	-22.7~-16.2
평년 대비	-10.2~-2.6	-18.7~-11.8	-17.5~-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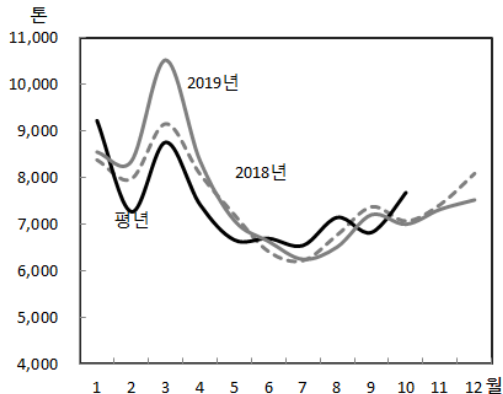
주: 2020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4년 1월~201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대파 3/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630원(중품 1,35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 2% 하락
 - * (금년) 1,625원/kg, (전년) 2,120원, (평년) 1,652원
 - * (7월) 1,570원/kg, (8월) 1,600원, (9월) 1,705원

- 7~9월 평균 반입량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경기와 강원 지역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 1% 증가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경기와 강원지역 대파 출하량 증가로 전년 (2,190원)보다 낮은 1,610원
 - 4/4분기 출하량은 생육기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
 - 4/4분기 가격은 겨울대파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11월~내년 1월 대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상승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및 금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조사
 - * 신안과 진도에서 전년보다 각각 2%, 7% 감소하였으나, 해남 등 비주산지의 면적이 증가하여 여전히 평년 대비 7% 많은 것으로 파악

11~내년 1월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0.3	-	3.0	1.4	-1.8	0.6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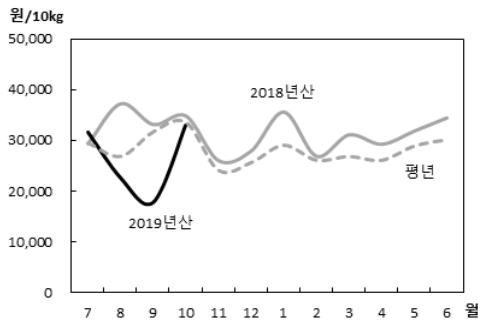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전년	-1.7	-7.1	0.5	16.8	-2.2
평년	17.9	-6.0	2.0	19.7	6.9

자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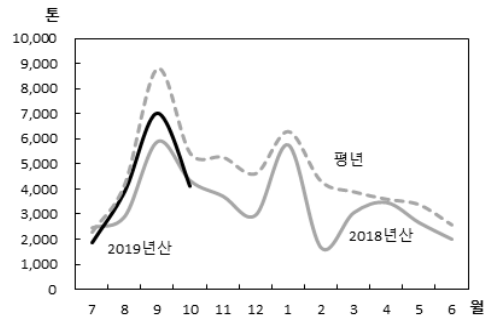
4. 과일5)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4~18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7~8월 쓰가루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생산량 증가로 반입량이 늘어 전년보다 19%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7,100원이었음.
- 9월 홍로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47% 낮은 1만 7,700원이었음. 추석 성수기인 상순 가격에 낮게 형성되었고, 추석 이후 홍로 잔여물량도 출하가 지속되면서 중하순에 가격 하락폭이 컸음.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양광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9% 하락한 상품 10kg 상자에 3만 1,600원이었음.
- 11월·12월 이후 사과 출하량도 후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각각 3%, 7% 많을 것으로 전망됨.

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oon0712@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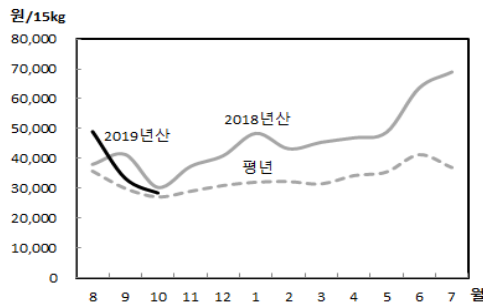
- 2019년산 사과 저장량(12월~익년 6월)은 전년보다 7% 증가한 26만 7천 톤 내외로 전망됨. 후지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사과 시세도 낮아 저장 의향이 높은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19년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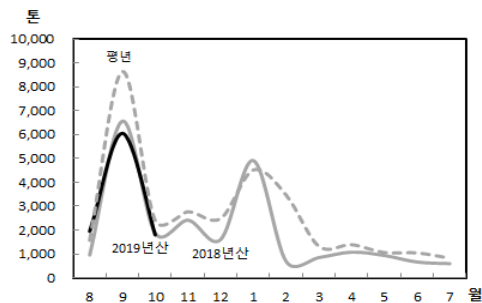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8% 증가한 50만 8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착과량이 많고 잦은 비로 과실 비대가 원활하여 단수가 전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4~18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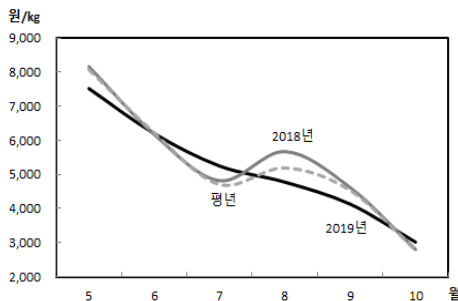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8월 원황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산 저장배 가격 강세로 전년보다 29%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9천원이었음.
-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8.30.~9.12.)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4% 낮은 상품 7.5kg 상자에 2만 3,500원이었음. 이른 추석 및 산지 잦은 강우와 태풍 영향으로 단기간에 출하가 집중되면서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이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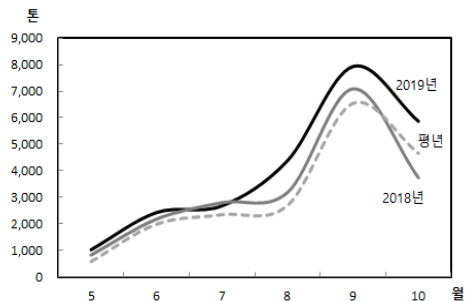
- 9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추석 성수기 가격 약세 영향으로 전년보다 19% 하락한 상품 15kg 상자에 3만 3천원 이었음.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추석 이후 시장 내 재고 누적 및 소비 부진 등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보다 6%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 8천원이었음.
 - 올해 배 저장량(11월~익년 7월)은 생산량 증가와 대과 비율 높아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11월과 12월 이후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각각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 많은 21만 톤 수준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7% 감소(통계청 확정치)하였으나, 착과수 증가 및 과 비대 양호로 단수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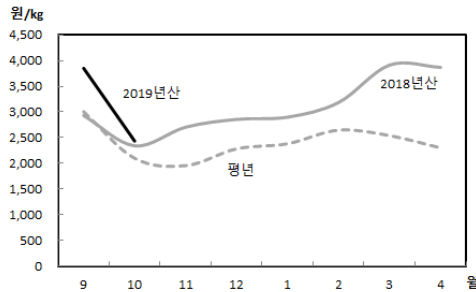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4~18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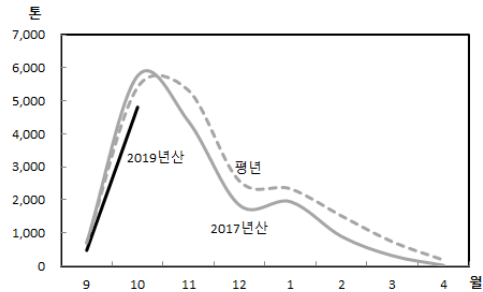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3/4분기 하우스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8% 낮은 kg당 4,520원이었음.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착색이 지연되고 당도가 낮은 등 전반적인 품질이 좋지 않아 전년(1,701원)보다 16% 낮은 kg당 1,430원이었음.
 - 11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이은 태풍과 잦은 비로 10월에 출하될 극조생온주 출하가 11월로 미뤄졌고,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조생온주 착색이 양호하여 출하를 앞당기려는 농가 의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12월 이후 출하량도 조생온주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4%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50만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 감소(추정)하였으나, 주산지인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착과가 많고, 전반적인 과 비대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어 단수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전년에 이어 봄철 유과기에 강한 돌풍과 9~10월 연이은 태풍 영향으로 결점과·상처과 발생이 많으며, 잦은 비로 병 발생이 많아 비상품과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됨.

4.4.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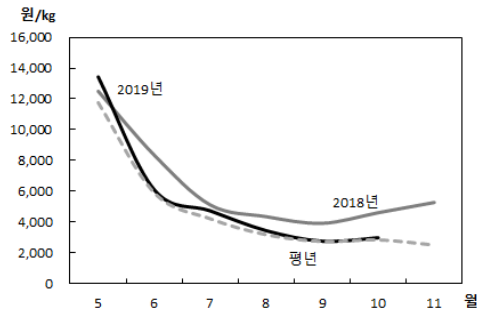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9월 서촌, 10~4월 부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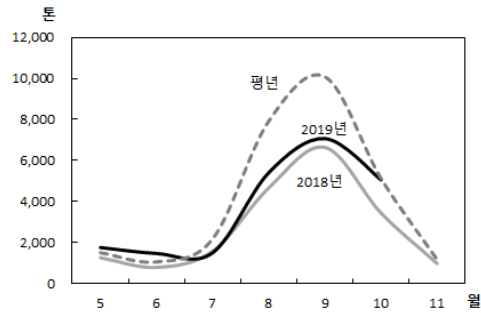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9월 서촌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8,500원으로 전년보다 31% 높았음. 냉해 및 동해로 인한 단수 감소로 반입량이 감소하였음.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4,500원으로 전년보다 5% 상승함. 태풍으로 인한 흠집과 발생으로 비상품과율이 증가했으며, 잦은 비로 착색이 지연되면서 반입량이 감소함.
 - 11월 단감 출하량은 생육 지연으로 10월에 출하되지 못한 단감 출하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이후에는 농가의 저장의향 감소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생산량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한 10만 6천 톤으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 감소하였으나, 생육기 충분한 강우로 과 비대가 원활하여 단수가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5.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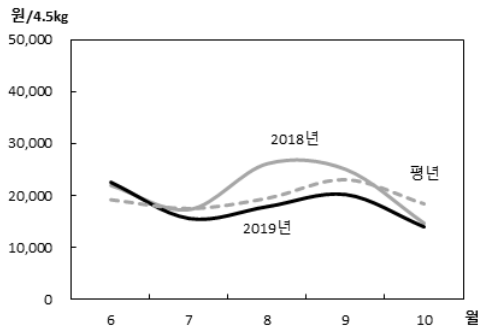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 6~10월 캠벨얼리, 11월 MBA 기준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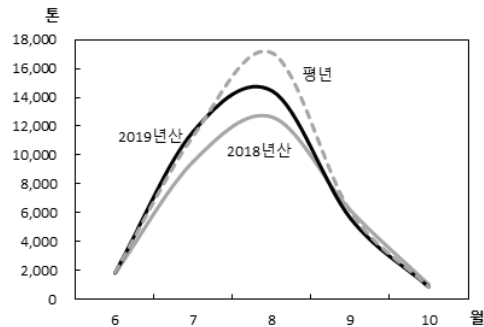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7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9,500원으로 전년보다 8% 낮았으며, 8~9월은 캠벨얼리 상품 5kg 상자에 1만 5,500원으로 전년보다 25% 낮았음. 타 품종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와 소비대체 과일류의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하락함.
- 2019년 생산량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16만 5천 톤으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와 거봉, MBA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6%, 3%, 5% 적을 것으로 추정됨. 샤인머스켓은 성목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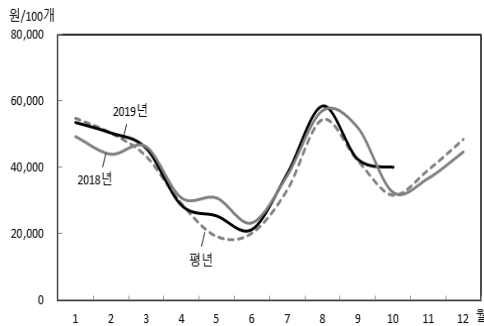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4~18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10월 엘버트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7월 백도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증가(22%)로 전년보다 10% 낮은 상품 4.5kg 상자에 1만 5,500원이었음. 8월 천중도백도 가격도 반입량 증가(14%)로 전년보다 32% 하락한 1만 7,800원이었음.
 - 9월 엘버트 도매가격은 2만원으로 전년보다 20% 하락하였음. 반입량은 전년보다 9% 감소하였지만, 두 차례 태풍으로 비가 잦아 당도 등 상품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 2019년 생산량 추정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보다 10% 많은 22만 7천 톤 수준으로 추정됨.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 감소하였지만, 전년보다 착과량이 많아 단수가 1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품종별로는 천도계, 유모계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11%, 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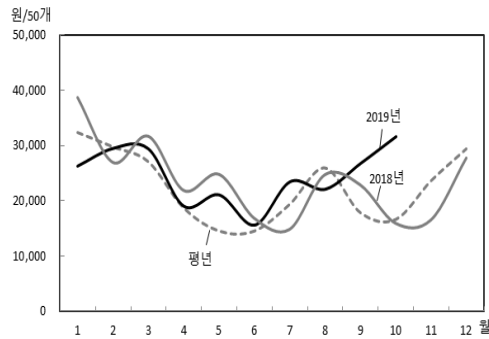
5. 과채6)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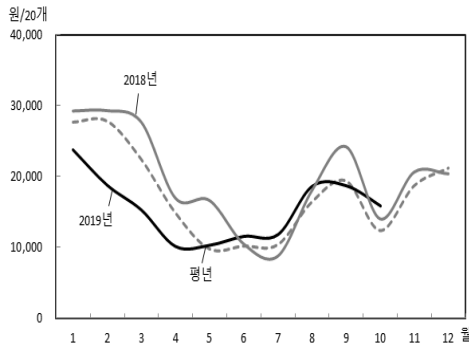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7월 3만 8,200원, 8월 5만 8,400원, 9월 4만 2,3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4만 6,3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 하락하였음.
- 3/4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주출하지인 충청지역의 작황이 좋아 전년 동기보다 4% 증가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7월 2만 3,000원, 8월 2만 2,000원, 9월은 2만 6,8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2만 3,9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상승하였음.
- 3/4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에서 바이러스 및 병해충 발생이 많아 전년 동기보다 14% 감소하였음.

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oon0712@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노수경(nosu303@krei.re.kr), 윤성주(yjs0811@krei.re.kr), 이연옥(superiorl@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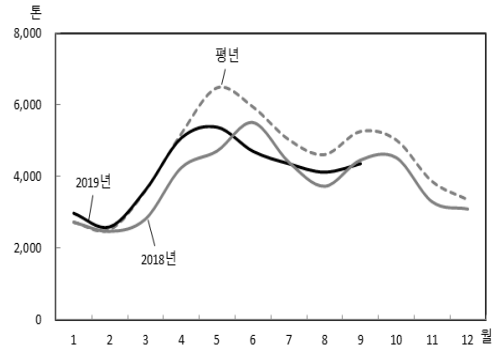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3% 높은 상품 100개에 4만원이었음. 이는 10월 중순 이후 기온하락과 일조량 감소로 바이러스와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반입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임.
 - 11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3% 적겠으며, 12월 출하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10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99% 높은 상품 50개에 3만 1,600원이었음. 이는 기온하락과 일조량 감소, 병해충 발생이 많아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11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의 작황이 부진해 전년보다 5% 적겠으며, 12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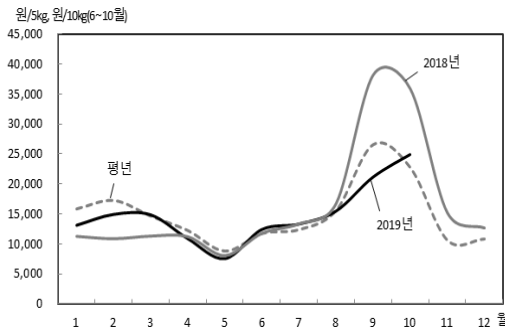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7월 1만 1,900원, 8월 1만 8,600원, 9월에는 1만 9,0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1만 6,500원으로 전년보다 0.4% 하락하였음.
- 3/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충북 청주의 작황이 좋아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하였음.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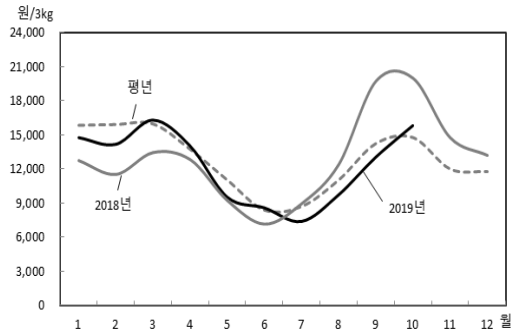
- 10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3% 높은 상품 20개에 1만 5,900원이었음. 10월 상중순 기온하락과 일조량 감소로 작황이 부진해 반입량이 급감하여 전체 평균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11월 애호박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충북 청주와 경남 진주의 작황이 양호해 전년보다 2% 많겠으며, 12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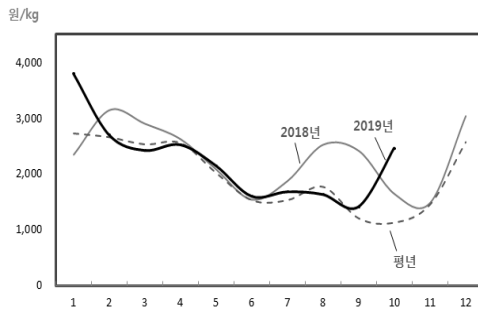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10kg 상자에 7월 1만 3,300원, 8월 1만 5,4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 8% 하락하였음.
 - 7~8월 일반토마토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8% 감소하였음. 반입량이 감소하였음에도 가격이 낮았던 것은 여름철 소비대체 품목(복숭아, 자두, 대추형 방울토마토 등)의 가격 약세로 일반토마토 소비가 둔화되었기 때문임.
 - 9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일반토마토의 품위 저하로 전년보다 45%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1,100원이었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3kg 상자에 7월 7,400원, 8월 9,700원, 9월 1만 3,0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가격은 1만 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낮았음.
 - 이는 여름철 작기 재배를 위해 정식시기를 앞당긴 농가가 늘었고, 폭염 피해가 있었던 전년보다 단수도 늘어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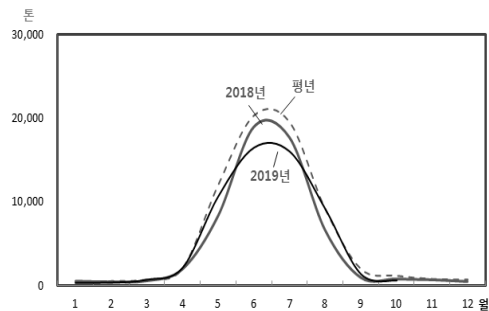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1%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4,900원이었음.
 - 11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신규 및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와 전년 기상 여건 악화로 출하를 일찍 종료했던 농가가 올해는 출하를 지속하여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반면, 12월 출하면적은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10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21% 낮은 상품 3kg 상자에 1만 5,800원이었음.
 - 11~12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경남지역에서의 계약재배면적 증가와 충청·호남지역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로의 작목 전환, 유류비 부담 및 봄철 가격하락 영향으로 정식을 앞당긴 농가가 늘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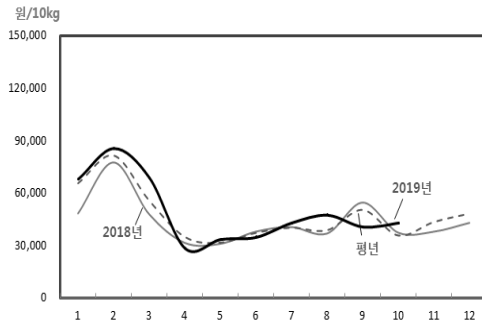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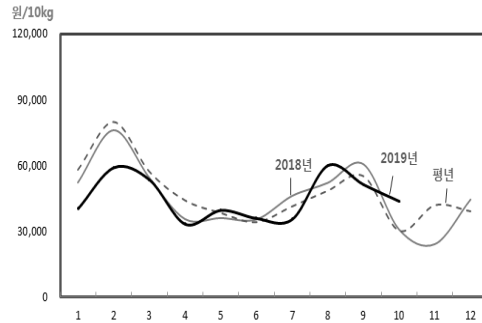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7월 1,690원, 8월 1,640원, 9월 1,420원이었음. 3/4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0% 낮은 1,580원이었음.
 - 수박 3/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5% 증가하였음. 7월 반입량은 호남과 충청지역에서 수정 및 과 비대 불량으로 감소하였고, 8~9월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좋아 정식면적이 늘어 증가하였음.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50% 높은 상품 1kg에 2,470원이었음. 호남지역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여 반입량이 감소하였음.
 - 11월 수박 출하량은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12월 출하면적은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정식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5.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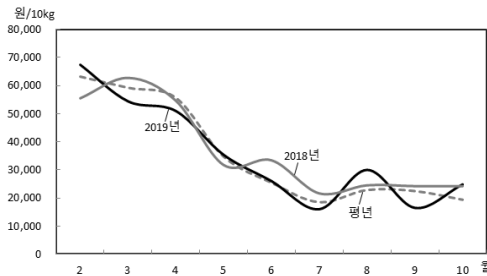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4만 2,900원, 8월 4만 7,300원, 9월 4만 6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1% 낮은 4만 3,600원이었음.
 - 청양계풋고추 3/4분기 반입량은 강원지역의 정식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5% 많았음.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3만 5,500원, 8월 5만 9,900원, 9월 5만 1,300원이었음. 3/4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7% 낮은 4만 8,900원이었음.
 - 일반풋고추 3/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1% 적었음. 강원지역에서 일반풋고추에서 오이맛고추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여 반입량이 감소하였음.
- 2019년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4%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2,900원이었고,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42%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3,700원이었음. 이는 강원지역에서 작황 부진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였고, 호남지역에서 일조시간 부족으로 작황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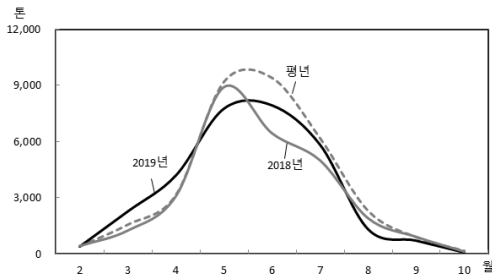
- 11~12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호남지역에서 정식면적이 증가하였고, 경남지역에서 전년보다 조기 출하가 되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일반꽃고추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호남과 경남지역에서 정식면적이 줄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6.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3/4분기 동향

-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7월 1만 5,960원, 8월 2만 8,900원, 9월 1만 6,420원이었음. 3/4분기 평균 가격은 2만 79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 낮았음.
- 참외 3/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였음. 전년에는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단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다만, 전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는 농가가 많아 출하량 증가폭이 크지 않았음.

5.7. 딸기

- 2019년 딸기 정식면적
 - 올해 딸기 정식면적은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전망됨.
 - 품종별로는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큰 설향은 전년보다 1% 증가한 반면, 장희, 매향은 설향으로 품종이 전환되어 전년보다 각각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4/4분기 전망
 - 딸기 11월 출하면적은 기상악화로 정식과 생육이 지연되어 출하면적 감소폭이 컸던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2월 출하면적도 기존 및 신규농가의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축산⁷⁾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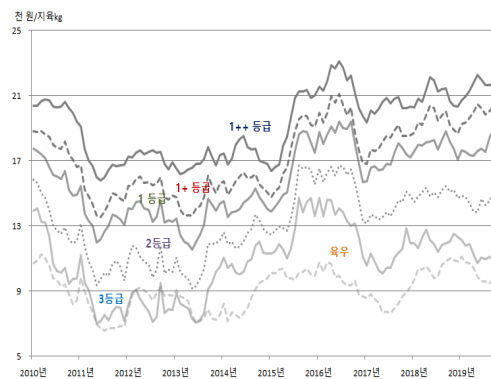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18년			19년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p
사육 농장수	97	97	97	96	95	94
총 마릿수	3,117	3,168	3,113	3,059	3,242	3,234
가임 암소	1,370	1,439	1,434	1,402	1,426	1,481

주: 2019년 9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육우) 2019년 3/4분기 동향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6월(324만 3천 마리)보다 0.3% 감소한 323만 4천 마리였음(전년 동월 316만 8천 마리보다 2.1% 증가).
 -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 308만 4천 마리, 육우 14만 9천 마리
 - * 가임암소 마릿수 147만 9천 마리(전년 동월 143만 9천 마리 보다 2.7% 증가)
- 3/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 분기 17,531원/지육kg 보다 4.3% 상승한 18,291원이었음(전년 동기 18,255원과 비슷한 수준).

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서강철(softvalue@krei.re.kr), 김명수(kms8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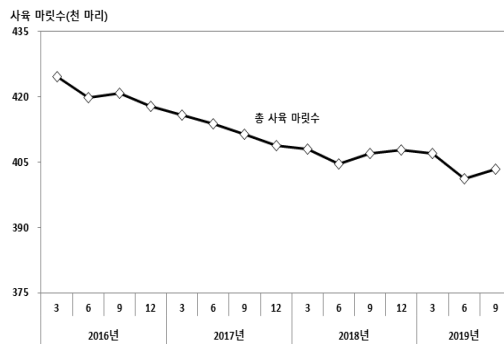
- (한우)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296만 2천 마리)보다 3.0% 증가한 305만 2천 마리로 전망됨.
 - 4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7,000~17,600원으로 전망됨.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18년(A)	2019년	2019년(B)	B/A
사육 마릿수	12월 296만 2천 마리	9월 308만 4천 마리	12월 305만 2천 마리	3.0%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2018년 4분기 17,654원	2019년 3분기 18,291원	4분기 17,000~17,6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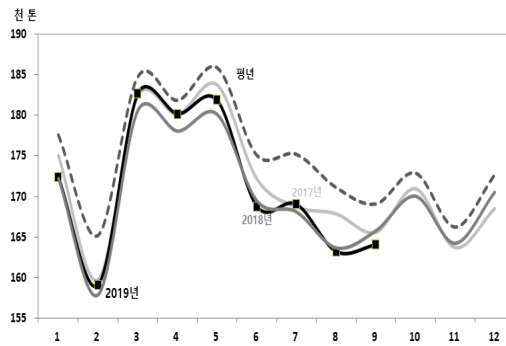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자료: 낙농진흥회

- 2019년 3/4분기 동향
 - 9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0.9% 감소한 40만 3천 마리였음.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3% 감소한 49만 6천 톤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4/4분기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40만 5천~40만 7천 마리로 전망됨.
 - 4/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1~0.5% 증가한 50만 5천~50만 8천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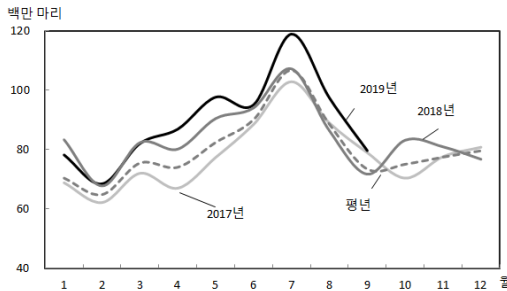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인 2019년 9월 1일 기준, 돼지 사육 마릿수는 자돈 생산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0.6% 증가한 1,171만 마리임(통계청).
 - 3/4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가 늘어 전년 동기간(382만 마리)보다 증가한 411만 마리였음.
 - 3/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많아 전년 동기간(4,953원/kg)보다 하락한 4,357원이었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4/4분기 도축 마릿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수매·도태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480만 마리로 전망됨.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돼지고기 안전성에 대한 의심으로 돼지고기 소비 전년보다 감소(농업관측본부 소비자 조사결과, 526명 응답, 10월 17일 조사)
-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제 가격 상승과 국내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9만 7천 톤으로 전망됨.
- 4/4분기 도매가격은 돼지고기 생산량은 감소하나 소비 감소로 전년 대비 약 세로 전망됨.
- 10월 3,143원, 11월 3,400~3,600원, 12월 3,400~3,6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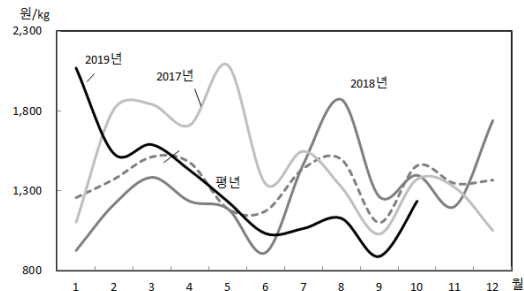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2019년 3/4분기 동향

- 3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보다 5.9% 증가한 481만 마리로 추정됨.
- 3분기 도계 마릿수는 종계 사육 증가로 병아리 생산이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11.6% 증가한 2억 9천 6백만 마리였음.

- 3분기 평균 육계 산지 가격은 병아리 생산 증가로 도계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2.3% 하락한 1,027원/kg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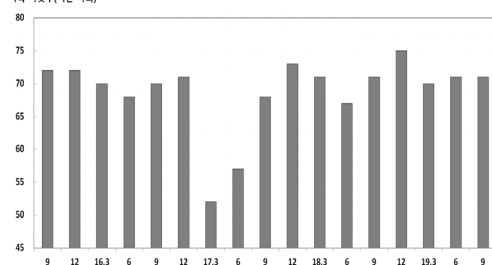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4분기 병아리 생산량은 성계 사육 마릿수가 많고 종계 생산성도 전년 및 평년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병아리 생산 증가로 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6.6% 많은 수준인 2억 5천 7백만 마리로 예상됨.
- 10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12.1% 하락한 1,234원/kg이었음. 11~12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계 증가로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12월은 종계 생산성 저하로 가격이 높았던 전년보다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11~12월: 1,000~1,200원/kg).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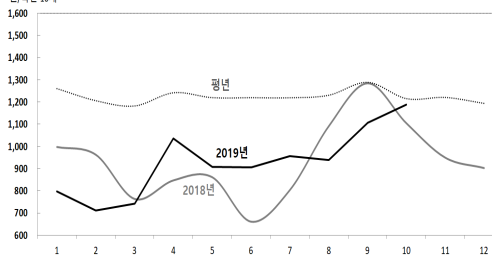
사육 마릿수(백만 마리)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원/특란 10개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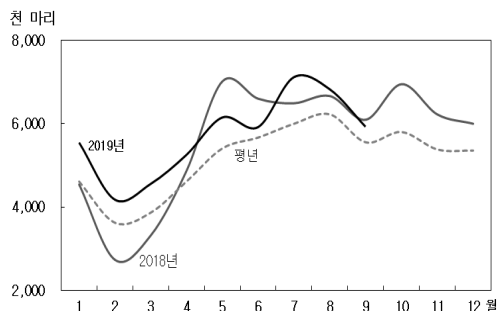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동향

- 9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한 7,090만 마리이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전년보다 감소함.

- 3분기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442만 마리)과 평년(613만 마리)보다 크게 증가한 971만 마리였음.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산란 성계 도태 증가로 전년보다 감소함.
- 7~9월 계란 평균 산지 가격은 폭염 피해로 가격이 상승하였던 전년 동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보다 상승한 1,001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이었음.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1~12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여 11~12월 계란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
(10월: 1,189원/특란 10개, 11월: 1,050~1,200원, 12월: 1,000~1,1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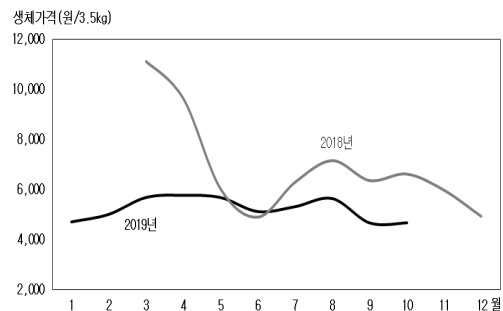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입 마릿수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9년 3/4분기 동향
 - 9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3.9% 감소한 969만 4천 마리임. 육용오리는 전년보다 5.6% 감소한 883만 1천 마리인 반면, 종오리는 18.7% 증가한 86만 3천 마리임.
 - 도압 마릿수는 육용 병아리 입식은 줄었으나 여름철 생육상황 개선에 따른 생산성 호전으로 3/4분기 전년보다 3.3% 증가한 1,988만 5천 마리임. 3/4분기 오리 산지 가격(생체 3.5kg)은 도압 마릿수와 냉동재고량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21.3% 하락한 5,195원임.
- 4/4분기 동향 및 전망
 - 10~12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육용 병아리 입식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리고기 냉동재고량이 여전히 많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1~12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5,000~5,500원/생체 3.5kg(축산물품질평가원 발표 기준)으로 전망됨.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⁸⁾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간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6	71.5
	101~300㎡ 이하	64	19.4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47	74.8
	4~5명 이하	39	11.8
	6명 이상	44	13.3

8)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문희(kmh0618@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² 이하인 업소가 71.5%로 가장 많고, 101~300m² 이하 19.4%, 300m² 초과 9.1% 순임.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4.8%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19년 3/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70(5점 척도)로 전년 동기(2.75)와 전분기(2.71) 대비 하락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18년 3/4분기	2019년 2/4분기	2019년 3/4분기
2.75	2.71	2.70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3/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2019년 4/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97.0로 나타나 전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19년 3/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1% 증가하였고, 전분기보다 1.2% 증가함.
 - 감자 3/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였고, 전분기보다 1.5% 증가함.

곡류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1.1	1.5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4/4분기 쌀과 감자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8년 4/4분기)에 비해 각각 1.4%,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1.4	1.4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19년 3/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였고, 양념채소류는 0.1% 감소함.
- 엽근채소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2.8~0.7% 감소하거나 0.3% 증가하였고, 양념채소 월평균 구매량도 전년 동기보다 1.4~0.1% 감소하거나 0.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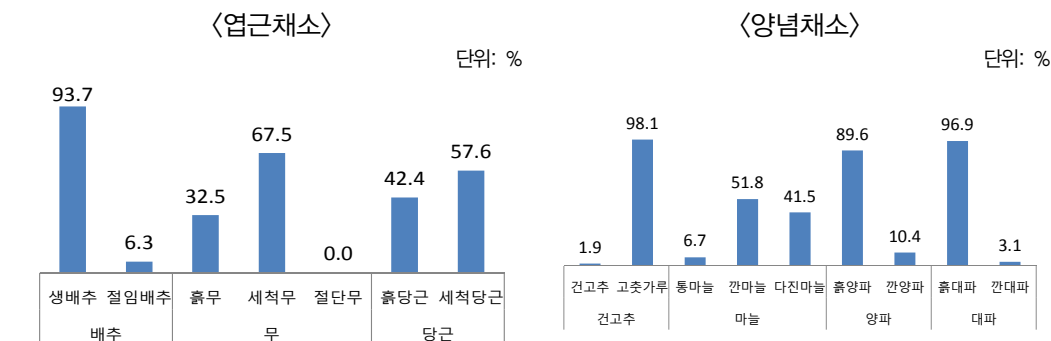
채소류 품목별 3/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0.9	건고추	0.0
배추김치	0.3	고춧가루	0.3
무	-0.7	마늘	-0.5
당근	-2.5	양파	-1.4
양배추	-2.8	대파	0.3
소계	-0.9	소계	-0.1

주: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채소류 품목별 구입형태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감자(98.7%), 대파(96.9%), 배추(93.7%), 양파(89.6%)이며,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과정을 거친 1차 가공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3/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와 깐양파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86.6%), 깐양파(52.6%), 고춧가루(42.9%), 깐마늘(41.7%), 다진마늘(39.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무, 배추, 대파, 양배추는 전체 구매의 95%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8년 3/4분기		2019년 3/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8.6	1.4	99.2	0.8
	배추	98.5	1.5	99.4	0.6
	배추김치	17.1	82.9	13.4	86.6
	당근	64.9	35.1	61.8	38.2
	양배추	97.7	2.3	98.6	1.4
양념채소	건고추	61.1	33.3	65.8	28.9
	고춧가루	58.9	40.6	57.0	42.9
	통마늘	80.8	19.2	94.4	5.6
	깐마늘	58.8	41.2	58.3	41.7
	다진마늘	60.4	39.6	60.8	39.2
	훈양파	87.3	12.7	89.3	10.7
	깐양파	38.8	61.2	47.4	52.6
	대파	99.7	0.3	100.0	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19년 3/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3.2%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55.0%로 조사되었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0.6%로 조사되었음.
- 2019년 4/4분기 엽근과 양념채소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8년 4/4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채소 4/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념채소 구매량은 1.5~1.2%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품목에서의 소폭 증가가 예상됨.

채소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0.7	건고추	0.0
배추김치	0.4	고춧가루	0.5
무	-0.8	마늘	-1.2
당근	-2.4	양파	-1.5
양배추	-3.1	대파	0.2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19년 3/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와 같음.
 - 애호박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4% 감소하였고, 오이는 0.8% 증가함.

과채류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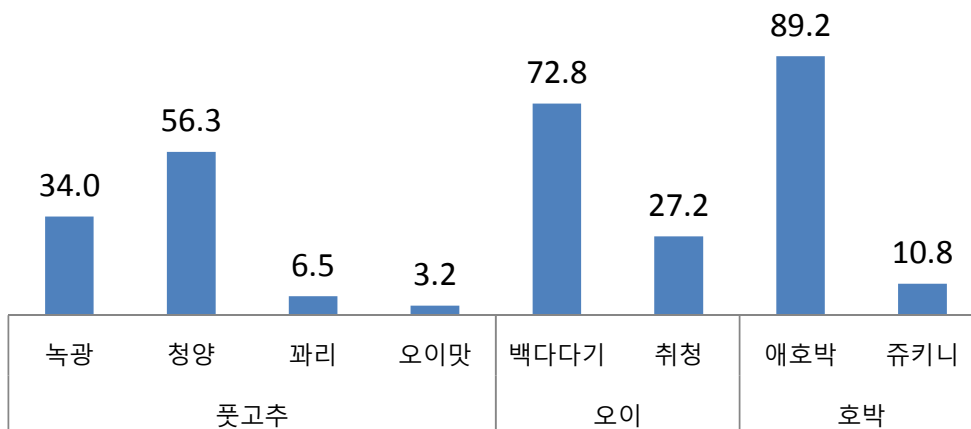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0.0	0.8	-0.4	0.0

주: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4.0%), 파리고추(6.5%), 오이맛고추(3.2%) 순으로 조사됨.
 - 오이는 취청오이(27.2%)보다는 백다다기오이(72.8%)를, 호박은 쥬키니 품종(10.8%)보다는 애호박(89.2%)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구입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4/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8년 4/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풋고추, 애호박의 4/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0.1%,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이의 경우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0.1	1.5	-0.4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물

- 2019년 3/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함.
 -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2%, 1.2%, 0.1%, 1.8% 감소하였고 닭고기는 1.2% 증가함.

축산물 품목별 3/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2.2	-1.2	1.2	-0.1	-1.8	-0.4

주: 소계는 오리고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3/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2.2%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호주산은 1.2%p 증가한 반면, 미국산 구입 비중은 0.8%p 감소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72.0%로 전년 동기 대비 0.8%p 감소하였으며, 미국, 캐나다는 0.1%p, 칠레산은 0.9%p 증가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1.1%, 95.8%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8년 3/4분기					2019년 3/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10.9		71.0		18.2	10.5		72.2		17.4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72.8	8.5	5.7	9.7	1.9	72.0	8.6	5.8	10.6	1.7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84.0		7.7		7.2	81.1		7.8		10.0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96.9		3.1			95.8		4.2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4/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8년 4/4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축산물의 4/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2~0.1% 감소하나 일부 품목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 품목별 4/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1.9	0.7	1.3	-0.1	-5.2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6. 요약 및 시사점

- 2019년 3/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18년 3/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0.9%, 0.1% 감소하고, 축산류는 0.4% 감소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깐양파, 고춧가루, 깐마늘, 다진마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70% 이상이며, 모든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함.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40.4%)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자재 취급(19.0%), 인력 부족(18.7%), 쓰레기 처리가 곤란(11.4%) 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문제점에 대해 응답업체의 30.6%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23.3%), 안정적인 물량 공급의 어려움(17.0%), 가격이 균일하지 않음(15.2%), 적절한 가격 정보를 얻기 곤란함(13.3%) 순으로 조사됨.
- 후식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7.3%로 적으며, 제공하는 후식과일로는 수박, 사과, 배, 참외, 파인애플, 오렌지, 바나나, 방울토마토, 단감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4/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예상 구매량은 2018년 4/4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품목에서의 구매량 증가가 기대됨.



특별주제

- ❶ 5G 시대, 농업·농촌의 변화
- ❷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 ❸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5G 시대, 농업·농촌의 변화¹⁾

김용렬^{*}, 이정민^{**}, 우성휘^{***}

1. 5G 기술의 특징과 예상되는 변화

- 5세대 무선 이동통신(5G, 5 Generation) 기술은 더 빠르게(초고속) 지체없이 실시간으로(초저지연) 대용량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연결(초연결)시키는 4차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5G 이전 무선 네트워크 세대(2G·3G·4G)에서도 서비스 범위와 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져 왔으나 그 대상은 대부분 사람이었음. 5G 시대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대상이 사물로까지 확장되어 5G는 디지털 혁명을 촉발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 5G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의 하나로 통신사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기대됨. 김재현 외(2018)는 2030년 5G가 한국의 산업 영역과 기반 환경에서 최소 47조 8,000억 원(GDP 대비 2.1% 수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제65호 “5G 시대, 농업·농촌의 변화”를 정리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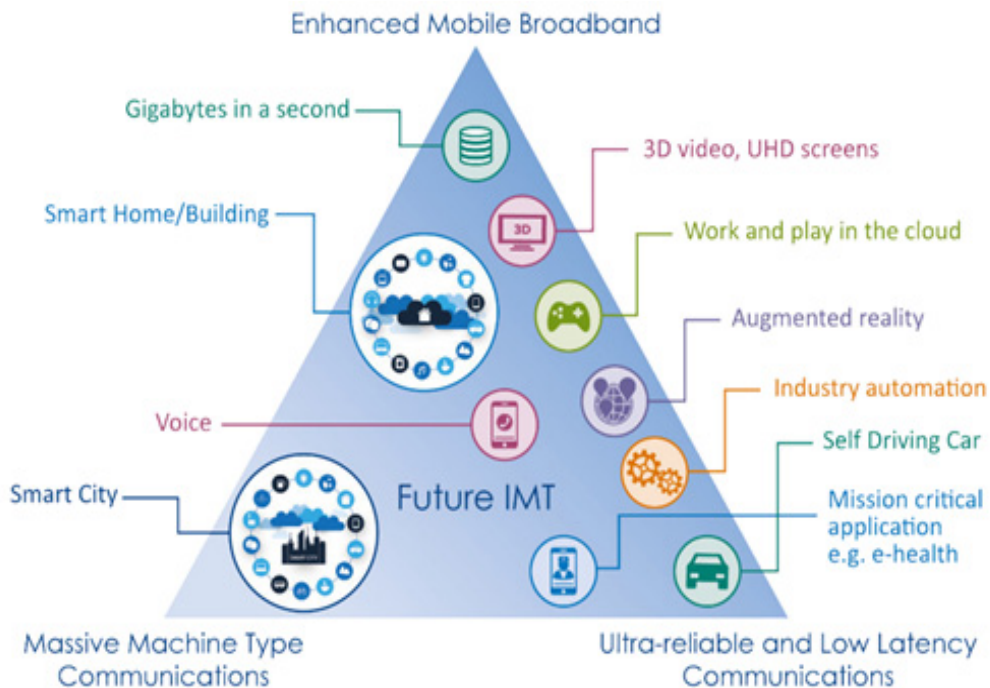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kimyl@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fantom99@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fullymotivated@krei.re.kr)

- 농업에서도 5G 기술로 인해 다양한 센서들과 연동된 IoT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또한, 모니터링·원격진료·자율주행차 등이 현실화되면서 농촌 지역이 지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됨.
- 5G는 범용기술로써 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현재는 에너지, 운송, 모빌리티, 헬스케어, 농업, 공공안전, 환경, 여행, 문화 등을 중심으로 5G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래에는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 5G 기술이 적용될 대표적인 산업 분야는 가상현실·증강현실, 자율주행차, 의료서비스, 광업이 있음(OECD 2019).

5G 기술 적용 산업 분야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2018).

2. 5G 기술 개발과 활용 현황

- 2018년 세계이동통신 장비시장⁵⁾에서 스웨덴의 에릭슨이 29%를 점유하면서 1위를 차지하였고, 화웨이가 26%, 노키아가 23%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으며 ZTE가 12%로 4위를 차지함. 삼성전자는 5%의 점유율로 5위를 차지하였음.
- 2017년 화웨이는 집중적인 연구개발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갖추면서 세계 이동통신 장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음.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하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제기하며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세계 이동통신 장비시장 점유율

단위: %

제조업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화웨이(중국)	15	17	18	21	25	25	28	26
에릭슨(스웨덴)	37	35	34	30	27	28	27	29
노키아(핀란드)	14	15	14	15	15	24	23	23
삼성전자(한국)	4	4	6	6	4	4	3	5
ZTE(중국)	9	9	9	9	12	12	13	12
Alcatel-Lucent	14	12	11	10	10	0	0	0
기타	9	7	9	9	8	8	6	5

주: Alcatel-Lucent는 2015년 노키아에 인수되었음.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c).

- 2019년 1분기 5G 장비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6%로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에릭슨(28%), 화웨이(15%), 노키아(14%), ZTE(6%) 순이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c).

5) 이동통신 장비는 크게 기지국, 중계기, RF장비, 안테나로 분류되며, 주요 기지국 장비는 기지국 제어기, PA, 컴바이너, 안테나, 필터 등이 포함되며 중계기는 광중계기, 주파수 변환 중계기, M/W 중계기가 해당됨(장민준 외 2018).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 주요 선도국가 사이의 이동통신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유럽이 94.0, 중국이 93.1, 한국이 92.3, 일본이 90.7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의 네트워크 처리 기술 수준 역시 미국의 100, 유럽의 89.0, 중국의 85.2, 일본의 86.3보다 낮은 81.1을 보여 네트워크 기술 수준 역시 주요 선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경우 기술 수준이 전년 대비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타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판단됨.

국가별 통신 기술 수준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일본
이동통신	100	94.0	93.1	92.3	90.7
네트워크	100	89.0	85.2	81.1	86.3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약간 부족한 상황이며, 선도국가 대비 투자 규모 및 내수시장이 작다는 약점이 있음. 그러나 5G는 시장 초기 단계인 점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인프라 및 단말기 제조, ICT 제조업 경쟁력은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적극적인 개발 및 투자로 기술 격차를 만회할 수 있음(김봉태 2019).
- 5G 통신망 추진 현황으로는 2014년 12월 5G 추진 전략을 수립한 이후 2017년 12월 상용화 로드맵이 작성되었으며,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에서 5G 시연이 이루어짐. 이후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가 실시되었으며, 12월에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용서비스가 시작되었음. 2019년 4월 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용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시됨.
 - 현재 상용서비스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전국 85개 시로 확장될 계획임(김봉태 2019).

- 다만 읍·면 단위 농촌 지역으로 확대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4월 기준 전국에 85,261개의 기지국이 구축되었으며, 설치된 기지국의 85.6%가 서울·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음. 향후 2019~2023년간 점진적으로 전국망으로 확산·구축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3.5GHz 기지국 13만 5천 개, 28GHz 기지국 4만 5천 개가 설치될 예정임(김봉태 2019).

3. 5G를 통한 농업·농촌 분야 응용과 전망

3.1. 농업 분야 응용과 향후 전망

3.1.1. 무인 트랙터

- 트랙터 시장의 선도기업은 존디어(John Deere: 미국), CNH(Case & New Holland: 영국), 구보타(Kubota: 일본), 아그코(AGCO: 미국)를 들 수 있음. 경작면적이 넓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형 농기계를 주축으로 하는 존디어와 CNH의 점유율이 높으며, 중소형 농기계 시장에서는 일본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임. 이들 선도기업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트랙터에 도입하여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를 개발하고 있음(장시형 2018).
- LG 유플러스와 LS 엠트론은 5G를 기반으로 한 트랙터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임. 2019년 3월 직진 및 회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시험하였으며,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박성은 2019b).
 - 현재 개발된 자율주행 트랙터는 1단계 수준으로 핸들 조작 없이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5G를 통한 데이터 전달로 실시간으로 작업 위치 확인이 가능함. 이를 통해 조작에 서툰 초보자도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연료비와 작업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단계 수준은 스스로 작업구획을 설정해 경로를 생성·주행하는 단계이며, 3 단계는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하는 수준으로써 2021년까지 개발할 예정임. 4단계는 무인 자율주행으로써 2022년에 상용화할 예정임.
- LG 유플러스는 5G 기술과 미국 PTC 사의 사물 인터넷(IoT),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트랙터 원격 진단 서비스를 개발 중임. 트랙터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차량·엔진·소모품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 운행 데이터, 운행·정비·수리 이력 등을 수집·분석하여 이용자에게 부품 고장 또는 이상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게 됨(배운경 2019).
- 존디어사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에 가까운 트랙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상용화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임. 존디어사는 2018년에 인공지능 개발 업체인 블루리버를 인수하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⁶⁾, 딥 러닝(deep learning)⁷⁾ 기능을 장비에 추가하였으며 최근에는 5G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켜 보다 효율적인 무인 트랙터를 개발 중임(Gagliardi 2018).
 - 현재 경지 작업 중인 무인 주행 트랙터 두 대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한 뒤 자료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재전송받기까지 30~60초의 시간이 소모됨. 무인 주행 트랙터에 5G를 적용할 경우 통신 소요시간은 1초 이하로 줄어들며, 이는 두 대의 트랙터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작업환경을 공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일본은 농촌 지역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작업능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구보다·안마·이세키 등 대형 농기계 브랜드에서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를 2017년부터 출시하고 있으며, 가격대는 평균 900만~1,300만 엔(9,000만~1억 4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음(박성은

6)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는 기술임(한경 경제용어사전).

7) 컴퓨터가 사람처럼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여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인공신경망으로 구축한 기계학습 기술임(한경 경제용어사전).

2019a). 파나소닉은 현재 4G 기반으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랙터를 향후 5G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추진 중임(Ebuchi 2019).

-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인 트랙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음. 신장지역은 이촌 향도 현상으로 2005년에서 2019년 동안 농업노동력이 약 11%(5,800만 명) 감소함. 이에 따라 BUSTC(Beijing Unistrong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는 바이두 위성 항법 시스템⁸⁾과 5G 기술을 접목시켜 자율 운행 트랙터를 개발함(Xia 2019).
 - 숙련된 운전자가 트랙터를 조종할 경우 하루당 약 13ha의 면적에 경운·비료 살포·파종을 할 수 있으나, 자율주행 트랙터는 하루에 20ha를 처리할 수 있음. 현재 센서 및 드론을 통해 경작지의 습도, 해충, 잡초 정보를 파악하여 5G를 통해 트랙터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짐.

3.1.2. 드론

- 2020년 세계 드론 시장규모는 약 1,270억 달러(약 151조 원)로 추정되며, 이중 25%인 324억 달러(약 38조 원)를 농업용 드론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2017년 미국 농업저널인 Farm Journal이 미국 농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당해 드론을 도입 예정인 응답자가 31%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드론을 운영하는 농민이 21%, 드론 서비스 업체를 이용 중인 농민이 12%로 전망됨(손성우 2018).
 - 농업용 드론의 주요 용도는 토양상태 측정, 종자 파종, 비료 및 농약 살포, 작물 모니터링, 생육상태 측정, 병충해 진단 등이 있음.
 - 농업용 드론의 주요 제조업체로는 PrecisionHawk(미국), DJI(중국), YAMAHA(일본) 등이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유콘시스템, 천풍 무인 항공, 한국헬리콥터 등이 있음(염경환·정희중 2019).

8) 중국에서 구축한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

- 드론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한정(2.4GHz/5.8GHz)되어 있어 드론 운용이 증가하면서 상호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음(손성화 외 2016).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주요 업체들은 이미 서비스 중인 4G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망 활용 기술을 개발함(염경환·정희중 2019).

3.1.3. 축산분야

- LG 유플러스는 5G 기술을 활용해 ‘농가소득·편의 솔루션’과 ‘안전·보안 솔루션’ 등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구체적인 사례로 돼지의 출하 체중 확인을 통해 출하 적기를 판단하는 ‘양돈장 모니터링’, IoT 기반 바이오캡슐로 소의 건강을 관리해 한우 출하성적 향상 및 젖소의 유질 향상을 돕는 ‘소탐지 솔루션’ 등을 개발할 예정임(조현기 2019).
- KT는 기존의 인간 사이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플랫폼(GEPP)을 구축한 바 있음. 질병관리본부의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 정보를 토대로 KT 가입자의 로밍 정보를 확인해 오염지역을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함.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해외 여행객의 이동 경로를 판단하게 되고, 국민들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정윤희 2019).
 - 실제로 2018년 9월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시 GEPP가 가동되었으며, 발병 38일 이후 메르스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될 때까지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음.
- KT는 앞서 설명한 GEPP를 바탕으로 5G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가축 전염병 방지 플랫폼(LEPP) 구축을 제안함.

3.2. 농촌 분야 응용과 향후 전망

- 5G 기술이 도입되면 농촌에 지능형 CCTV, 원격진료,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안전, 의료, 교통 등 정주 여건 측면에서 농촌 주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농촌과 같은 특정 지역이 기술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자신만의 기술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 교육, 하부구조에 대한 상당한 투입이 필요함(Chayko 2018).
 - 다만 투자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야 규범·정책·법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빈틈없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 한편 영국 정부는 5G 정책 관련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농촌 지역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GOV.UK 2018).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4차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d).
 -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6월 24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대상지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과 전남 무안군 무안읍을 선정하고, 이들 두 곳에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4~5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⁹⁾임.

9) 삼척시 근덕면에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을 구축하고 ①스마트에너지뱅크, ②신재생에너지 마을관리, ③ICT 융합기반 축우 관리, ④마을지킴이 드론, ⑤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무안군 무안읍에서는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구축하여 ①드론 기반 정밀 농업정보 서비스, ②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③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 ④태양광 안내판 기반 지역 정보 서비스, ⑤체험관 및 IoT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3.2.1. 지능형 CCTV

- 농어촌 지역은 절도·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만족도, 범죄 안전 시설 및 설비 구축에 대한 만족도,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소방서 등) 구비 정도에 대한 만족도 모두 도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유은영 2018).
- 5G 기술로 지역의 안전·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시·대응하는 지능형 CCTV가 도입된다면 농촌의 안전도가 개선될 수 있음. 또한, 사람이 하던 영상 분석 업무를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소수의 관리 인원만으로 안전도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지능형 CCTV는 강력한 범죄 억제 기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며 농촌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안전 또한 확보함으로써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화재 발생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소방서가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지 못한 농촌의 화재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3.2.2. 헬스케어

-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있음. 농촌에서 10분 이내에 병원(한의원 포함)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비율은 읍의 경우 50%, 면의 경우 25.8%에 불과함(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5, 성주인 2018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의 경우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
 - 결과적으로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 부문(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수준,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포함)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크게 낮으며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유은영 2018).

- 5G 기술 적용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가 본격화되면 농촌에서도 첨단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임.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서비스가 시·군으로 분산되고 농촌 주민들은 대기 시간 거의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
 - 2017년 11월부터 충남 홍성군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임. 간호사나 보호자가 환자 대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음. 또한, 2019년 7월 23일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 일부 지역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돼 원격진료¹⁰⁾가 가능하게 되었음(중소벤처기업부 2019). 한편, 원격진료가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약을 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4월부터 원격진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음(이진한 2018).
- 5G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함.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원격을 통해 환자의 질병 진단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격진료는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시범 사업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택배로 전달하는 원격 조제 역시 국내에서는 불법인 상황임(이지성 2019). 따라서 5G를 활용한 헬스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개정·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2.3. 자율주행차

- 농촌 주민들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며 모든 지역에 버스가 다니기 어려워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음. 또한,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

10)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은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음.

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들은 인지 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김용렬 외 2019).

- 2017년 농어촌 지역 총 행정리 36,527개 지역 중에서 32,360개 지역이 (88.6%)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¹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도채 외 2017). 또한, 농촌 주민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도시지역과 큰 격차가 있었음(유은영 2018).
-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도시의 1.2명에 비해 5배 이상 높았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 분석센터, 김도웅·김재욱 2019에서 재인용).

- 자율주행차가 농촌에 도입된다면 농촌 주민들의 이동성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진국에는 자율주행차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임.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보(Uber)社は 2016년 볼보社와 ‘자율주행차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테스트를 진행해온 끝에 볼보의 SUV인 ‘XC90’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를 완성하여 공개하였고 2020년 출시할 예정에 있음(최태인 2019). 국내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의한 규제 특례를 통해 세종시 내 일부 BRT 도로, 도심 공원에서 자율주행 상용 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되었음(중소벤처기업부 2019).
-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등 각종 센서 부품들을 제대로 만들어 낼 기술이 부족한 실정(선진국 대비 30~80% 수준)이며 정부 규제로 연구개발 및 인력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김강한 2019). 농촌의 자율주행차 도입에도 역시 많은 기술적·행정적 절차들이 요구될 것임.

11) 도서 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4. 5G 기술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도

- 5세대 무선 이동통신 기술(5G)이 실용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기존에 농업·농촌 분야에 적용되던 관행 기술과 융합하면서 작업 효율과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5G 기술의 농업·농촌 분야 응용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선호도 조사¹²⁾를 실시함.
- 조사결과, 농업인들은 5G가 적용된 첨단 신기술보다는 현재 사용 중인 기술에 5G가 결합하여 현재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이는 기술에 관심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예를 들어 현재 사용 중인 농업용 드론에 5G 기술이 접목되어 조종성 향상에 따른 농약, 비료살포, 작물 모니터링 기능 개선이 가능한 점에 대해 많은 관심(65.2%)을 표시하였음. 이에 반해 현재 개발 중인 5G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선택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 비율(28.0%)을 보이고 있음.

4.1. 전체 농업인 분석 결과

- 설문에 참여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농가 들은 5G에 기반한 첨단 기술 중 ‘농업용 드론’에 65.2%가 응답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어서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이 63.2%,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 정보 시스템’이 49.4%로 3위를 차지함.

12)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농업인으로 구성된 KREI 현지 통신원 1,609명을 대상으로 5G 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설문조사하였으며 1,073명이 응답했음(응답률 66.7%).

5G 기술의 농업·농촌 분야 활용에 대한 농업인 관심도

단위: %

	5G 기반 첨단 농업 기술 종류	기술 내용	선택 비율
1위	농업용 드론	농약 및 비료살포, 작물 모니터링	65.2
2위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	병해충 발생 시 농가 통보 및 대처방안 전달	63.2
3위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농장별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기상정보 제공	49.4
4위	CCTV 방범 시스템	지역 안전·위험 사항을 실시간 감시·대응	45.9
5위	스마트팜 및 스마트 빌리지	농장관리 자동화 및 지역 환경 개선	44.4
6위	과수 생육 품질 관리 시스템	과수 생육 및 재배 정보 제공으로 고품질 과일 생산	38.5
7위	원격의료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및 진료로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36.8
8위	자율주행 트랙터	초보자 조작 용이 및 작업량 증대	34.6
9위	농기계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고장진단	33.2
10위	자율주행 자동차	농촌 주민 이동성 보장 및 교통사고 위험 감소	28.0
11위	화재관리 시스템	농업 관련 시설 및 농가 주택에 화재 경보장치 설치	19.9
12위	축산관리기술	가축의 건강상태 및 출하 체중 확인 점검, 젖소 유질 향상	19.7

4.2. 연령대별 농업인 분석 결과

- 농업·농촌 분야에 활용되는 5G 기반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연령대에서 59.7~70.4%를 차지한 ‘농업용 드론’이 1위를 차지함. 농업용 드론은 농약 및 비료살포 작업등에서 노동력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 농가의 드론 서비스 이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2위로는 전 연령대에서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이 선택되었으며, 선택비율은 연령대별로 56.9~65.9%에 달함.

연령별 5G 기술의 농업·농촌 분야 활용에 대한 농업인 관심도

단위: %

	20~40대	선택 비율	50대	선택 비율
1위	농업용 드론	60.7	농업용 드론	66.1
2위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	58.0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	65.0
3위	스마트팜 및 스마트 빌리지	51.9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53.6
4위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49.2	CCTV 방범 시스템	45.3
5위	CCTV 방범 시스템	45.4	스마트팜 및 스마트 빌리지	45.0
	응답자 수	295명	응답자 수	351명
	60대	선택 비율	70대 이상	선택 비율
1위	농업용 드론	70.4	농업용 드론	59.7
2위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	65.9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	56.9
3위	CCTV 방범 시스템	48.2	원격의료 시스템	45.8
4위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47.0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41.7
5위	원격의료 시스템	44.5	CCTV 방범 시스템	40.3
	응답자 수	355명	응답자 수	72명

4.3. 영농형태별 농업인 분석 결과

- 농가들은 영농형태별로도 5G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사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노지재배 농가는 ‘농업용 드론’, 시설재배 농가는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 축산농가는 ‘축산관리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음.

영농형태별 5G 기술의 농업·농촌 분야 활용에 대한 농업인 관심도

단위: %

	노지재배	시설재배	축산
자율주행 트랙터	35.8	27.8	31.6
농기계 관리	34.3	26.9	31.6
농업용 드론	67.8	55.6	54.4
축산관리 기술	16.3	5.6	75.9
CCTV 방법 시스템	44.3	51.9	51.9
화재관리시스템	16.6	32.4	31.6
원격 의료시스템	38.2	26.9	34.2
자율주행 자동차	28.4	25.0	34.2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	66.2	73.1	35.4
과수 생육 품질 관리시스템	41.3	38.9	16.5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48.1	65.7	43.0
스마트팜 및 스마트 빌리지	43.3	60.2	48.1

- 다음으로 영농형태별로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5G 기술의 보급이 향후 농업·농촌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하였음. 경종(노지재배, 시설재배) 농가들은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과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축산농가는 ‘축산관리 기술’이 향후 농업·농촌 활동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음. 한편 ‘CCTV 방법 시스템’은 모든 종류의 농가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지닌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5G 기술이 향후 농업·농촌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점(100점 만점)

	노지재배	시설재배	축산
자율주행 트랙터	70.5	67.4	73.8
농기계 관리	77.9	77.2	79.4
농업용 드론	82.6	78.4	85.9
축산관리 기술	76.5	71.2	92.7
CCTV 방법 시스템	84.0	84.4	89.9
화재관리시스템	81.8	83.2	86.5
원격 의료시스템	81.5	80.3	87.3

	노지재배	시설재배	축산
자율주행 자동차	73.0	75.6	75.7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	83.9	85.5	84.3
과수 생육 품질 관리시스템	81.4	82.0	82.9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83.8	85.6	85.9
스마트팜 및 스마트 빌리지	79.5	82.9	84.9

주: 각각의 5G 기술 활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음. '매우 도움이 됨'은 100점, '보통'은 50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은 0점이었음.

5. 요약 및 시사점

- 5G는 데이터 전달 속도가 기존의 4G보다 20배에 달하며,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수는 10배로 늘었으며 이외에도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성, 주파수 효율 면에서 크게 개선되어 미래의 이동통신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5G 기술은 4차산업혁명을 위한 범용기술로써 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에너지, 운송, 모빌리티, 헬스케어, 농업, 공공안전, 환경, 여행, 문화 분야에서 5G를 기존 기술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주요국들은 5G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노동 생산성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자율주행 트랙터는 쉬운 조작방식으로 초보자도 기존의 숙련된 인력이 담당하던 작업량을 해결할 수 있으며, 5G를 통한 연동 기술을 적용하여 2대 이상의 트랙터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5G 기반 드론의 경우 이전에 비해 대용량 자료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 보다 해상도 높은 데이터를 촬영·전송함으로써 작물 모니터링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음. 축산분야에서는 5G 기술을 활용하여 소·돼지의 모니터링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5G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가축 전염병 방지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농촌 분야에 5G 기술 도입으로 지능형 CCTV, 원격진료,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수 있어 안전, 의료,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 수준을 크게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특히 투자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야 규범·정책·법률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 농업인을 대상으로 5G 기술의 농업·농촌 분야 활용에 대한 농업인 관심도 조사 결과, 농가들은 첨단 농업 기술 중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및 비료살포, 작물 모니터링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어서 ‘병해충 및 잡초 예찰 관리시스템’, ‘농장 맞춤형 기상정보 조기정보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 다만 연령별·영농형태별로 관심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 기술이 4차산업혁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기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5G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어 향후 5G 관련 기술의 파급범위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5G 기술은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위한 기술이므로 5G 기술과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을 비롯한 주변 기술이 동반 발전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임. 이는 고속도로(5G)만 신설한다고 해서 산업발전(4차산업혁명)이 동반되지는 않는 것과 유사함.
 - 따라서 5G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센서와 알고리즘 기술 개발, 인공지능(AI), 가상 및 증강현실(VR/AR)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¹⁾

유찬희*, 서홍석**, 김태후***

1. 2013~2017년 농가경제 동향¹⁾

- 농업 부문과 농촌 지역은 저출산, 저성장, 일자리와 복지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 농업 부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징후는 결국 소득 문제로 압축됨.
 - 2019년 농가소득이 전년보다 3.6% 증가한 4,006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찬 전망도 제시되지만(박기환 외 2019: 35)²⁾ 농가소득 문제는 오랜 기간 중요한 과제였고 앞으로도 농업 부문의 핵심 의제일 것임.
- 최근 농가소득 실태를 유형별·원천별로 파악하고 소득 격차 양상을 분석함. 변화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기간은 2013~2017년이고, 분석 대상 농가를 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 4개 집단으로 분류함.³⁾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179호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을 정리하여 작성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chrhew@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hongseokseo@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taehoo82@krei.re.kr)

1) 모든 소득은 명목소득 기준임.

2) 박기환·서홍석·김충현·김문희·이수환. 2019. “2019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2017년에 속한 유형을 기준으로 서술함.

- 2013~2017년 농가소득은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함. 이 결과 2017년 농가소득은 2013년보다 10.8% 증가한 3,824만 원을 기록함(연평균 2.6% 증가). 특히 이전소득이 빠르게 늘어나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함.
- 농업소득은 2013~2015년 증가하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주된 원인은 농업 총수입이 농업 경영비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임. 이 결과 2017년 농업소득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인 1,005만 원이었음.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도 2013년 29.1%에서 2017년 26.3%로 줄어들었음.

농가소득 동향(2013~2017년)

단위: 만 원 (%)

소득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변화율	
						연평균	'17/'13
농가소득	3,452.4	3,495.0	3,721.5	3,719.7	3,823.9	(2.6)	(10.8)
농업소득 (농업소득/농가소득)	1,003.5 (29.1)	1,030.3 (29.5)	1,125.7 (30.2)	1,006.8 (27.1)	1,004.7 (26.3)	(0.0) (-0.7%p)	(0.1) (-2.8%p)
농업총수입	3,064.8	3,217.9	3,365.4	3,127.9	3,058.0	(-0.1)	(-0.2)
농업 경영비 (경영비/총수입)	2,061.3 (67.3)	2,187.5 (68.0)	2,239.8 (66.6)	2,121.1 (67.8)	2,053.3 (67.1)	(-0.1) (-0.0%p)	(-0.4) (-0.2%p)
농외소득 (농외소득/농가소득)	1,570.5 (45.5)	1,479.9 (42.3)	1,493.9 (40.1)	1,525.2 (41.0)	1,626.9 (42.5)	(0.9) (-0.7%p)	(3.6) (-3.0%p)
겸업소득	418.2	375.1	373.3	385.5	440.6	(1.3)	(5.4)
사업외소득	1,152.3	1,104.8	1,120.6	1,139.7	1,186.3	(0.7)	(3.0)
이전소득 (이전소득/농가소득)	584.4 (16.9)	681.9 (19.5)	790.6 (21.2)	878.3 (23.6)	890.2 (23.3)	(11.1) (1.6%p)	(52.3) (6.4%p)
공적보조금	520.0	620.7	723.1	813.8	823.7	(12.2)	(58.4)
농업보조금	146.4	160.5	166.4	182.7	168.2	(3.5)	(14.9)
기타공적보조금	373.7	460.2	556.7	631.0	655.4	(15.1)	(75.4)
사적보조금	64.3	61.3	67.5	64.5	66.5	(0.8)	(3.4)
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농가소득)	294.0 (8.5)	302.9 (8.7)	311.4 (8.4)	309.5 (8.3)	302.2 (7.9)	(0.7) (-0.2%p)	(2.8) (-0.6%p)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농외소득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평균 1,627만 원에 이르렀음. 반면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은 2013년 45.5%에서 2017년 42.5%로 줄어들었음.
 - 농외소득은 농업 이외 사업을 경영하여 얻는 겸업소득과 노동력 제공 등 사업 이외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외소득으로 이루어짐. 2013~2017년 농외소득 중 사업외소득 비중은 72.9~75.0%였음.
 - 겸업소득은 2013~2015년 동안 감소세였다가 2016년부터 반등하였음. 2017년 겸업소득은 2013년 대비 5.4% 증가한 평균 441만 원이었음. 사업외소득은 2015~2017년 동안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2017년 평균 사업외소득은 2013년보다 3.0% 증가한 1,186만 원이었음.
- 2013~2017년 이전소득은 농업·농외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함(연평균 11.1%). 이에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 비중도 2013년 16.9%에서 2017년 23.3%로 늘어남. 기타 공적 보조금이 연평균 15.1% 늘어나면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함.⁴⁾ 같은 기간 농업보조금은 연평균 3.5% 늘어남.

2. 농가 유형별 소득 실태

2.1 농가 유형화

- 농가가 점차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농가 개념으로 농업을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김미복·박성재 2014)⁵⁾ 따라서 일정

4) 예를 들어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 소득인정액(단독 가구 87만 원, 부부 가구 139만 2천 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인상하여 왔음. 농가소득 중 공적 보조금 비중이 고령 소농 집단에서 가장 높고, 2014년부터 비중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5) 김미복·박성재 2014.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95호(2014. 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기준에 따라 대상 농가를 유형화하고 분석해야 보다 현실을 가깝게 바라보고 실태와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김미복·오내원·황의식(2016)⁶⁾을 따라 『농가경제조사』 표본 농가를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농가 유형 분류

농가 유형	기준
청장년 소농(Small Young, SY)	표준 영농규모 2ha 미만,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청장년 중대농(Large Young, LY)	표준 영농규모 2ha 이상,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고령 소농(Small Old, SO)	표준 영농규모 2ha 미만,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 중대농(Large Old, LO)	표준 영농규모 2ha 이상,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주: 표준 영농규모는 경지면적+(농업용 고정자산/당해 평균 농지 가격)으로 계산함(최양부·박성재·오내원 1983). 영농형태 별로 농업 자본 관련 유형 자산을 경지규모에 반영하여 다양한 영농 형태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임(김미복·오내원·황의식 2016).
자료: 김미복·오내원·황의식(2016).

- 2013~2017년 고령 집단 농가 수와 비중이 늘어난 반면, 청장년 집단규모는 축소되었음.⁷⁾ 특히 2017년에는 표본 농가 중 고령 소농 집단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음(52.1%).

연도별·유형별 표본 농가 수 변화

단위: 호, %

농가 유형	농가 수					변화율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변화율	'17/'13 변화율
청장년 소농(SY)	581	593	567	512	447	-6.3	-23.06
청장년 중대농(LY)	439	435	403	378	344	-5.9	-21.64
고령 소농(SO)	968	1,144	1,206	1,269	1,350	8.7	39.46
고령 중대농(LO)	359	428	424	441	447	5.6	24.51
합계	2,347	2,600	2,600	2,600	2,588	-	-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6) 김미복·오내원·황의식. 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32호(2016. 8.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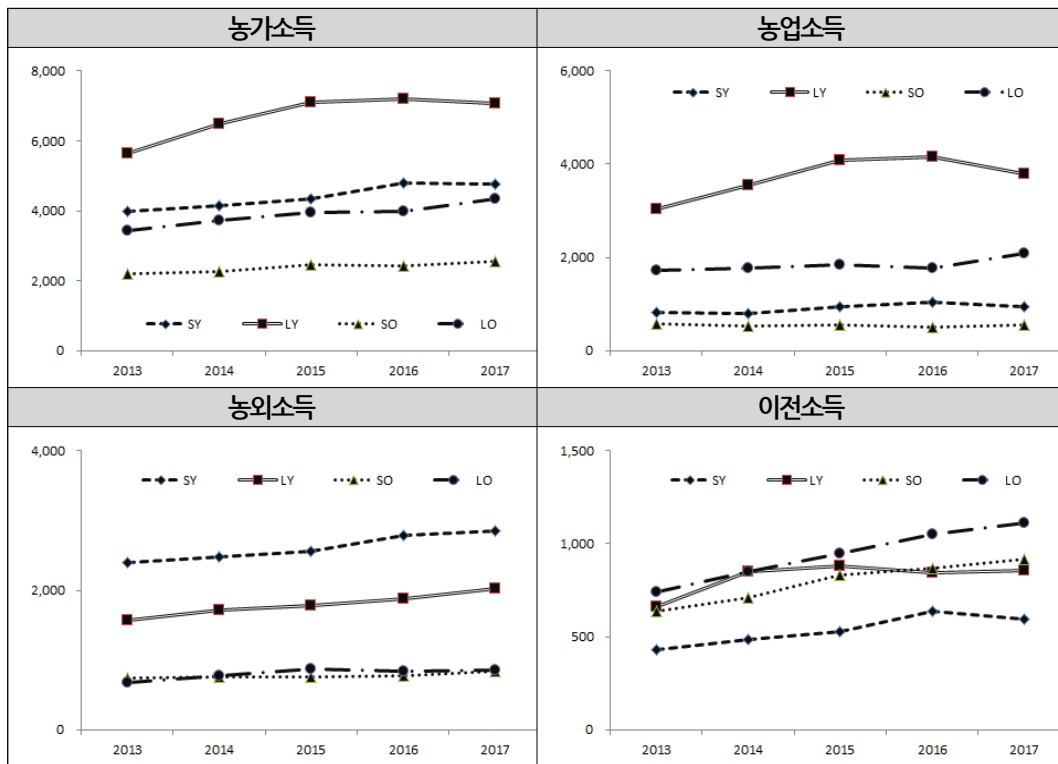
7) 농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2.2 농가유형 간 소득 실태 비교⁸⁾

- 2013~2017년 동안 청장년·고령 중대농 집단 평균 농가소득은 각각 6,703만 원, 3,890만 원이었음. 같은 기간 청장년 소농 집단의 평균 농가소득은 4,406만 원이었음. 반면 고령 소농 집단의 농가소득은 평균 2,385만 원에 불과하였음.

유형별 농가소득 및 원천별 소득(2013~2017년)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경영주 연령과 무관하게 중대농 집단의 농업소득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표준영농규모 2ha 미만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되고 있음.
 - 청장년·고령 중대농 농업소득은 2013~2017년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소

8) 유찬희·김태후(2018)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농 집단 농업소득은 감소 추세를 보였음. 이 결과 중대농과 소농 집단 간 농업소득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음. 중대농 집단 내에서도 청장년과 고령 농가 간 농업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음.

-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청장년 집단이 고령 집단보다 농외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음.
 - 특히 청장년 소농은 2013~2017년 동안 농가소득 중 60.4~71.8%를 농외 활동에서 확보하였음. 청장년 중대농 역시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이 27.9~36.0%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고령 중대농 집단의 농외소득 비중은 19.6~25.3%였음.
 - 농가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이 한 원인이라고 판단됨. 예를 들어 청장년 집단은 고령 집단보다 가구원 수와 가용 노동시간이 많고, 선택할 수 있는 농외 소득 활동이 다양함. 이외에도 청장년 소농 집단이 농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 또한, 청장년 소농 집단이 농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농외소득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됨.
- 농가 유형과 관계없이 이전소득이 늘어났음. 이전소득은 고령 집단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고령 소농 29.1~42.0%, 고령 중대농 21.7~32.5%). 상대적으로 영농규모가 작은 고령 소농 집단이 청장년 중대농 집단과 비슷한 규모의 이전소득을 얻는 원인은 연금 등 추가 이전소득원 때문이라고 판단됨.
 - 청장년 소농 집단은 다른 유형보다 이전소득이 적었음. 영농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농업보조금이 적고⁹⁾,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공적 보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9) 다수 농업 정책 지원은 정책 대상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됨. 대표적인 사례인 직접지불제는 ha당 단가를 책정하여 지급액을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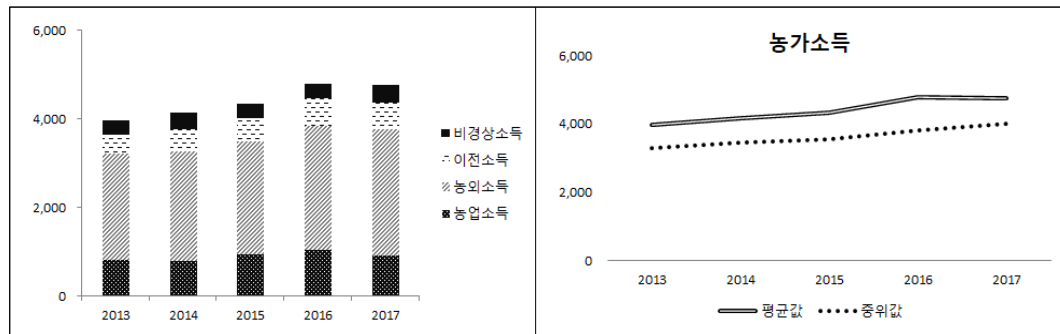
2.3. 농가유형별 소득 실태와 특징

2.3.1. 청장년 소농(SY)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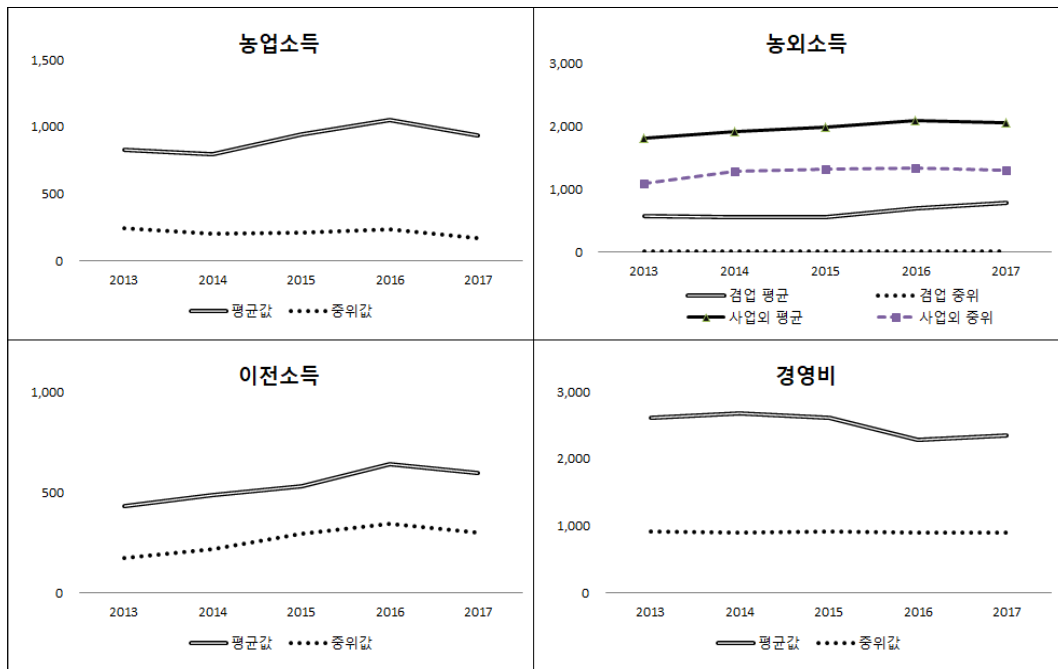
- 청장년 소농 집단은 영농 활동보다 농외 활동에서 소득을 많이 얻었음.
 - 농외소득 중에서도 사업외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영농 활동과 관련된 겸업 기회가 적고, 영농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어 임금 근로 등을 할 여력이 있는 결과라고 판단됨.
 - 사업외소득 평균값과 중앙값 차이를 보면 청장년 소농 집단 내 농외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¹⁰⁾ 농업소득, 겸업소득, 이전소득 격차는 분석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집단 내 경영비 격차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음.

청장년 소농 집단 원천별 소득 구성 및 격차 변화(2013~2017년)

단위: 만 원



10)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값”을 뜻함(교육평가 용어사전). 이 글에서는 특정 농가유형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농가가 얻은 소득을 뜻함. 이 농가보다 소득을 더 많이 얻은 농가가 소득을 더 얻으면 평균값은 증가하지만 중앙값은 변하지 않음. 따라서 농가유형 소득의 평균값과 중앙값 차이가 늘어나면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양극화 심화) 해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3.2. 청장년 중대농(LY) 집단

- 청장년 중대농 집단은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지만, 농외 소득활동도 활발하게 하였음. 2017년에는 농업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농외소득이 늘어났음.
 - 분석 기간 중 농업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농가소득 차이가 심화되었으나 2017년에는 이 추세가 완화되었음. 청장년 중대농 집단 내에서도 사업외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¹¹⁾
 - 청장년 중대농 집단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안정성임.¹²⁾ 분석 기간 동안 청장년 중대농 집단의 농가소득 변이계수는 0.95~1.18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음. 이 집단의 농업소득 변이계수는 1.62~1.93이었음. 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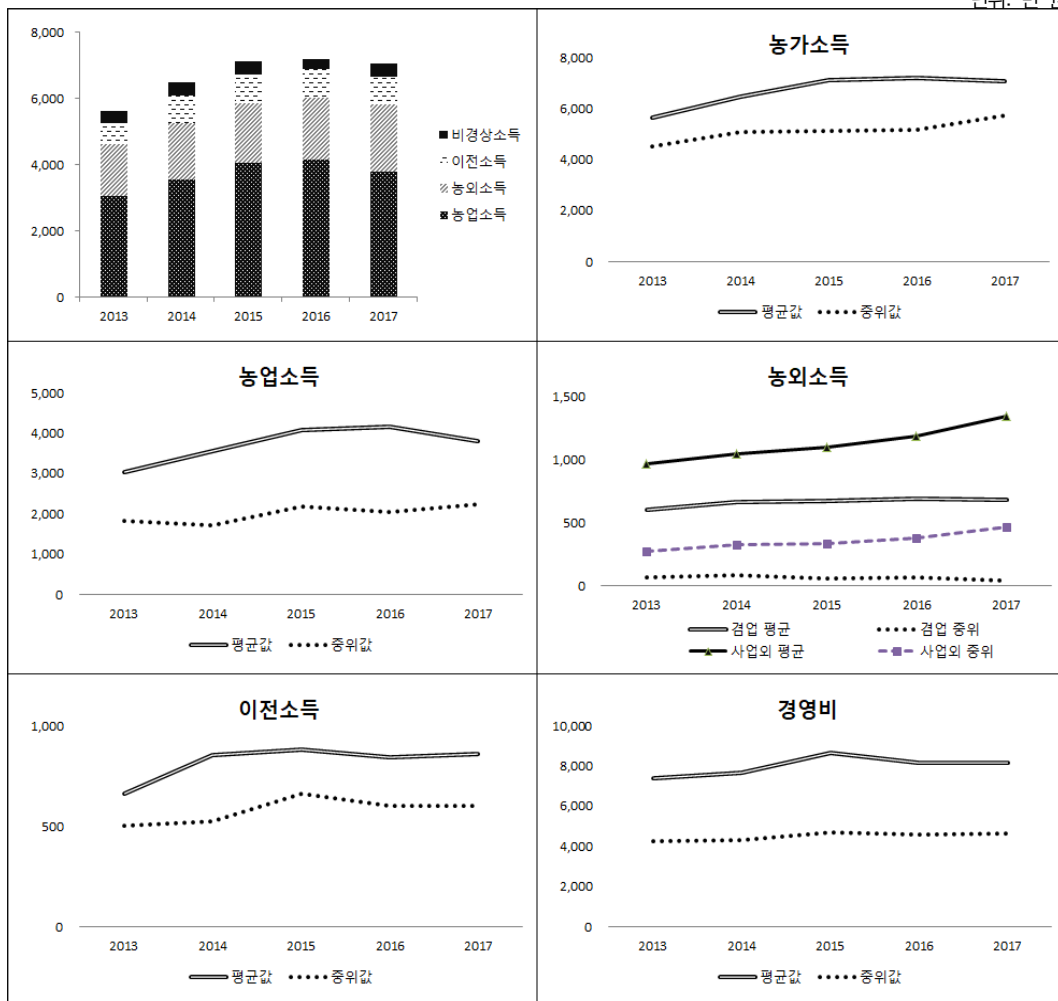
11) 허등용(2018)은 농가소득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려면 농업소득과 사업소득 불평등을 우선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음.

12) 우병준 외(2017)는 농업소득 변이계수를 비교하여 영농규모와 소득 불안정성이 정비례 관계를 가진다고 진단하였음. 또한,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업소득 불안정성이 농가소득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음.

년 중대농 집단은 농업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농업소득 불안정성이 농가소득 변동에도 영향을 미침.

청장년 중대농 집단 원천별 소득 구성 및 변화(2013~2017년)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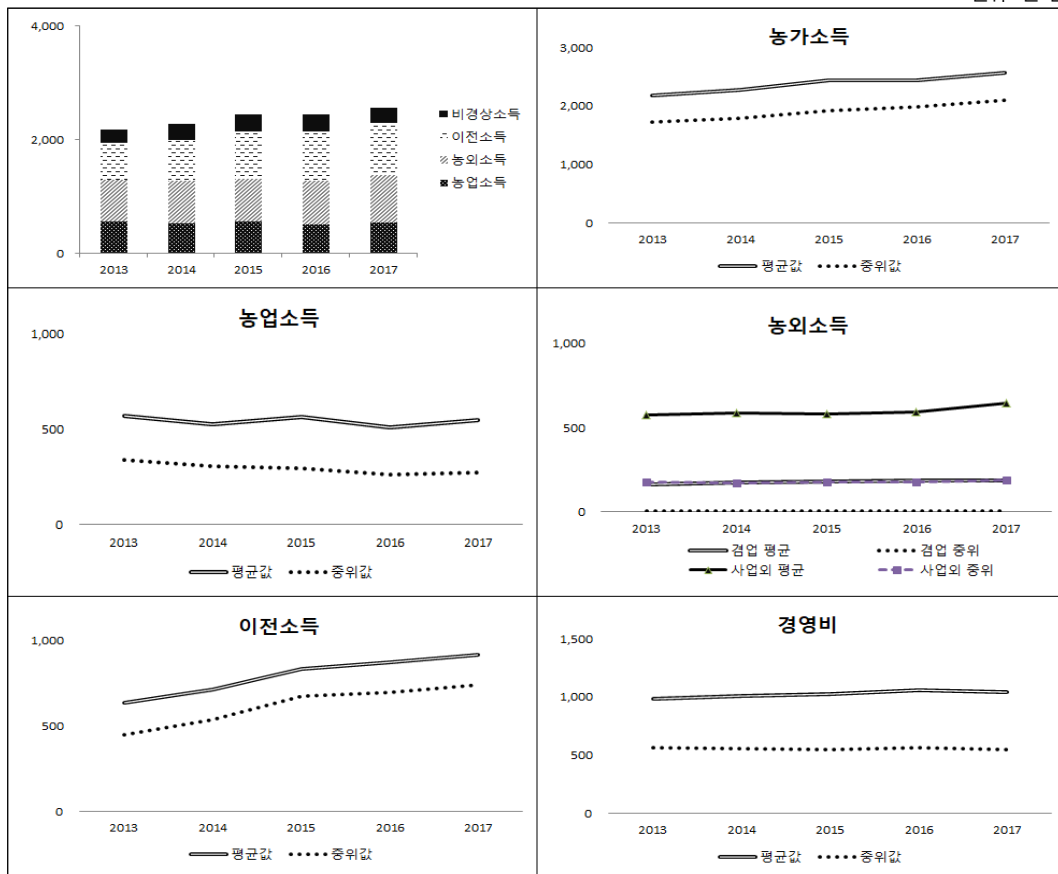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3.3. 고령 소농(SO) 집단

- 고령 소농 집단은 평균 농가소득이 2,385만 원에 불과하였음. 영농 활동보다 농외 활동에서 얻는 소득이 많았고,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음.
 - 4개 집단 중 농업소득 비중과 농외소득 비중 차이가 가장 적었음. 이는 영농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농외활동 기회도 제한되어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현상을 반증하고 있음. 원천별 소득과 경영비 모두 집단 내 격차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

고령 소농 집단 원천별 소득 구성 및 변화(2013~2017년)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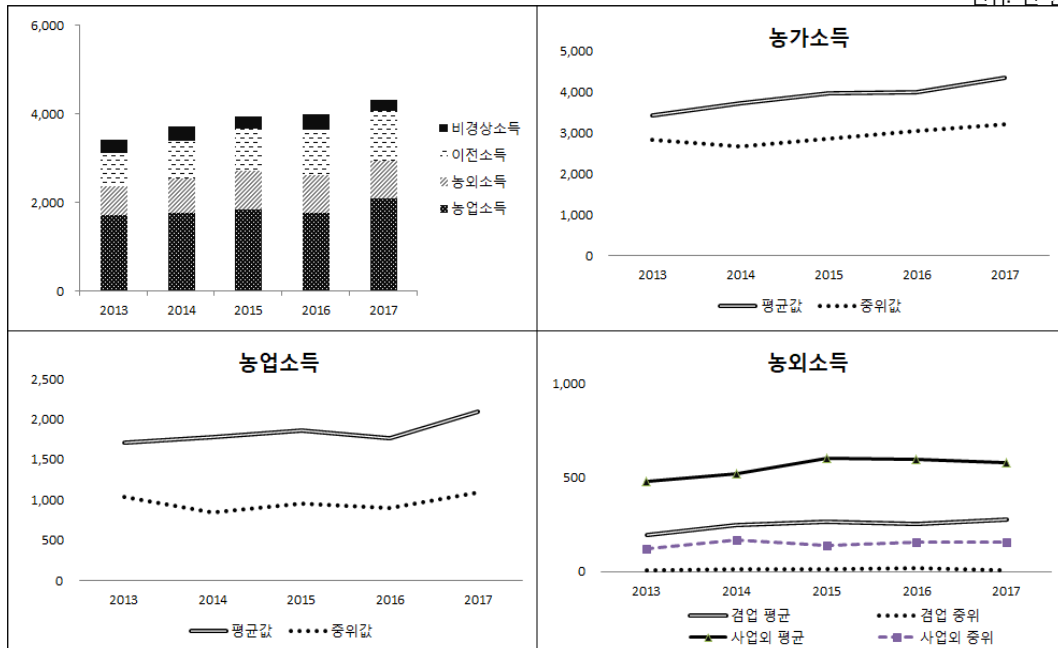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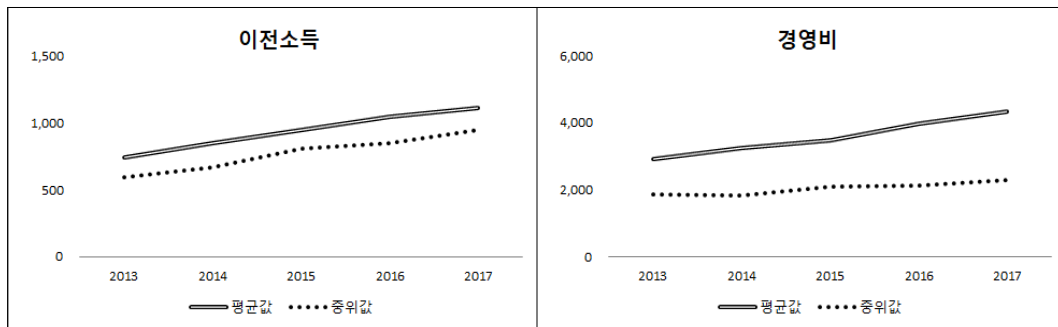
2.3.4. 고령 중대농(LO) 집단

- 고령 중대농 집단은 청장년 중대농 집단처럼 주로 영농 활동에서 소득을 얻었음.
 - 청장년 중대농 집단과 달리 농업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농가소득 차이도 확대되고 있음.
 - 농외소득 수준은 청장년 중대농 집단의 절반 정도이고 격차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 이는 경영주 연령대가 높아 농외활동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이전소득은 대체로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집단 내에서 규모가 큰 농가의 경영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이 집단에는 논벼 농가가 많아 농작업 위탁이나 인력 고용(농약, 비료살포)이 늘어난 결과라고 판단됨.

고령 중대농 집단 원천별 소득 구성 및 변화(2013~2017년)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2.4. ‘상대적 빈곤률’ 실태

-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농가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소득이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한의 삶의 수준’조차 영위하기 어려움. 특히 농가가 소비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생산 활동과 관련된 투자마저 위축될 수 있음. 농가경제가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작황 부진, 가격하락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만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려움(강혜정 2015)¹³⁾.
 -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중 당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미치지 못한 농가 비중(이하 ‘상대적 빈곤률’)을 계산하였음.^{14), 15)}

13) 강혜정. 2015. “경제적 위기 농가의 특징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2(2): 217-231.

14)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상대적 빈곤까지 고려하여 수급자 기준 등을 정하고자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있음. 기준 중위소득도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짐. 기준 중위소득에 30%를 적용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값을 생계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임.

15) 2013~2014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었음. 기준 중위소득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2015~2019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2013~2014년 기준 중위소득 상당치를 계산하였음. 이 상당치는 2013~2014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와 거의 동일함.

유형별 상대적 빈곤률(2013~2017년)

단위: 호, (%)

농가 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농가 수	상대적 빈곤률	농가 수	상대적 빈곤률	농가 수	상대적 빈곤률	농가 수	상대적 빈곤률	농가 수	상대적 빈곤률
SY	581	63 (10.8)	593	65 (11.0)	567	57 (10.1)	512	44 (8.6)	447	33 (7.6)
LY	439	46 (10.5)	435	48 (11.0)	403	39 (9.7)	378	36 (9.5)	344	32 (9.3)
SO	968	171 (17.7)	1,144	192 (16.9)	1,206	161 (13.4)	1,269	174 (13.7)	1,350	190 (14.1)
LO	359	33 (9.2)	428	53 (12.4)	424	33 (7.8)	441	46 (10.4)	447	39 (8.7)
합계	2,347 (100.0)	313 (13.3)	2,600 (100.0)	358 (13.8)	2,600 (100.0)	290 (11.2)	2,600 (100.0)	300 (11.5)	2,588 (100.0)	305 (11.8)

주: 2013~2014년 중위 가운소득은 2015~2019년 기준 값과 변화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 2013~2017년 상대적 빈곤률은 11.2~13.8%였으며 2015년부터 비중이 소폭 줄어들었음. 유형별로 비교하면 고령 소농 집단 중 상대적 빈곤률은 13.7~17.7%로 다른 유형보다 큼.

3. 도·농 소득 및 지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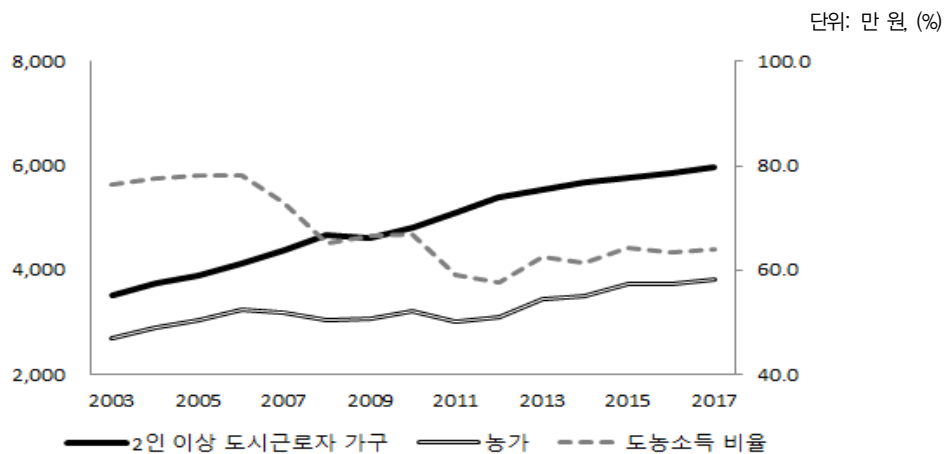
3.1. 도·농 소득 격차 실태

-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수준(이하 ‘도·농 소득 격차’)은 2003~2017년 동안 전반적으로 낮아졌음. 2012년 최저 수준인 57.6%를 기록한 이후 점차 격차가 좁혀져 2017년에는 64.1%였음.¹⁶⁾

16) 통계청은 2017년 『가계동향조사』공표 시부터 연소득을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통계청 고시 제2016-396호). 따라서 공표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 가구 연소득을 추정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음. 연구진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 분석하여 연간 소득을 추출하였음.

- 2003~2012년 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은 연평균 4.9%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1.6% 증가하는 데 그쳐 도·농 소득 격차 확대로 이어졌음.
- 2013년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농 소득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최근까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도·농 소득 격차 동향(2003~2017년)



주 1) 도·농 소득 비율은 농가소득/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100으로 계산하였음.

2) 2017년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은 각주 4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가계동향조사』및『농가경제조사』 원자료.

3.2. 도·농 지출 격차 실태

- 2013~2016년 농가 지출은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보다 평균 1,303만 원 적어 도·농 소득 격차(2,120만 원)보다 작았음.¹⁷⁾ 즉, 농가는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평균 소득이 낮았지만 지출 차이는 상대적으로는 작았음.
- 같은 기간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은 4,257만~4,427만 원이었고, 농가 지출은 3,026만 ~3,105만 원이었음. 농가 소비·비소비 평균 지출 금액은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각각 793만 원, 510만 원 적었음.

17) 2017년부터『가계동향조사』중 지출과 소득 부문이 분리·재설계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전체 지출 중 소비지출 비중은 농가(80.3%)가 도시 근로자 가구(74.5%)보다 컸음.

도시 근로자 가구 및 농가소득·가계 지출 비교(2013~2016년)

단위: 만 원 (%)

소득 항목		2013	2014	2015	2016	변화율		
						연평균	'16/'13	
농가	소득	3,452	3,495	3,722	3,720	(2.5)	(7.7)	
	지출	3,026	3,056	3,061	3,105	(0.9)	(2.6)	
		소비	2,418	2,447	2,474	2,500	(1.1)	(3.4)
		비소비	608	609	587	605	(-0.2)	(-0.5)
	처분가능소득	2,844	2,886	3,134	3,115	(3.1)	(9.5)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5,527	5,682	5,780	5,861	(2.0)	(6.0)	
	지출	4,257	4,382	4,395	4,427	(1.3)	(4.0)	
		소비	3,186	3,269	3,267	3,288	(1.1)	(3.2)
		비소비	1,071	1,114	1,128	1,138	(2.1)	(6.3)
	처분가능소득	4,457	4,568	4,652	4,723	(2.0)	(6.0)	
도·농 소득 격차		도시-농가	2,075	2,187	2,058	2,142	(1.1)	(3.2)
		(농가/도시)	(62.5)	(61.5)	(64.4)	(63.5)	(0.3%p)	(1.0%p)
도·농 지출 격차		도시-농가	1,231	1,327	1,334	1,322	(2.4)	(7.4)
		(농가/도시)	(71.1)	(69.7)	(69.7)	(70.1)	(-0.3%p)	(-1.0%p)
도·농 처분가능소득 격차		도시-농가	1,612	1,682	1,518	1,608	(-0.1)	(-0.2)
		(농가/도시)	(63.8)	(63.2)	(67.4)	(65.9)	(0.7%p)	(2.1%p)

주 1) 소비 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임. 비소비 지출은 조세 및 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등임.

2) 처분가능소득은 (가계 소득 - 비소비 지출)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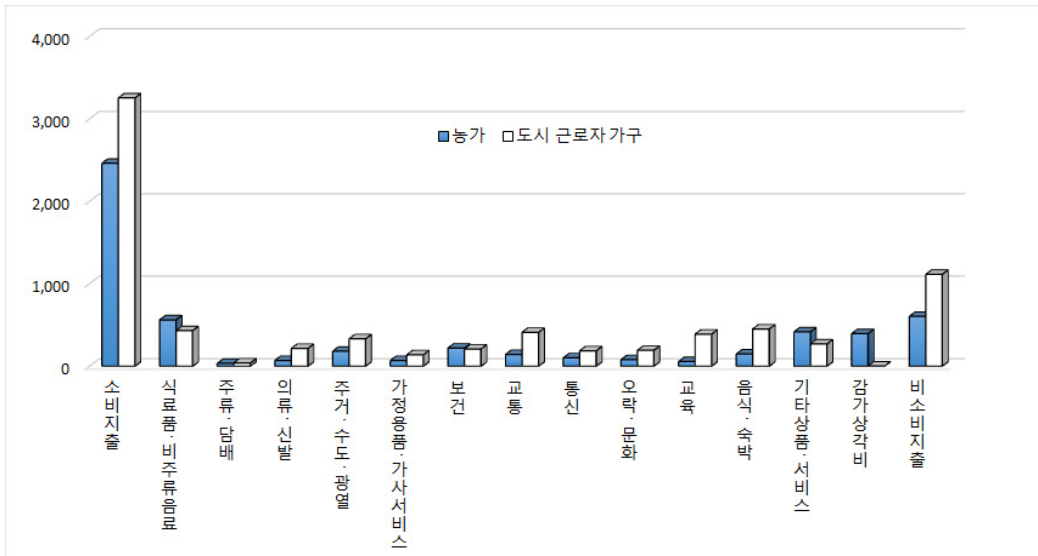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 2013~2016년 농가 처분가능소득(가계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가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평균 1,605만 원 적었음. 도시 근로자 가구와 비교할 때 농가는 소비지출과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됨.
- 2016년 농가 처분가능소득은 2013년 2,844만 원에서 연평균 9.5% 증가한 3,115만 원이었음. 같은 기간 도·농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보합 내지 소폭 축소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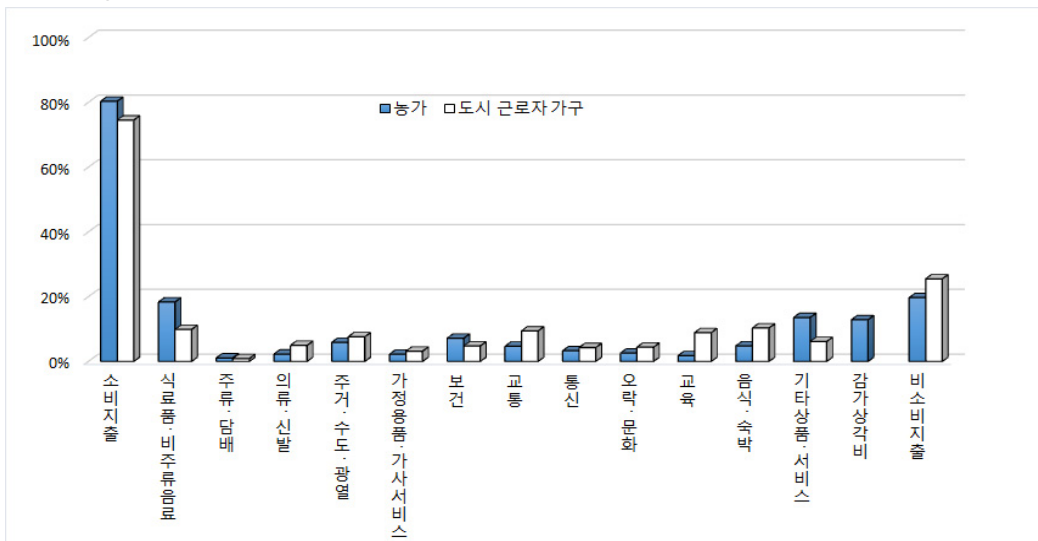
농가 및 도시 근로자 가구 항목별 지출 동향(2013~2016년 평균)

단위: 만 원 (%)

<지출액>



<지출 비중>



주 1) 전체 지출은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의 합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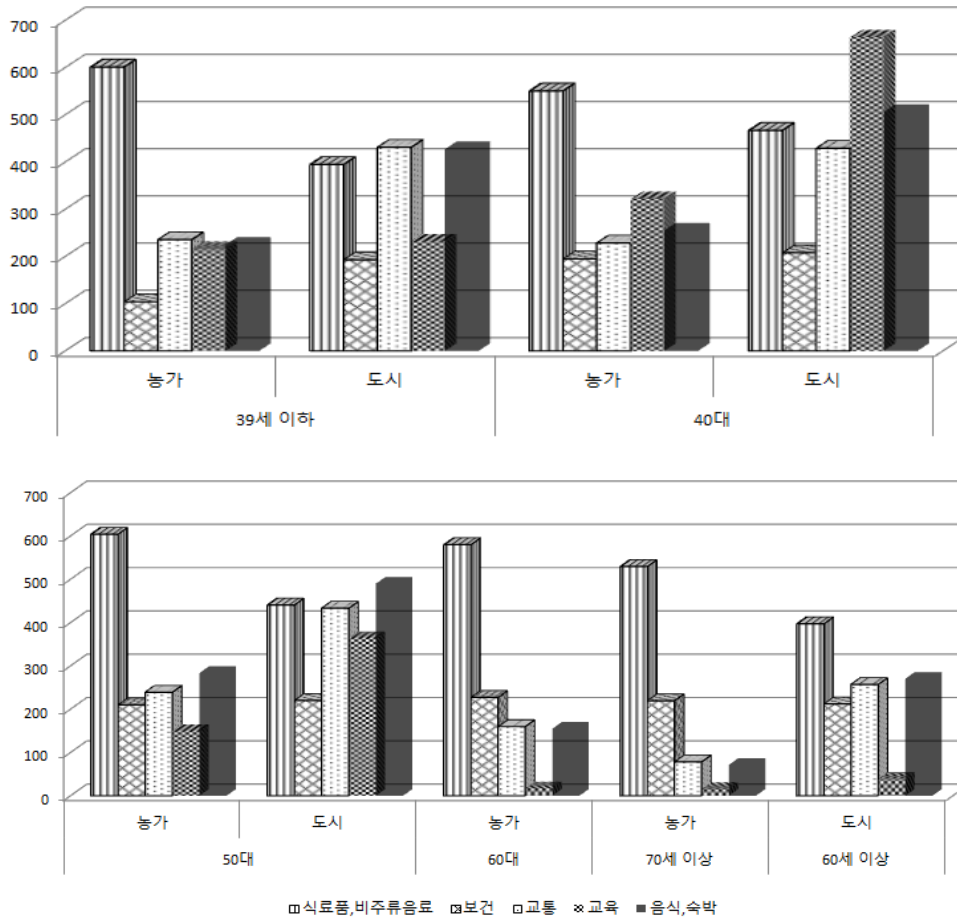
2) '감가상각비'는 농가 지출만 해당되는 항목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 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 항목별 지출을 비교한 결과를 상기 그래프로 요약하였음.
 - 2013~2016년 동안 농가는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소비 및 비소비 지출규모가 모두 작았음. 농가는 상대적으로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기타 상품·서비스 지출이 많았음. 반면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지출규모가 작았음.
 -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지출 비중규모가 작은 원인은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농촌 지역 상권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출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 경영주 연령별·주요 항목별 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을 비교하였음.
 - 모든 연령대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농가가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많았고, 교통, 오락·문화, 음식·숙박 지출은 도시 근로자 가구가 농가보다 많았음. 도시 근로자 가구는 농가에 비해 외식을 자주 하고, 레저와 취미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결과임.
 - 경영주/가구주 연령 39세 이하에서 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의 교육 지출은 비슷했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농가의 교육 지출이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농촌 지역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됨.
 - 농가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식료품·비주류음료와 교통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보건 지출은 늘어남. 보건 지출은 경영주 연령 60대 농가가 가장 많은 반면 교육 지출은 40대 경영주 농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
 - 경영주 연령대별로 주요 지출 항목이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 생애 주기에 따른 지출 형태 변화 때문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경영주·가구주 연령이 30~40대인 가구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교육비 등을 많이 지출하나 자녀가 독립하고 경영주·가구주 연령이 늘어나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나 교육 지출은 감소하는 대신 보건 지출이 늘어남. 그럼에도 같은 연령대에서도 농가와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규모가 다른 이유는 처분가능소득과 서비스 접근성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됨.

연령별·항목별 농가 및 도시 근로자 가구 지출 동향(2013~2016년 평균)

단위: 만 원



주 1)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자료는 2015년부터 상대표준오차 문제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2012~2014년 평균값을 이용하였음.
 2)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 연령을 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연령별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을 공표하는 반면, 『농가경제조사』는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농가소득을 공표함. 따라서 경영주 연령 60세 이상 농가와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를 비교하여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4.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농가소득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 초반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원천별 소득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농가소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간이 되는 농업소득 비중이 감소하면서 농외 및 이전소득에 점차 의존하고 있는 현상에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농가가 점차 다양하게 분화되고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target)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적절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이 연구에서 분류한 4개 유형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청장년 소농 집단을 대상으로 한 최근 정책은 ‘젊은 영농인’을 향후 영농 주체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실태를 보면 영농 활동보다는 농외 활동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¹⁸⁾ 이 집단을 영농 주체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원인(예를 들어 농지 확보나 영농 기술 습득 제약)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소득 창출 수단으로 영농 활동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장년 중대농은 농가소득이 많고 농업소득 비중도 높아 농업생산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13~2017년 동안 청장년 중대농 비중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기간(基幹) 농가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유찬희·김태후 2018)¹⁹⁾. 앞서 언급한 대로 청장년 소농 집단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청장년 중대농 규모를 유지하도록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유형 농가 집단에 비해 경영 불안정 문제를 크게 겪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가격 하락, 경영비 증가, 투자 회수 미진 등 충격을 완충시켜주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게끔 안전장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18)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행 단계로 농외소득에 의존한 결과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농외활동을 수행하면서 농업 자원의 부가가치를 늘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19) 유찬희·김태후. 2018. “농가 유형별 소득 형평성 격차와 과제” 『Research Brief』 No. 9(2018.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고령 소농 집단은 농가 수가 가장 많으면서 소득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취약함.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작은 규모나마 영농 활동을 지속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됨.²⁰⁾ 이 집단의 이전소득 규모 자체는 다른 집단보다 작지만 중요한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음. 상대적 빈곤 비중까지 고려할 때, 농업 정책에 더해 복지 또는 지역 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고령 중대농 유형 중 40.6%(2017년 기준)가 논벼 농가였음. 농외소득을 얻기 어렵고 타 작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 영농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경영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되 중장기적으로 청장년 집단이 농지를 양도·임대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고령 소농 집단과 달리 영농규모가 상당하므로 경영 승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 이는 청장년 집단으로 경영 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와 의미

안석*

1.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개요

- 농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8조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시작됨.
 - 우리 농촌은 2016년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1.5%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여성농업인이 증가와 다문화 귀농 가구 증가로 귀농여성농업인¹⁾ 등장 등으로 다양한 여성농업인 집단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생김.
 - 4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2013년 조사 틀을 유지하여 기본적인 조사항목과 함께 사회·경제적 현황을 농가의 일반 특성, 경제·사회 활동, 교육 및 복지, 정책 수요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가구 형태와 사회적 요인을 조사한 기본사항, 경제·사회 활동, 교육 활동, 복지 현황,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함.
 - 기본사항: 가구원별 현황, 혼인상태, 정규교육, 가구 형태, 자녀 수
 - 일반적 특성: 주요 생산품목, 토지면적, 연간농산물 판매금액, 자산, 월지출액, 농사일 담당 비중, 가사 노동시간, 정보화 기기
 - 경제·사회 활동: 농업종사기간 및 이유, 직업적 지위, 담당 농작업, 참여하는 의사결정, 평균 농업노동시간(남편, 본인), 농외소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ansok@krei.re.kr)

1) 다문화여성과 귀농여성농업인은 2018년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샘플의 낮은 대표성을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명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따로 다문화여성과 귀농여성농업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 교육활동: 교육 경험, 유익한 교육, 교육 장소, 교육일 수, 추후 희망교육·교육 참여에 필요한 정책지원 · 자격증과 역량
- 복지현황: 건강상태, 일상생활동작의 어려움, 병원 이용, 만 6세 미만 아동 보육·초등생 자녀 보육, 연금 가입 여부·문화생활
-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 농업 활동 의향, 농촌 거주 의향, 농업과 농촌에서 애로점, 여성의 지위, 여성농업인 정책

2. 실태조사에 나타난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농업 활동을 포함한 경제 활동, 노동시간, 교육 활동, 문화를 포함한 복지 활동과 정책 등을 조사하였으며, 아래는 간략하게 농업 활동, 노동과 지위, 문화·복지 부분에서 나타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임.
- 경제 부분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농업경영관련 활동과 농업생산 이외 활동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이외 소득 활동 의향이 높음.
 - 여성농업인 본인의 직업적 지위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38.4%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 농업경영관련 참여 농작업의 종류로는 판로 결정이 57.6%로 가장 높고,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 56.1%,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41.7%, 영농자금 결정 30.8% 순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관련 참여하고 있는 농작업의 종류로는 판로 결정이 57.6%로 가장 높고,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 56.1%,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41.7%, 영농자금 결정 30.8% 순으로 조사됨. 연령과 관계없이 여성농업인이 다양한 형태로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

여성농업인의 참여하는 농업경영관련 작업

단위: %

	판로 결정	농사 기술 및 판매 정보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영농 자금 결정	경영 일지 기록	농지 및 기계 구입	고용 인력 선정	농지 임차
전체	57.6	56.1	41.7	30.8	23.2	18.7	18.1	4.2
30대 이하	55.5	58.9	34.1	23.7	30.3	10.3	8.4	1.4
40대	54.8	59.1	36.9	27.1	26.6	18.3	16.3	5.5
50대	60.2	55.7	39.1	34.9	28.4	16.5	19.2	3.3
60대	57.7	55.1	38.6	37.4	24.1	20.3	19.1	4.4
70대 이상	56.7	56.4	47.5	23.9	18.0	19.5	17.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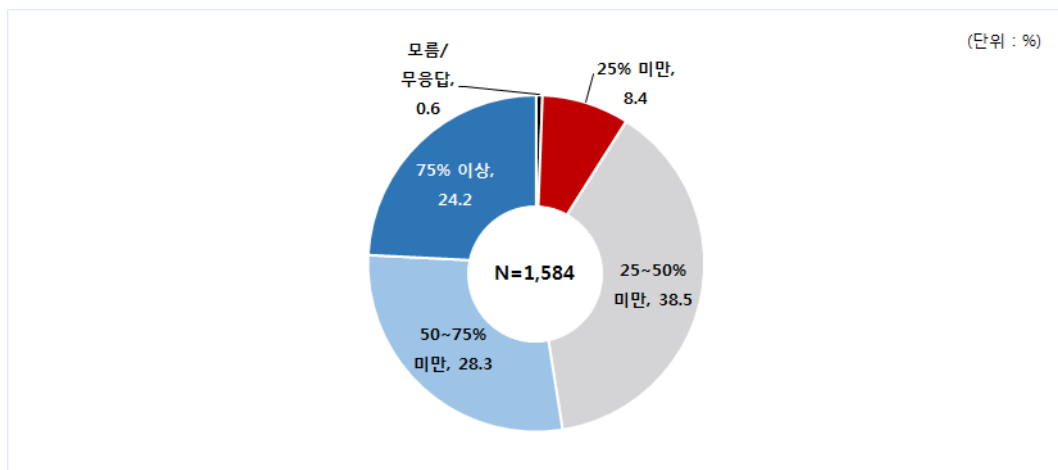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작업으로 수확 작업이 88.4%로 주로 수확 작업에 참여함. 남편은 주로 농약 살포 86.9%, 비료 주기 86.2%, 논/밭갈이 85.6% 순으로 재배 위주의 작업을 담당함.
- 여성농업인의 농업과 관련된 농업생산 이외 소득 활동 참가율은 32.1%로 조사되었음. 향후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이외 소득 활동 의향은 62.5%로 40대 76.8%, 30대 이하 76.5%, 50대 75.3% 순으로 나타남. 농업생산 이외 소득 활동에 구체적인 의향이 있는 분야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매가 41.6%로 가장 높고, 농업임금 노동 24.3%, 농산물 가공 23.2%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노동과 지위 부분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은 남성에 비해 적지만 여성의 농업노동시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에 비해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동시에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적지 않으며 오히려 많은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농업 노동시간 농번기기준 여성: 7.1, 남편: 8.9이며, 가사노동(청소, 빨래, 식사, 자녀돌보기, 부모돌보기) 여성: 4.72, 남성: .61. 농업노동은 남편이 2시간 정도 더 담당하지만, 가사노동은 여성이 4시간 정도 더 담당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이 농사일 중 50% 이상을 담당하는 비중은 52.5%이며, 연령별로 30대 이하가 18.9%로 가장 낮고 70대 이상이 66.0%로 가장 높음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예전보다 높지만, 남성보다 낮거나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는 의견이 81.1% 나타남.
- 향후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남성과 같아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30대와 40대에서 75%~77%에 이름.

농업 노동시간

(단위: 시간)

	본인				남편			
	농번기	농번기와 농한기 중간	농한기	축산 농가	농번기	농번기와 농한기 중간	농한기	축산 농가
전체	7.13	4.43	1.81	1.81	8.91	5.90	2.59	2.81
30대 이하	5.98	3.59	1.21	2.16	9.61	6.28	2.90	3.08
40대	6.85	4.22	1.96	2.70	8.83	5.66	2.81	4.40
50대	7.36	4.52	1.83	1.59	9.05	5.90	2.57	2.09
60대	7.51	4.75	1.93	2.15	9.01	6.08	2.65	3.24
70대 이상	6.86	4.24	1.75	1.02	8.47	5.63	2.36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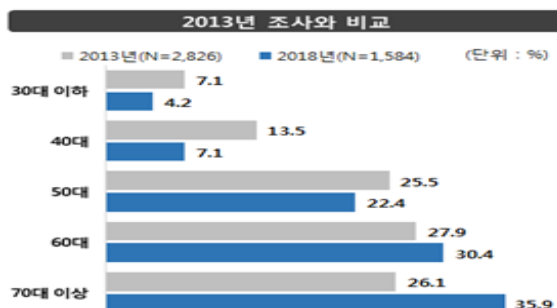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문화·복지 부분에서 여성농업인은 ‘취미·여가·교양’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동시에 가장 유익하며 향후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이었음.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여성농업인의 건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음.
 - 최근 3년간 교육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44.3%이고, 취미·여가·교양 분야가 30.3%로 가장 비중이 큼
 - 그 외에 농업 관련 생산 기술, 판매 및 마케팅 교육 경험이 많고 유익한 교육이라는 비율이 높음
 -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유익한 교육은 ‘취미·여가·교양’이 일반농 35.4%, 고령농 53.3%로 가장 높았음. 그 외는 ‘농업 생산 기술’이 15.9%, 판매 및 마케팅 10.6%, 농산물 가공 기술 10.2% 등 농업 기술이며, 컴퓨터 교육과 부업이나 자격증 교육에 응답 비율은 각각 5.6%, 3.2%로 나타남.
 - 교육 희망 분야는 「취미·여가·교양」, 「농업생산기술」, 「농산물가공 기술」, 「유통·판매·마케팅」 등 순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은 ‘농사나 가사 일을 대신할 사람 필요(27.3%)’, ‘교육 장소가 가깝다(26.1%)’, ‘농한기에 교육 실시(15.3%)’ 순임.
 - 현재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좋다는 비중은 50대까지는 90% 이상이 보

통 이상 건강하다고 응답, 반면 60대의 10.7%, 70대 이상의 28.5%는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농촌의 중요 관심 분야임.

3. 실태조사에 나타난 변화²⁾

- 2013년과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의 차이로 인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는 아래와 같음.
 - 2013년에 비해 조사 대상자³⁾의 연령이 높아짐. 5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증가하여 농촌 고령여성농업인 증가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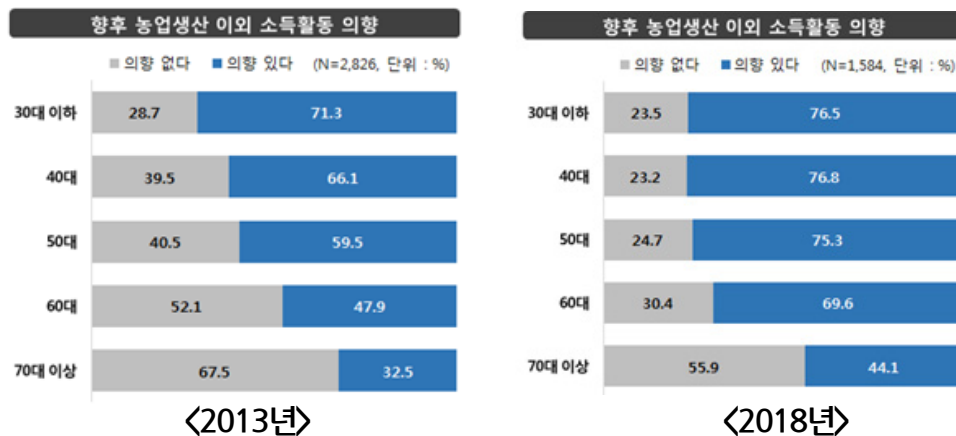
〈2013·2018년 연령별 조사대상자〉

- 여성농업인의 컴퓨터 보유율은 2013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 보유율은 29.9%에서 65.2%로 크게 증가하였음. 하지만, 50대 이하 여성농업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며, 70대 이상은 30% 정도여서 세대 간 정보화 기기 이용에 큰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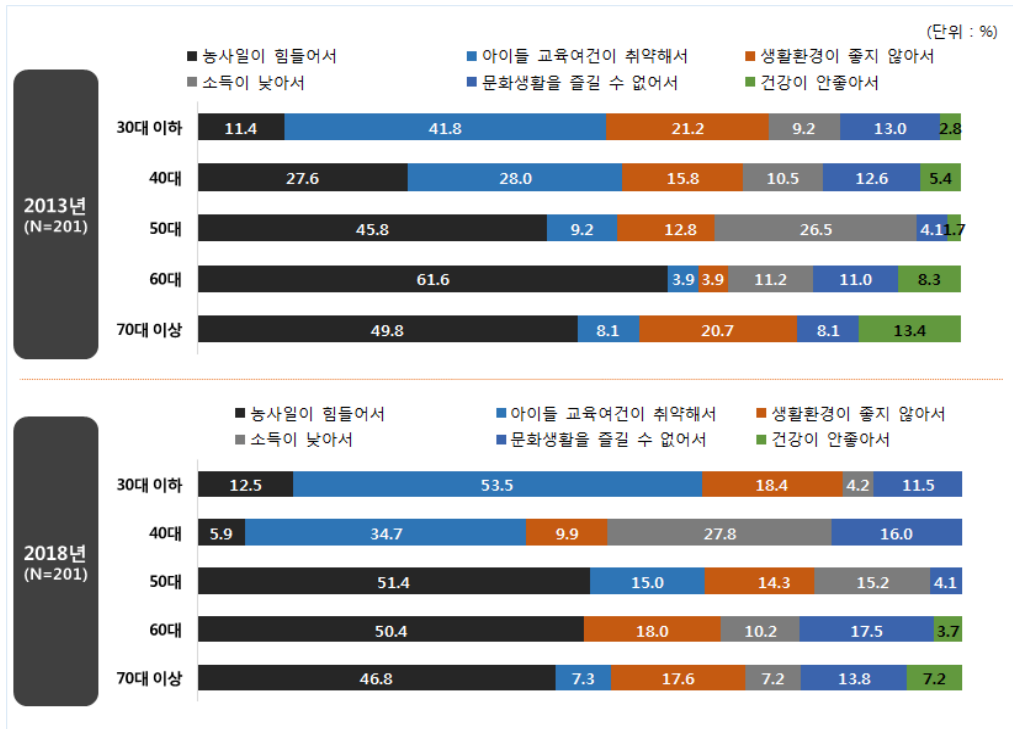
2)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조사 목적에 따라 2013년 조사와는 표본의 크기, 대상지역, 조사 대상 등이 변동되어 2013년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음.

3) 여성농업인 조사는 21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비율을 근거로 조사 표본을 만들었으므로 정확한 여성농업인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음.

- 향후 농업생산 이외 소득 활동 의향은 2013년에 30대 이하(71.3%)가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2018년에는 전반적으로 농업생산 이외 소득 활동의향이 높아졌으며, 60대까지 70% 가까이 농업생산 이외 소득 활동의향을 가지고 있었음. 향후 농업생산 이외 활동 희망분야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가 2013년, 2018년 모두 가장 높았음.



- 교육 경험은 2013년 취미·여가·교양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엔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교육희망 부분은 2013년 2018년 모두 취미·여가·교양 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여성농업인이 문화행사나 문화시설을 방문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농사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이 시간 부족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전체 여성농업인의 3분의 1 정도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생활에 대한 취미나 의욕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증가함.
-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농사일이 힘들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 30대, 40대 여성농업인에서는 아이들 교육여건이 취약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교육여건은 2013년에 비해 2018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



〈2013·2018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4.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시사점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다른 성격의 집단의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각 집단이 겪는 상황이 다르며, 이들의 욕구 또한 다름을 보여줌.
 - 여성농업인의 상황은 연령별(젊은층과 노년층), 집단별(일반여성농업인, 귀농여성농업인, 다문화여성)로 경제 상황, 농업 활동, 문화 소비형태, 농업활동의 애로사항, 농촌 거주에서 겪는 어려움 등이 다름.
 - 40대 이하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여건의 취약성’이, 50대 이상에서는 ‘농사일이 힘든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남.
 - 젊은 여성농업인일수록 가사, 보육,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고령농일수록 복지와 건강 등에 관심이 높음.

- 2018년 실태조사는 여성농업인이 다양한 연령과 농촌 사회 유입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여성농업인은 공통적으로 농사일이 힘들고 농사와 가사 병행의 어려움을 호소함. 일반적인 애로사항과 별개로, 여성농업인은 연령대에 따라 욕구가 다르며, 각기 다른 정책 욕구가 있음.
 - 30대 이하는 농지 소유 비율이 낮음. 자녀 양육이나 문화생활에 관심도 많고 교육 경험 많음. 교육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향후 농업 관련 새로운 사업을 하기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불만족스러운 교육여건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와 50대는 왕성하게 농업 활동을 하는 시기로, 지역사회활동에도 참여하여 노동 부담이 큼. 상대적으로 문화 활동과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40대는 농업 교육 경험이 높고, 농업생산 이외 소득 활동 애로사항으로 기획·정보 부족을 꼽고 있음. 40~50대는 유통판매나 마케팅, 농업생산, 부업자격증 등 교육을 희망함.
 - 고령농은 농지 소유가 없는 비율이 높고, 경작 규모가 작으며, 농사일 담당 비중이 높고, 농산물 판매액은 상대적으로 낮음. 향후 농업을 축소하거나 그만둘 의사 또한 높았고, 건강으로 인해 교육 장소가 가까운 곳을 선호하며, 의료기관이 멀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복지정책 욕구가 높음.
- 시급한 과제로 30대는 보육 시설 확충을, 40대는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50~60대는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을, 70대는 복지시설 확대를 꼽고 있음.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여성농업인의 어려움은 연령별로 집단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음.
 -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농사일이 힘들기 때문’이 26.9%로 가장 높고 ‘문화생활 즐길 수 없어서(18.6%)’, ‘교육여건이 취약해서(16.9%)’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 집단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단위: %

		농촌을 떠나고 싶은 비율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농사일이 힘들어서	문화생활 즐길 수 없어서	교육 여건이 취약해서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소득이 낮아서	건강이 안좋아서
전체		8.4	26.9	18.6	16.9	15.0	13.2	4.4
유형	일반농	7.7	28.7	17.5	15.9	13.9	13.9	4.8
	고령농	5.4	36.9	15.3	8.1	15.8	9.4	7.8
	다문화	51.8	11.8	27.1	25.5	24.5	8.6	0.3
	귀농	9.0	17.4	25.8	17.7	19.3	5.4	3.7
연령	30대 이하	36.1	13.5	22.6	31.7	18.2	7.9	0.2
	40대	17.1	7.7	22.4	31.6	14.6	18.5	0.0
	50대	8.1	33.1	15.0	19.3	12.7	16.4	3.4
	60대	6.5	34.4	19.3	1.8	15.8	13.5	6.5
	70대 이상	5.3	35.9	15.5	9.1	14.1	10.9	9.2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전체 여성농업인의 92.3%가 농촌 거주 의향이 있었지만, 30대 이하는 63.9%만 거주 의향이 있음. 다문화 여성은 50.8%만이 농촌 거주 의향이 있었음.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농사일이 힘들기 때문’이 26.9%로 가장 높고 ‘문화생활 즐길 수 없어서’는 18.6%로 그다음으로 높음.
- 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과 「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 순이며, ‘과중한 노동 경감’이라는 답변은 50~60대에서, ‘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라는 답변은 70대 이상에서 ‘보육·교육시설 확충’이라는 답변은 보육을 주로 담당하는 30대 이하에서 높게 나옴.

여성농업인의 시급한 과제

단위: %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	복지시설· 제도 확대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보육교육 시설 확충	기술자금 지원	전문경영교 육 강화
전체		24.2	22.5	17.6	16.8	11.1	4.8
연령	30대 이하	19.2	18.0	16.5	32.1	6.3	6.3
	40대	20.5	20.0	22.6	17.3	10.6	5.4
	50대	26.3	23.8	17.1	14.2	10.1	6.0
	60대	26.4	19.4	15.5	17.0	12.8	4.9
	70대 이상	22.2	25.2	18.9	17.1	10.6	3.8

자료: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2013년과 비교해서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와 시급한 과제에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젊은 여성농업인에게 보육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농촌 생활에 중요한 요소임.
- 문화생활의 애로사항은 연령대별로 30대는 경제적 상황, 40대와 50대는 농사일과 가사일로 인한 시간적 이유, 70대 이상은 교통과 건강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공통으로 시간 부족을 가장 큰 문화생활의 애로사항으로 꼽힘.
- 다양하게 실시되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와 참여도는 정책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인지도에 비해 낮은 참여도를 보였음. 하지만 인지도 역시 낮아서 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이 필요해 보임.
 -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는 항목별 6.1%~39.4%로 나타났으며, 농번기 마을공동밥상(39.4%),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33.4%),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32.5%)은 인지도가 높음
 - 여성농업인센터의 인지도는 26.2%로 나왔지만, 실제 이용 및 참여비율은 4.9%로 낮음.
 - 여성농업인 정책으로 수행되는 제도나 시설 중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8.0%로 비교적 높게 나옴.

- 실태조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는 농촌과 농촌에 있는 여성의 생활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는 농업 활동에 대한 변화를 가져옴.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는 농지 소유와 소유한 농지의 크기, 생산하는 농작물의 종류, 농업생산 이외 활동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침.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 정책 역시 필요해짐.
 - 여성농업인의 고령화는 농업 활동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문화, 주거, 교통, 식생활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발생함. 의식주 및 건강 관련한 기본적인 욕구와 문화, 교육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여성의 고령화에 맞추어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고령 여성농업인의 경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소유 비율이 낮으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민간과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지만, 디지털 소외⁴⁾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기술 교육에 관심이 필요함.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대한 제안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드러난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 중에서 가사와 농업노동의 과중함, 전문능력의 필요성, 낮은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후속연구와 정책이 필요함.
 -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으로 농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애로 상황과 문제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4) 정부는 2019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포함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을 밝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깊은 여성농업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는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은 연령별과 집단별로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여성농업인이 한 집단이 아닌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애로사항이나 욕구에 따른 구체적이며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의 변화는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농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임. 하지만, 하지만 5년마다 이루어지는 통계조사는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현재 여성농업인실태조사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없었으며, 기존 실태조사의 경험과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실태조사의 실제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⁵⁾.
 - 5년마다 이루어지는 여성농업인실태조사는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투입을 통해 보다 정교한 조사 설계를 바탕으로 다양하며 충분한 샘플의 여성농업인을 조사에 포함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함.

5) 2019년 농식품부에 농촌여성정책팀의 설치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